

자유 · 사랑 · 평화

남가주 거울



the Mirror of Ewha

제23호 · 2024년



이화여자중·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
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목차 Vol. 23 2024

- 03 인사말 이화여자중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장 장현주 (75)
- 04 축사 남가주 후원 이사장 홍훈정 (70)
- 05 축사 이화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박재욱 (69)
- 06 축사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김혜정 (76)
- 07 축사 북미주 총동창회장 최한희 (64)
- 08 축사 학교 법인 이화학원 이사장 정창용 (66)
- 09 이화여고 연혁과 사진
- 10 특집: 거울지 사랑 | 이화 남가주 거울지의 변천사
- 14 그리운 추억 | 추억의 한 페이지를 남기며 안원숙 (75)
- 15 특별기고 | 창조적 노년의 삶 김정자 (64)
- 16 특별기고 | 환갑+낭랑18세 (60주년 재상봉) 김명옥 (64)
- 17 특별기고 | 이화 재상봉 행사에 다녀오다 (50주년 재상봉) 권기숙 (74)
- 20 특별기고 | 유튜브, 그 엄청난 세계 윤수경 (61)
- 22 특별기고 | 파리 올림픽 이야기 송혜성 (67)
- 24 감사편지 | 장학금 감사글 조정우, 최수현, 정지석, Bridget Kim, Daniel Lee, Morgan Pak
- 26 아름다운 이화인 | 선교지에서 오소숙 (73)
- 28 아름다운 이화인 | Art Open House 신서영 (66)
- 29 아름다운 이화인 | LA 체험 모교 장학생 김광숙 (68)
- 31 문화차이 | Reverse Cultural Shock 권선희 (75)
- 34 문화차이 | 나의 미국 초등학교 학생 체험 이영순 (53)
- 35 문화차이 | 한국 방문단상 정경실 (72)
- 36 문화차이 | 한국엄마와 미국아들 이야기 손장숙 (75)
- 38 문화차이 | 몽골선교와 문화차이 김윤자 (63)
- 40 문화차이 | 축복의 땅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권정현 (75)
- 42 문화차이 | 감동으로 다가온 미국문화 이혜주 (75)
- 43 문화차이 | 나의 문화체험 김형주 (77)
- 44 미술전 | 조각가 작업실 방문기 서동현 (66)
- 45 글 모음 | 기행문 산티아고 순례길을 따라서 제영혜 (70)
- 52 글 모음 | 기행문 가장 르네상스적이었던 중세의 남자프레데릭 2세 이혜경 (69)
- 54 글 모음 | 잊을수 없는 뉴욕에서의 첫 공연 문정인 (69)
- 56 글 모음 | Valley 이화 후배들의 모임 이주혜 (75)
- 58 이모저모
- 62 동아리 소식 | 이화 걷기반
- 63 동아리 소식 | 남가주 이화여고 동창 합창단
- 64 동아리 소식 | 문화 탐방
- 65 동아리 소식 | 골프 모임
- 66 동아리 소식 | 이화코랄
- 68 동아리 소식 | 민화반/메이크업반
- 69 지혜로운 이화인 가족들의 기 소식
- 91 동창회 공지사항/유관순 기념관 건축 안내
- 93 북미주 총회광고
- 94 동창회 내역
- 95 이사회비 및 광고/후원금 내역
- 97 편집 후기 이주혜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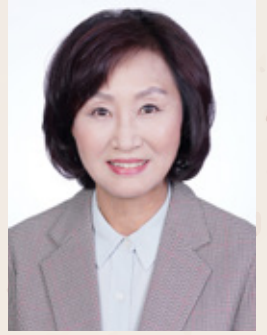


표지디자인: 김미례 (75)

남가주 거울 이화여자 중 · 고등학교 남가주동창회보

발행일 | 2024년 9월 30일 편집인 | 이주혜

발행인 | 동창회장 장현주 편집위원 | 권선희, 한영덕, 최원경, 김미례, 원철경



제 23호 거울지를 발행하며

사랑하는 남가주 동문님들 안녕하세요? 금년으로 저희 임원진이 동창회 두 번째 해를 보내면서 지난 2년동안 남가주 동창회를 향해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성원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초에 남가주에 살고계시는 1,000여분의 동창님들께 편지로 문안 인사를 드렸는데 벌써 여름도 다 지나고 10월을 맞이합니다.

금년에는 2월에 특별히 모교에서 LA 체험 장학생 2명이 이곳을 방문하여, LA 여러곳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3월에는 정기 이사회로, 5월에는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동창회의 전반적인 행사 계획들을 알리고 특별 순서로 첼로와 피아노 연주가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그리고 '노후 간병 대책' 특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4월에는 골프 동아리 주최로 Industry Hill에서 golf tournament로 선후배님들과 교류할 수 있었으며 문화탐방 동아리에서는 Hilbert museum을 방문하여 특별히 California art 를 감상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5월 2일에는 '뉴욕동창회 50주년 기념 음악회'로 남가주에서 이화코랄과 이화동창 합창단이 참여하여 New Jersey Performing Arts Center 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공연을 하였습니다.

7월에는 다섯 분의 선교사님께 선교비를 후원하였고, 또 미주에 있는 네 명의 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8월에는 Hollywood Bowl에서 문화 탐방 반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 동창님들 50분을 모시고, 한국의 자랑인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연주를 관람 했습니다. 이제 곧 10월에 LA에서 또 하나의 큰 행사인 북미주 총회가 열립니다. 한국에서 모교 교장 선생님과 많은 분들이 세계 각지에서 오시는 것을 비롯하여 총회 모든 행사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제 23호 거울지를 발간하며 모든 분들께 그동안의 격려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5년 동창회 임원진을 맡으실 76학번께서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동창회로, 또한 이화인의 자유, 사랑, 평화의 기상이 한마음으로 이어져 나아가는 동창회로 이끌어주시길 믿고 기대합니다. 많은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남가주 동창회가 계속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월 마지막 행사인 송년 모임에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희망하며 모든 동창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남가주 동창회장 장현주(75)



최고의 대한민국

기적의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의 문화는 “빨리 빨리” 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서둘러지고 Stress 투성이 “빨리 빨리” 의 이 감정을 우리 한국인은 아주 멋지게 소화하여 이러한 기적을 이루어 낸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우등생 나라가 되었습니다.

6. 25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었던 무지 무지하게 가난한 나라에서 최고속 스피드로 순식간에 온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는 부자나라가 되었습니다.

음식, 예능, 체육, 미용, 그리고 의술 등 곳곳에 천재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또한 천재 이더라도 “빨리빨리” 감성에 최대한의 노력을 곁들이는 민족성이 되어버린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도 최고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기적을 이루는데에 밑거름이 되어준 세대가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온 세계를 지배하면서 여기 저기에서 아픈 신음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성과 인정이 함께 하는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날들이 오래오래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오늘도 은혜의 날입니다. 최고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남가주 동창회 후원 이사장 홍훈정(70)

남가주에 계신 동창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서울은 국지성 폭우와 맹더위로 아열대 지역과 같은 유별한 여름을 지냈습니다.

우선 궁금해 하시는 서울 정동 소식입니다.

3월1일에는 작년과 같이 정부에서 주도하는 3.1절 행사가 유관순기념관에서 거행되어 정부요원들과 많은 관계자들이 이화동산을 찾아와 105년 전 목숨을 바쳐 항일 만세를 부른 유관순열사 선배를 기리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고 유관순기념관을 널리 알리는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138주년 창립기념식에는 특별히 많은 동창들이 참여하셔서 이화동산이 붐볐습니다. 많은 동창들과 함께 창립기념일을 축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64년, 74년, 84년 졸업 동창들은 각각 졸업 60주년, 50주년, 40주년 재상봉행사에 각각 250여 명, 240여 명, 110여 명이라는 이례적으로 많은 동창이 참여하여 즐거운 잔치를 하였고 54년 졸업 70주년 재상봉을 맞으신 89세 선배님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20여 분이 참석하셔서 맛있는 오찬을 대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60년대 졸업하신 선배 동창들께서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바자도 활발하게 참여하셔서 최근에 보기 드문 최고의 활기를 띄었습니다. 바자를 담당하신 임원들은 잠시라도 자리를 뜰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해외에서도 많이 참석하시어 철원이화농장에도 버스가 3대나 동원되었습니다. 해외동창들은 주로 북미주에서 오셨고 그 중에서도 남가주가 당연 일등이십니다.

우리 동창들은 스크랜튼 선교사의 창립 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아름다운 이화전통의 계승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이화동산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듯이 동창님들의 변함 없는 이화사랑과 열

정적인 참여가 계속 이어지는 아름다운 이화전통의 원동력입니다. 남가주 동창회도 선배님들의 두터운 우애와 봉사가 후배 동창들에게 진솔하게 전달되어 누구나 부러워하는 남가주 동창회가 변함없이 유지되며 더욱 발전할 것을 확신합니다.

유관순기념관건축기금은 2020년 1월부터 모금을 시작하여 4년 8개월이 되었으며 2024년 8월 30일 현재 53억 7,199만 여원의 거금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6만 3,000여 동창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이루어낸 값진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아직 1,000여 개의 의자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니 완공될 때까지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남가주 동창회에서는 선도적으로 기부해 주셨고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니 든든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송년회 준비도 한 여름에 일찍 주문하셔서 늘 총동창회 로고상품으로 '정동바래기'를 하시는 정성에 깊이 감사드리며 좀 더 참신하고 유용한 상품으로 만족을 드리도록 총동창회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해도 <남가주 거울>을 통하여 장현주 회장을 비롯한 남가주 동창들께 인사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거울>은 서울에서도 남가주에서도 서로의 모습을 진솔하게 비추어 주고 있어 영원토록 반짝일 수 있도록 잘 닦고 소중히 간직하여야 하겠습니다.

남가주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과 동창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8월

이화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박재옥(69)



남가주 동창님들께

남가주 동창님들 안녕하세요?

지난 5월 30일 창립 138주년을 맞은 이화는 국내외 동창님들, 재학생, 학부모들이 모두 함께 모여 성대하게 창립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함께 모이지 못했던 아쉬움이 쌓였던 탓인지 올해는 정말 많은 이화 가족들이 모여 신록이 우거진 아름다운 이화 동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38주년 창립 기념식에선 네덜란드 헤이그의 '이준 열사 기념관' 관장이신 송창주 동창님 (58)께서 제16호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을 받으셨고 김의자(64) 동창님을 비롯한 20명의 동창님들이 '이화 빛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졸업 70주년을 맞이하신 54년 졸업 선배님들도 10여분이나 건강한 모습으로 재상봉 행사에 참여하셨고 64년, 74년, 84년 재상봉 동창님들 역시 500여명이 창립 기념 행사에 참여하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길이 기억될 좋은 추억을 만드셨습니다. 남가주에서도 재상봉 동창님들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모교를 방문하셔서 창립 기념식, 동창 바자회, 기별 재상봉 행사, 법인 초청 철원 방문 행사까지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정말로 즐겁고 감격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관순 기념관 개축 기금, 장학 기금, 학교 발전 기금 등 동창님들의 정성을 모아 귀중한 기부를 해주시는 이화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모교 교장으로서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누구보다 앞장서서 모교에 사랑과 후원을 보내주시는 남가주 동창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에 자율형사립고로 첫 신입생을 선발한 이화는 올해로 열다섯 번째 신입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이화의 학생들은 시간이 갈수록 138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학교의

주인이라는 자부심과 애교심이 자라나며 열심히 공부하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열정만큼 선생님들도 힘을 모아 밤낮없이 애쓰고 있고 그 결과 작년 대학입시에서는 최고의 좋은 성적을 거두며 명실공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2024년 1월에는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2023 사학기관 운영평가에서 '종합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이제 이화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의 선도적 명문 학교로 제2의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창님들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이화 장학재단의 장학기금은 160억을 넘겼고 유관순 기념관 개축 기금도 50억이 넘게 모금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동창님들의 뜨거운 이화 사랑, 후배 사랑이 있어 가능한 일하기에 그 중심에서 모교 사랑을 실천해오신 남가주 동창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화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교육의 시대적 요구에 빠르게 대처하면서도 '약한 이 힘 되고 어둠에 빛 되자' 는 이화 정신을 다음 세대까지 바르게 이어가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 앞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고비 고비마다 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동창님들의 열렬한 후원과 사랑에 의지하며 이화 가족 모두 힘을 모아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늘 그러셨듯이 이화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남가주 북미주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장현주 회장님을 비롯한 자랑스런 남가주 동창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8월
이화동산에서 교장 김혜정 올림



남가주 거울 23호 발간을 축하드려요!!

일년에 한번씩 남가주 거울이 발행되었으니 벌써 23년째 입니다. 이렇게 수십년 동안 국외에서 고등학교 동창소식지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울지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이름을 날리던 교내 신문이었습니다. 오인영선생님께서 편집장으로 계실때 저도 거울기자로 잠시 활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울이라는 이름부터가 매우 고유하고 독특해서 매력이 있었습니다.

거울이란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소지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므로 잘못된 모습이나 화장, 옷차림도 고칠수 있지요. 소식지인 거울은 단어 그대로 우리의 겉모습 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소리로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 인것 같습니다. 동창들 서로의 소식을 공유하며 우리 동창회에는 중요한 역할과 소통의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 취미, 삶의 지혜등을 나눔으로 우리가 함께하는데 많이 이바지하고 있으며, 아무쪼록 거울지가 우리 동창들의 모습을 잘 보여줌으로써 서로 칭찬하고, 축하하고, 배워가며, 소통하고, 함께하는 소식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여주신 남가주 이화 동창 회장님 이하 모든 임원들, 또 과거의 동창 회장님들과 임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이곳 Los Angeles 에서 제 11차 북미주 총회가 열립니다. 이곳 남가주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HOST이십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각처에서 오시는 외부 동창 손님들을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가주 거울지 발행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화 여자 고등학교 북미주 총동창회장 최한희(64)



남가주 동창님들, 안녕하세요?

장현주 남가주 회장님과 '75년 졸업 임원들께 감사드리며 남가주 거울지 23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올해 2024년 5월의 이화는 활기차고 뜻깊은 138주년 창립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화의 재학생들과 졸업 70주년(54 졸), 60주년(64 졸), 50주년(74 졸) 40주년(84 졸) 재상봉 동창들을 비롯한 동창님들의 축재였습니다.

미국인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튼 선생님이 1886년 이곳 정동에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를 하나님의 큰 뜻에 의해 이화를 세우신 지 138년이 지난 5월이었습니다.

어려운 고비에도 늘 함께하시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스크랜튼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국내외에서 동창들을 만날 때마다 늘 자랑스럽습니다. 동창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약한 이 힘 되고 어둠의 빛이 되고 있으며, 모교 이화를 위한 일이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앞장서 주시며 이화를 빛내고 있습니다.

남가주 동창님들의 이화 사랑은 특별하십니다. '75년 우리들의 추억의 교사인 프라이홀이 화재로 전소되었을 때 복구 기금을 모아 주셔서 현재 백주년 기념관을 짓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화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후배들을 위한 기금을 모금할 때도, 최근 유관순 기념관 재건축 모금에도 앞장서 주셨습니다.

또한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도 매년 보내주시고 선생님들의 교사연수에도 따뜻하고 정성 어린 도움을 주셨

습니다.

자사고 설립 서명운동, 자사고 폐지 서명운동, 유관순 열사 서훈 승급 서명 등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헌신적으로 모교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이화에 몸담고 있으며 늘 감동하고 자랑스러워 합니다.

그동안 모교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동창님들에 대한 보답이 늘 아쉬웠습니다. 이화학원은 동창님들이 늘 그리워하며 달려오면 친절 같이 품어주는 모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화 동산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혹시 한국에 오실 때에는 모교를 찾아 이화에서의 추억과 함께 친정의 넉넉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화는 동창님들의 변함없고 한결같은 이화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좋은 교육을 후배들에게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처럼 함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LA를 비롯한 주변 지역 동창님들을 묶어주는 남가주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법인 이화학원 이사장 정창용(66)

이화 여자 중.고등학교의 탄생 역사

이화여자 중고등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은 1886년 5월 31일 미국 북감리회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 여사에 의해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 기관으로 창립되었다. 1887년에 고종황제가 '이화학당'이란 교명을 하사했다.

Mary Scranton 1832~1909

Mary Fletcher Scranton은 1832년 12월 9일, 미국 메사추세츠주 벨처 타운에서 영국 청교도 가문의 감리교 목사 Erasmus Benton의 딸로 태어났다. 노리치여학원(1847-1850)을 나와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의 실업가 William Talcott Scranton과 결혼하여(1853), 외아들 William Benton Scranton을 낳았다(1856).

1872년에 남편과 사별 후에는 아들을 교육시키며, 감리 교회와 미국 북감리교 여성해외선교회 (WFMS)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은 1882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내과의사가 되었는데, 1884년 여름에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 해 10월, 윌리엄 스크랜튼이 북감리교 해외선교부로부터

조선선교사 임명을 받자 WFMS는 만 52세였던 메리 스크랜튼 여사를 조선 선교사로 임명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1885년 2월 초에 며느리 루이자와 둘 지난 손녀딸 어거스타와 함께 온 가족이 조선을 향해 떠나왔다.

2월 말에 일본에 도착한 일행은 1884년 12월에 일어난 갑신정변으로 불안해진 조선 정국이 진정될 때까지 일본에 머물러야 했다. 상황을 보던 윌리엄 스크랜튼은 5월 초에 홀로 먼저 조선에 들어와서 정착을 위한 준비를 했다. 정동에 사택이 마련된 후에 남은 가족은 6월에 입국했다.

메리 스크랜튼은 사택 근처에 여학생 교육을 위한 학교 부지를 마련했다. 다음 해인 1886년 11월, 지금의 이화여고 자리에 디귤 자 형태의 궁궐 같은 한옥 학교가 완공되었다.

1886년 5월 31일에 첫 학생으로 시작한 이화학당은 현재의 이화여자고등학교, 서울예고, 예원학교, 이화외고와 이화여자대학교로 이어졌다.

1886.11 완공된 이화학당



| 이화 남가주 거울지의 변천사 |

2002년 8월, 제 1호인 거울지 창간호부터 2024년 제 23호가 발간되기까지 선배님들께서 학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레 각 기소식도 전해주셨고, 아름다운 글도 올리셔서 거울지라는 멋진 이화인만의 귀한 소통 문집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고마움을 전하기위해 저희 75 동기들이 거울지를 한곳에 모아 그동안의 변천 역사를 담아보았습니다. 아쉽게도 이번에 2,3,5,8호는 누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호, 2002, 발행인 전애린(65)



제4호, 2005, 발행인 김영희(66)



제6호, 2007, 발행인 도경애(67)



제7호, 2008, 발행인 도경애(67)



제9호, 2010, 발행인 김병화(58)



제10호, 2011, 발행인 김광숙(68)



제11호, 2012, 발행인 김광숙(68)



제12호, 2013, 발행인 이화숙(69)



제13호, 2014, 발행인 이화숙(69)

| 이화 남가주 거울지의 변천사 |



제14호, 2015, 발행인 송묘령(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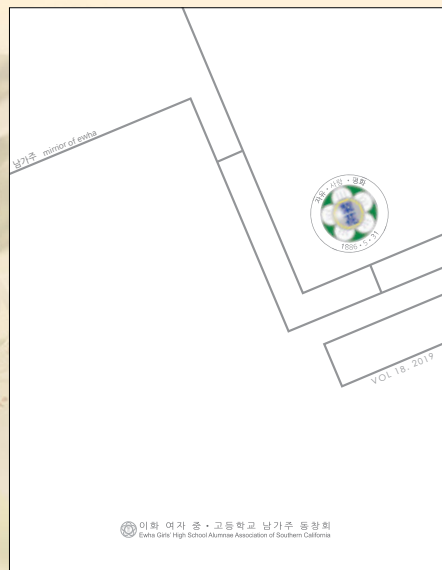
제15호, 2016, 발행인 송묘령(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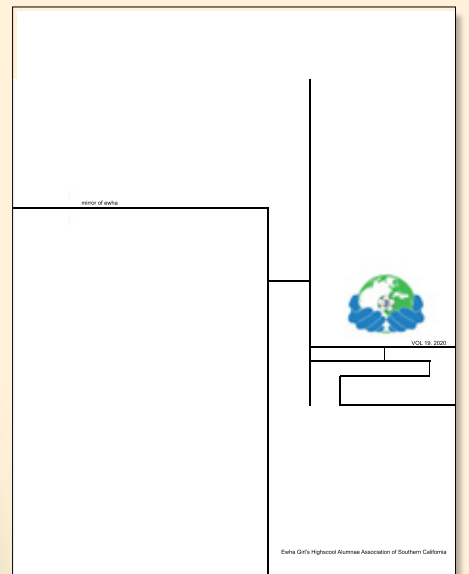
제16호, 2017, 발행인 이해란(72)



제17호, 2018, 발행인 이해란(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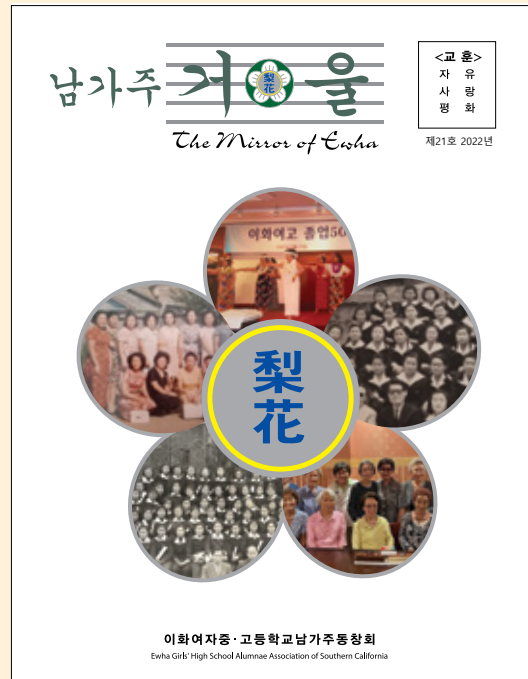
제18호, 2019, 발행인 정애수(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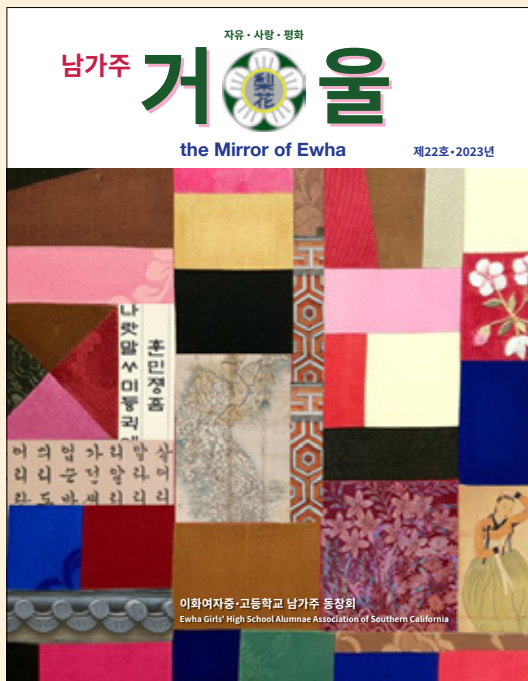
제19호, 2020, 발행인 정애수(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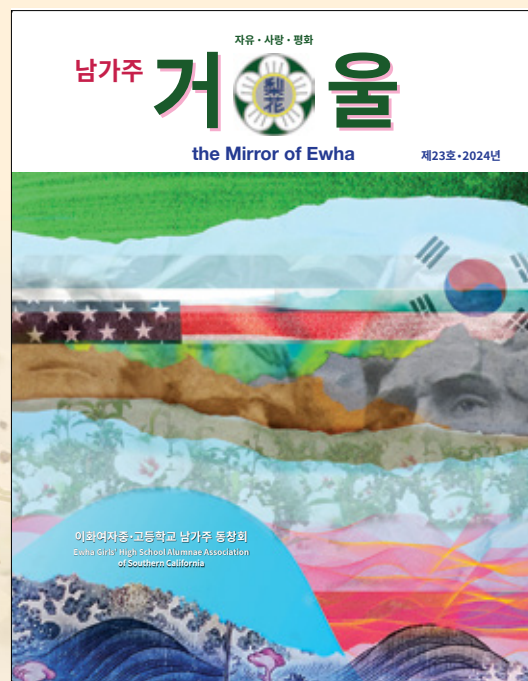
제20호, 2021, 발행인 이영희(74)



제21호, 2022, 발행인 이영희(74)



제22호, 2023, 발행인 장현주(75)



제23호, 2024, 발행인 장현주(75)

추억의 한 페이지를 남기며...

안원숙 (75)

혹시..?
이화여고..?
네! 이화여고 나왔어요
와! 우리 후배네 - !
환히 웃으시며 두 팔 벌려 어깨를 감싸주신다
선배님들을 만날 때면 늘
학교 교정을 거닐듯
우리는 금새 한마음이 되어버린다
그리하여, 마음에 황하니 냉기가 서리다가도
이내 따뜻한 온정으로 포근한 정감을 느끼곤 한다

미국생활을 하다보면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논하고 싶을때
웬지모를 외로움이 밀려올 때라도
아니, 만나지 못하더라도 생각만으로도
이미 내 마음은 푸근한 사랑으로 빈 공간이 채워지곤하였다

지금도 생각나는 노천극장 !
전교생이 줄지어 앉아있고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진다
그때 누군가 손뼉을 치는 소리 그소리에 화답하듯
연이어 이어지는 박수갈채
지휘자가 없이도 잘 어우러지는 화음처럼
선후배간의 화합이 어찌 그리도 잘 맞았는지..?
전교생 모두 함께 웃으며 행복해하던 시절

살다가
마음이 흔들릴 때라도
선배 언니들을 만날 때면
속 마음을 털어놓지 않아도
서로간에 흐르는 대화의 흐름속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였었다

혼자가 아닌 함께였기에...
아낌없이 사랑을 전해주셨던 선배님들의 조언과
격려해주심으로 힘을 얻었던 기억들이
여전히 가슴에 남아있는데

이제는
추억만이 남아있을지라도
마치 그시절
그 시간처럼
지금, 세월이 흐른 이 나이에
선후배간의 사랑의 교류가 이어지곤한다
이화인이라는 울타리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면면히 이어지는 선후배간의 깊은 사랑은
푸르른 교정에서 영원히 피어나는 배꽃의 향기로 가득하리라

나즈막히 불러보는 교가!
한줄기 새 빛이 동방에 비치니 ~~
자유, 사랑, 평화의 물결이 가슴 가득 차오르도록
우리 이화인 모두 사랑의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 모두

추억의 한 페이지를 남기며...



김정자(64)

창조적 노년의 삶

나이가 들면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보고 모든 것을 내려 놓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했다고 생각하며 하차 준비를 합니다. 나이 들에 관한 대중적인 견해는 대부분 쇠약해진 심신으로 인해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상황과 노년은 삶의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Jene Cohen(진 코헨)은 미국 최고의 노인정신의학 전문의 사입니다. 진 코헨은 노년에도 위대한 창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축적되는 내면의 경험과 사회적 경험에 경험의 질을 곱한 값이 창조적 삶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첫째로, 노년의 엄청난 잠재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노인이 되면 과거에 얽매어 있으며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나이 들”에 관한 고리타분하고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이 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쇠퇴나 상실의 시기로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기로 받아들여야 하며, 나이드는 것을 스스로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나이 들”은 우리에게 과거를 넘어선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재탄생의 기회를 줍니다.



둘째는, 나이가 들면서 형성되고 발달한 “회복탄력성”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회복탄력성”이란 역경에 대처하며 균형을 되찾는 능력을 뜻합니다. 삶의 역경 가운데서 부러지지 않는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삶의 지혜가 가져다준 “회복탄력성”은 긍정적인 마음과 자긍심을 불러 일으켜서 스스로 창조성을 발휘하게 되어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변화 시킬 수 있게 됩니다.

노년의 지혜는 “회복탄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셋째는, 목적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는 모두가 고민하는 삶의 큰 질문입니다. 좋은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가? 회복탄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삶의 목적의식입니다. 회복탄력성을 발휘할 때 우리는 삶의 목적을 찾게 되며,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목적의식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며 나이 들의 이유가 됩니다. 삶의 목적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지속적인 자기 성장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창조적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나이 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목적의식을 가지면 더 오래 살 뿐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나이 들”은 우리에게 과거를 넘어선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회복탄력성”과 “목적의식” 지혜를 통해서 창조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나이 들”은 우리가 삶에서 성취하는 가장 의미 깊은 일 중 하나입니다. “나이 들”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문화와 역사가 흘러갈 수 있게 합니다.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스스로 평가하고 결단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시 19:14)

다윗의 통찰력과 긍정적 자세가 우리 이화 동창생에게도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문화와 역사를 창조하는 훌륭한 이화를 만들어 봅시다.



김명옥(64)

환갑 + 낭랑 18세의 만남!

두 갈래 머리로 종종거리며 등나무 터널을 손잡고 거닐고, 장미 향기에 취해 지내던 6년 세월을 뒤로 하고, 정동 길을 떠난 후 (어느사이 환갑을 맞는다고) 잔치를 차리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깜짝 놀라 우리들의 낭랑 18세를 떠 올리며 얼마나 들뜨는 즐거움이었는지요!

서울 본교에서의 초청, 서울 동기들의 정성 다한 준비, 미주에서는 몸만 오라는 초콜릿보다 달콤한 소식! 차려놓은 잔치상에는 많은 손님들이 모여야 더욱 흥겨운 모임이 아닌가 하며, “가자 모두 가자!” 하고 다짐은 했지만 우리가 여전히 낭랑 18세는 아니었네요. 몸도 아프고, 낭군님의 건강도 염려되고, 이런 저런 사연도 들려오고... 막상 진즉 떠나려 했을 때는 모두 함께 정동 길로 갈 수는 없었지요.

떠나기 전부터 들뜨게 했던 서울 동창들의 준비는 깜짝 놀랄 만큼 가슴뛰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도착한 후의 노보텔 호텔을 시작으로 해서 하루 세끼 식사까지, 화려한 롯데 호텔 사파이어 볼룸에서의 성대한 만남의 파티! 유관순 기념관에서 창립 기념식, 총동창회 초청 오찬, 2박 3일의 강릉 여행, 철원 제2땅굴 방문, 석별의 정을 나누는 윤보선 전 대통령 고택에서의 오찬, 윤희주 음악회! 알차게 짝 찬 순서들!

외국에서 56명, 국내에서 174명, 합이 자그마치 230 명의 동기들이 함께 하는 모임, 그리고 여행이라니... 그 만남의 대단함과 준비한 친구들의 극진한 사랑에, 누가 뭐래도 우리는 무조건 달려서, 날라서 가야만 했습니다. 노보텔 호텔에서의 만남은, 거기서 환갑이 지난 18세 소녀들의 만남은, 정말 꺾꺾 누를 수 없는 반가움의 토끼뎀이었습니다. 강충강충 붙들고 뛰어대는 우아한 환갑+낭랑 18세의 우리 친구들!

만남! 이 아름다운 단어가 우리를 춤추게 하고, 웃게 하고, 슬쩍 돌아서서 눈물 두어 방울도 떨어지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음을...

세명씩 또는 두명씩 나누어 들어간 방! 그 방에서는 또 다른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훌러덩 벗고 옷 갈아입기, 함께 들어가서 양치하고, 샤워하고, 세수하고, 볼일도 보고... 호호호 하하하 무조건 좋아!

옛날에 수학 여행 갔던 때도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에서 환갑만 빼면 지금이 그때 아닌가? 과녁을 정확하게 맞추면

10점이라는데 오늘부터 우리는 10점 만점을 맞춘 일등생들입니다. 사실 옛적에는 환갑, 즉 60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니, 두 번의 탄생, 즉 제 2의 인생이 출발한다는 의미심장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진갑이라하면 어지간히 오래 사는 것을 비유적으로 살 만큼 산 사람이란 뜻으로 전해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환갑과 진갑을 다 지난 노털?

그런들 저런들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환갑 + 낭랑 18세를 즐길뿐인데... 하늘하늘 흔들리는 젊은 허리, 강충거리며 뛰어 움직이는 종아리들, 환하게 웃어 제끼는 환한 얼굴들은 분명하고운 아가씨들 그대로인 것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틀림 없습니다. 앗싸! 아가씨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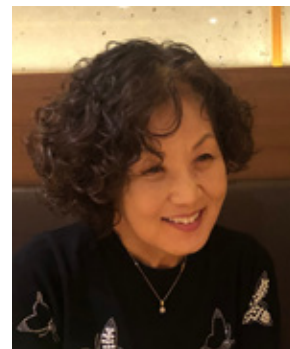
강릉이 어디고, 제 2 땅굴이 어디입니까? 가슴은 아프지만, 든든한 우리의 아들, 손자들이 총 들고 떡 버티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다녀왔습니다. 너무 서글픈 아이스크림, 백마고지의 어원을 들려 줄 때는 가슴 깊이 내려진 두레박이 끝도 없이 떨어져서 얼마나 아팠는지 오랫동안 눈을 떠도 앞이 안 보일 지경이었죠. 눈을 들어 쪽 내려다 보면 거기 산 등성이 까지가 북한군의 땅이고 그 앞쪽은 남한 땅이라니... 언제쯤이면 서로 자유롭게 대한민국이라는 통일된 나라가 될지... 가슴만 아려 왔습니다. 꿈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했으니!

만남은 헤어짐으로 이어지는 시작인가요? 뜨거운 햇빛 아래서 윤보선 전 대통령 고택에서의 석별의 모임! 울음보 보다는 반가움으로 포옹도 하고, 곁에 앉아 손잡고 미소 지으며 모여 있던 시간도 눈 깜짝하는 순간에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헤어짐의 쓸쓸함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그만 정말 헤어졌습니다.

돌아와 생각하니, 우리가 이화 동산에서 '자유, 사랑, 평화'의 교훈으로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의 이끄심인듯 합니다. 복받은 우리 이화인들! 그 복을 이제는 많은 이웃에게 돌려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준비하고, 물심양면으로 애써준 장예순 회장님과 회장단에게 어떻게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하고 왔는데 지금은 미주의 집에서 추억으로만 남은 재상봉의 날들을 되씹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상봉의 날이 오면, 좀 더 즐겁게 감사하며 보람된 날들로 준비할 수 있으려나?!!

이화 재상봉 행사에 다녀오다 (aka오십년만의 외출)



권기숙(74)

1983년 12월24일 나는 미국으로 가족이민을 와서 대부분의 이민자들의 모습으로 열심히 직장과 가정 사이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낯선 미국땅에 자리잡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는 동안 한인 이민자들이 흔히 학연으로, 지연으로 만남을 하는데 나도 가끔 대학교 동문회에 참석하면서 오랫동안 못 만났던 대학 동기 친구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대학 동기이면서 고등학교 동기인 한 친구가 “기숙아, 나랑같이 고등학교 동기 모임에 가지 않을래?” 하는 제의에 여고 졸업 후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동기들과의 만남에 많은 망설임이 있었지만 ‘친구따라 강남간다’란 옛말처럼 이 친구와 같이 처음으로 엘에이74

여고동기 모임에 가기 시작했다. 겨우 몇몇 동기들의 이름과 얼굴을 알아갈 때 안타깝게도 코비드-19 펜더믹이 터지고 거의 2년의 시간 동안 ‘social distance’의 우물속에 전세계가 몸살을 앓았고 그 덕분에 겨우 알게된 몇 안되는 엘에이 여고친구들의 이름들도 아물거려졌다. 그리고, 올해 초, 5월에 있을 “이화창립 138주년기념 및 50주년 재상봉 행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는 “이번 기회에 고등학교 친구들도 만나고 이화 교정도 한번 가 볼까?” 하는 흥분과 용기란 놈이 스물스물 올라왔다.

한국방문시 대부분의 시간을 친정 아버지 집에서 보내며 동네 마트 가는 게 거의 대부분인 나로서는 이 5월의 행사 참여는 특별한 일탈, 아니, 나의 “50년만의 외출!”로 아주 크게 다가왔다. LA에 사는 이화74 동기들 중 10여명이 50주년 재상봉 행사에 참석한다고 했다.

2024년 5월24일, 서울 양재역에 위치한 ‘엘 타워’ 그레이스

홀에서 74졸업 재상봉동창 모임을 시작으로 재상봉행사 첫날의 화려한 테이프를 끊었다. 이 모임의 드레스코드인 검정 하의, 흰 상의에 각 반을 상징하는 포인트로 잔뜩 멋을 부린 74졸업 동기들이 끼리끼리 기념사진을 찍거나 반가움의 목소리로 서로 안부인사를 하는 등, 그레이스홀 안은 시끌벅적함으로 가득했다. 고3때 나는 ‘이’반 이었는데 ‘이’반의 포인트인 블루코사지를 왼쪽가슴에 달고 ‘이’반 테이블을 찾아갔다.

50년만에 처음 만나는 친구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하는 흥분과 걱정 속에 블루코사지를 달고있는 동기들이 걸고있는 명찰



이름과 얼굴을 번갈아 보는데 어젯밤 한 친구가 카톡으로 보내준 ‘이’반 흑백 졸업사진을 열심히 공부한 탓에 이름은 기억하겠는데, 웬걸, 50년이 지난 세월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머리가 빙글빙글 거리면서 생각이 하얗게 되었다. “어머머.. 니가 기숙이라고? 너무 변해서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냥 지나치겠

다.” 상대방 친구들도 비슷한 현상인지 서로가 반세기의 시간 흐름을 확인하느라 고조, 흥분, 즐거움과 행복의 웃음들이 행사 내내 끝날 줄을 몰랐다.

우리 ‘이’반이 이날 행사에서 최다 참석(19명)상을 받았고 빨간 카우보이 모자로 한층 멋을 부린 내가 속해 있는 엘에이74 동창들의 옛지있는 ‘상하이트위스트’ 라인댄싱 공연은 최고의 박수를 받았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왜 그리 빨리 가는건지, 어느새 이 첫날의 행사가 끝날 무렵 다음 재상봉행사 일정인 ‘증도2박3일여행’에서 만나자고 서로 손가락을 걸면서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친구들의 모습에서 나는 타임머신을 타고 1974년에 가 있었다.

5월26일 증도여행의 첫날, 어제 오후늦게 마셨던 커피 탓인지, 아님, 반세기 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나들이 생각으로 나는 밤잠을 설쳤고 새벽에 일어나 보니 창문 밖엔 여름을 재촉하는 늦바람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증도는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서해안쪽으로 3개의 다리로 연결한 4번째 섬으로 “slow city” ”tidal flat(갯벌)city” 란 별명이 붙은 섬으로 한국에서 두번째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신안군 갯벌’ 중 한 섬이다. ‘신안갯벌’은 펄, 모래, 혼합, 암반갯벌 등 4가지 종류의 갯벌이 함께 형성된 세계에서 유일한 갯벌이라고 한다.

도착했다. 서해안에 위치한 한국의 이상향 전통정원이라 불리는 ‘상화원’에는 여기저기 흐트러져있는 보라색, 노랑색 iris들이 바닷바람에 춤을 추고, 뻑뻑이 들어선 오랜 시간 각각으로 멋을 부린 소나무들이 장관을 이루었다. 길게 바닷가를 끼고 나무로 만든 산책길 막바지 쉼터에서 공짜로 주는 동글레차, 커피, 그리고 ‘웬!떡?’은..한국의 정이 바로 이런 것인걸, 다시금 느끼게 했다. 우리 74친구들은 그룹그룹으로 인증샷을 남기느라 하하호호, 재잘재잘, 갈래머리 소녀들이 되어 서해안 해풍을 만끽했다. 나도 이 순간을 놓칠세라 여기저기 친구들과 사이에 끼어 사진을 찍었다. “지금 이 제일 젊은 날이니까……”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증도 끝자락, 우리의 숙소인 ‘El Dorado’



우리 74동창 60여명은 서울 양재역에서 빨간색, 노란색, 두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증도로 출발했다. 내가 탄 빨간버스에 몇 남익은 엘에이동창들이 있었고 24일 엘타워에서 50년만에 만나 알게된 친구들도 눈에 들어왔다.

버스 창밖으로 실새없이 지나가는 동글동글한 산풍경은 오락가락하는 비 때문인지 찼초록을 띄었고, 혹시나, 아침식사를 못한 동창들을 위해 임원진들이 준비해준 따끈따끈 백설기떡을 씹으면서 여고시절 추억거리를 지침 없이 조잘거렸다.

어느덧, 우리를 태운 버스는 충청남도 보령시 죽도 ‘상화원’에

레조트에 도착했다. 삼삼오오, 정해진 방으로 들어갔고 내가 머무는 방엔, 5명 모두 ‘이’반 친구들 이었고, 어느새 방반장인 친구가 쪼로록 달려가 옆 빌딩 매점에서 사온 시원한 맥주 한잔으로 우리는 내일 일정을 상상하며 밤이 깊도록 추억을 쌓았다.

다음날 새벽, 포기하기 어려운 나의 헤이즐넛 커피향을 발코니에서 즐기는데, 우리방 한 친구는 리빙룸 통유리로 보이는 서해안 잔잔한 바닷가를 스케치 하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은 리조트 앞 바다를 걸으면서 우리에게 어서 내려오라고 손짓을 했고 아직은 약간 차가운 새벽 바닷바람을 길게 호흡하면서, 맨발에서 느끼는 간질간질 바닷물을 쳐가면서, 우리는 마냥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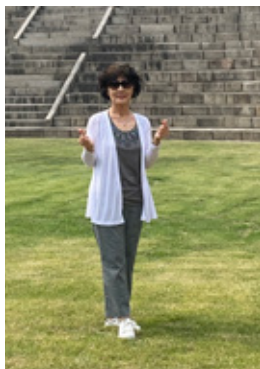
다른 방 친구들도 질세라 앞에서 뒤에서 걸었다.

‘slow city’란 별명에 걸맞게 우리는 천천히 증도여행을 했다. 갯벌에 핀 염생식물 중 하나인 함초, 꼬물꼬물 갯벌과 같은 색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짙동어, 칠게 등도 보고 ‘문준경 전도사’ 기념관도 들렸다. 증도에 담배가게가 없고 주민의 99%가 기독교신자인 이유가 이 (고)문준경 전도사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갯벌 박물관’에서의 관장님의 강의는 약간은 지루했는지 여기저기 졸음을 참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정말 새로운 갯벌 간접체험과 정보였다.

2박3일 증도여행 가운데 단연코 최고의 최고는 하루3식, 상다리 부러지는 전라도 맛갈스런 음식들이었고, 참 맛있었다.

5월30일 오전 10시,나는 이화여고 내 유관순기념관에서 있는 ‘이화창립 138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이화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를 기리어 10여 년간의 공사 끝에 1974년에 완공한 유관순기념관을 처음으로 보았고, 기념식장 안에는 이 행사를 위해 참가한 70,60,50,40,30주년 재상봉동창들이 앞자석에, 재학생들은 뒷자석에 앉아 있었고 단상엔 김혜정 교장, 정창용 이사장 및 많은 내,외빈들로 꽉 들어찬 유관순기념관에 자리한 나도 멋진 자랑스런 ‘이화인’의 한사람으로



서 가슴 뭉클함으로 심장이 쿵광거렸다. 50년만에 불러보는 이화교가를 끝으로 화려한 창립 기념식을 뒤로하고 ‘화암 신봉조

관(본관) 7층 학생식당에서 학교에서 베푸는 점심식사를 대접 받으러 갔다. 손녀뻘되는 후배 재학생들이 54,64,74,84,94년 졸업 동창들 한분한분께 부지런히 점심트레이를 날라 주었는데. 푸릇푸릇 생동감 넘치는 후배 재학생들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반세기 만에 보는 이화교정은 나만큼 늙어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사랑, 평화’ 인 학교 교훈과 배지는 바뀌지 않았고, 노천극장과 등나무는 무성함과 푸르름으로 훨씬 컸지만 옛 모습이 많이 있었고 스크랜튼홀에서 공부했던, 노천극

장에서 봤던 예배와 합창대회 등, 친구들과의 많은 추억들이 그대로 떠올랐다.

1915년 이화학당에 목조 건물로 세워진 심슨홀은 2011년 교내에 흩어져있던 빨간 벽돌과 화강석으로 원형복원후 지금은 ‘이화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스크랜튼홀은 이화외교로 되었고,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과 기숙사가 새로 들어오는 등, 이화교정의 모습은 해마다 발전되어 138년전 스크랜튼 여사에 의해 세워진 이화학당이 지금은 이화여고, 이화외고, 이화예고 또 이화여대까지 영역이 넓어졌다고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 갤러리에서 개막한 74졸업 50주년기념전을 구경하고 여고3년동안 드나들던 옛 이화교문이었던 ‘사주문’을 나와 정동길 돌담길을 따라 버스정류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6월3일, 해외에서 온 재상봉동창들을 위해 5월의 재상봉 행사 마지막인 강원도 ‘철원’ 방문이 있었다. 40여명의 60주년 동창들과 5명의 50주년 친구들이 이화외고 운동장에서 김혜정 교장의 마중 인사를 뒤로 우리 버스는 철원으로 향했다. 문화, 지질 예술인 자격증을 소유한 해설사로부터 방문지 마다 해박한 지식의 설명을 들으면서 DMG 두루미평화타운, 제2땅굴, 철원 강의영 기념농장 방문을 거쳐 평화전망대, 월정리역, 노동당사, 그리고 한탄강 은하수교를 방문했는데 철원여행 내내 우리 74친구 5명은 함께 다니고, 함께 점심 먹고, 함께 사진도 찍으면서 마지막 여행의 아쉬움을 깊이깊이 새겼다.

늙어버린 내 얼굴을 보고 왜이리 이뻐졌냐고 했던 미숙이와 용봉이, 멀리 미국서 온 나에게 이것저것 먹어보라고 내 앞접시에 연상 음식을 주던 행복이와 경원이, 증도 리조트에서 나를 위해 침대를 양보한 혜정이와 커피등 방반장의 역할을 훌륭히 해낸 선용이, 2년전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던 시카고에서 온 영희, 대학교 3학년때 헤어지고 못만난 증도에서 만나겠다고 일부러 여행을 온 영숙이, 한 식당에서 운동화를 바꿔신고 나를 잠깐 당황시킨 주희, 내가 추어탕을 못먹는 사실을 기억하고 북어국으로 오더해준 LA영희, 그리고 철원 여행때 뽕뽕 뭉쳐 같이 다녔던 정우, 정미, 귀민이와 화인이, 증도여행 내내 나의 버스짝꿍이 되준 중현이, 상하이트위스트 라인댄싱팀이었던 선희, 영자와 난희, 내가 코다리찜을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쁜 시간을 내어 코다리찜 점심을 사준 일수, 등등, ‘50년만의 외출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물같은 선물임에 틀림없었다. “동기사랑 나라사랑!”



윤수경(61)

유튜브 그 엄청난 세계

주어진 제목 [유튜브]에 관한 글쓰기는 그 범위가 자못 방대하다. 그래서 그 주제를 잡기는 글 쓰는 사람의 몫이다. 또한 크리스천이 글을 쓴다는 것은 역시 신앙의 눈이라는 관점을 지닌다. 만약 누구나 믿음의 눈을 부릅뜨고 보면 온 세상은 문제투성이 이고 글을 써야 할 거리가 무수하다.

모바일 인덱스 Mobileindex.com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간의 한국의 유튜브 사용자는 4,57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88%에 달한다. 스마트폰이 없는 7세이하 아이들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유튜브를 보는 셈이다. 일인당 월 평균 사용 시간도 43시간으로 미국 24시간보다 두배 가까이 앞섰다.

유튜브(YouTube)는 2005년 서비스를 시작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다.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 브루노(San Bruno)에 위치해 있다.

2005년 스티브 첸(Steve Chen), 채드 헐리(Chad Hurley), 자베드 카림((Jawed Karim) 세 명의 공동 창업자가 회사를 창업하였고, 2008년 12월 18일, Google이 인수해 서비스를 제공 중인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이다. 월간 사용자가 38억 명에 달한다.

유튜브는 단순히 동영상을 시청하는 곳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공유하고 창작할 수 있는 창구다.

첫째로, 유튜브는 우리에게 자유로운 표현의 장을 제공한다. 누구나 자신의 관심사나 재능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다.

둘째로, 유튜브는 우리에게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풍부한 자료의 보고이다. 유튜브는 수많은 온라인 강의, 튜토리얼, 뉴스,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동영상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관심있는 분야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유튜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디오 플랫폼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학습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셋째로, 유튜브는 우리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유명인들의 브이로그, 웃긴 동영상, 영화 리뷰, 게임 플레이 영상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유튜브는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웃음을 선사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또한, 다양한 음악과 라이브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특히 큰 즐거움을 주고 있다.

넷째로, 유튜브는 또한 우리에게 창작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많은 유튜버들이 자신의 채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유튜브의 이런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유튜브는 당연히 선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진솔한 신앙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전도와 교육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교회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영상은 변화를 거둬해 가는 온라인 공론 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 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정보, 복음과 교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세상을 향한 증인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유튜브의 이런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유튜브는 당연히 선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진솔한 신앙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전도와 교육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교회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영상은 변화를 거둬해 가는 온라인 공론 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 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정보, 복음과 교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세상을 향한 증인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유튜브의 공론 장에 '알고리즘'으로 정의되는 문법 속으로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으면 선교적 메시지가 아무리 중요해도 온라인상에서는 고립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소통의 주제가 목회자, 선교사 위주가 아니라 일상에서 각 분야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실제적으로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서 (influencer)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 (팔로어)를 보유한 [SNS 유명인]을 의미한다. Influencer의 영향력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인터넷 공간을 뛰어 넘어 기업과 방송가에도 진출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크리스천 Influencer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와 반대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콘텐츠는 가득하다. [전도]를 물리친 사례를 소개하는 Influencer가

선교적인 접근에서는 단순하게 설교를 하기 보다는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검색했을 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복음에 대한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해야 한다. 일상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기독교인지 모르고 봤는데 기독교적인 부분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

있을 정도니 문제가 심각하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크리스천 Influencer가 절대 필요하다. 교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크리스천 Influencer]를 선교사처럼 양성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의 다음 세대 크리스천에게 이 점을 또한 강조하고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필요한 일꾼이 [크리스천 인플루언서]이다. 인플루언



남가주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23호 거울지 발행을 축하합니다



DIAMOND GLOBAL ESCROW, INC.

Audra Hong
홍훈정 (70)
Director

22632 Golden Springs Dr. Ste. 160
Diamond Bar, CA 91765

Cell: (818) 402-2005
Tel: (909) 860-3333
Fax: (909) 860-3330
Email: audra.hong@diamondge.com



송혜성(67)

파리 올림픽 이야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4 파리 올림픽이 삼주간에 걸친 모든 경기와 행사를 끝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우중충하게 비 내리는 날씨 속에서 엽기적인 개막식으로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 특히 기독교를 조롱하는 장면이 많이 연출되었다. Olympic의 숭고한 정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떤 계략이 숨어 있는 듯이 느껴졌다. 성평등을 강조했다고는 하지만 그 초점이 매우 빗나간 듯한 인상을 받았다. 다음번에 치뤄지는 로스엔젤레스에서의 올림픽은 개막식과 폐막식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인적으로 아니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Celine Dion의 무대는 매우 감동적이었다.

전세계 206 개국에서 참가선수 10,714명이 참가 하였다. (러시아는 전범 국가로 이번 대회에서는 참가 자격을 박탈 당하였다.) 32개 종목에 세부 종목으로는 329개로 나뉜다.

올림픽 정신이란 "스포츠를 통해서 심

PARIS 2024



신을 향상시키고 문화와 국적 등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며 우정, 연대감,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한다.

올림픽은 2년마다 하계 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이 번갈아 가며 열리고,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가 감독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올림픽은 기원전 8세기부터 서기 5세기에 이르기까지 고대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열렸던 올림피아 제전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이 고대 올림피아 제전에서 영감을 얻어서 근대 올림픽을 부활시켰다. 이를 위해 쿠베르탱 남작은 1894년에 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를 창설했으며, 2년 뒤인 1896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 1회 올림픽이 열렸다. 이때부터 IOC는 올림픽 운동의 감독 기구가 되었으며 조직과 활동은 올림픽





현장을 따른다.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올림픽 메달은 매우 큰 영예이며, 특히 올림픽 대회에서의 금메달리스트는 국가 영웅급의 대우를 받으며 스포츠 스타가 된다. 국가별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도 매우 크다. 대부분의 종목들은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는 종목들이며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 종목들이다. 또한 올림픽이라는 하나의 대회에서 동시에 열리고, 대부분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출신 선수들이 참여하는 만큼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이벤트이다.

참고로 오륜기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5개의 고리는 유럽(파랑), 아프리카(검정), 아시아(노랑), 오세아니아(초록), 아메리카(빨강)등 5개 대륙을 가리킨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IOC는 1951년 총회에서 "쿠베르탱이 의도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고리와 대륙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한 설명을 공식적으로 삭제하였다. 따라서 이 같은 설명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 현재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서는 오륜의 의미에 대해 "올림픽을 국제적 대회이자 모든 국가를 환영하는 대회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만 밝히고 있다.



하게 올림픽 이외에도 얼음과 눈을 이용한 경기 종목을 다루는 동계 올림픽 (Winter Olympic), 장애인에 참여하는 패럴림픽 (Paralympic), 스페셜 올림픽 (Special Olympic), 데플림픽 (Deaflympic: 청각장애인을 위한 올림픽), 10대 선수들이 참여하는 유스 올림픽 (Youth

Olympic)등 다양한 올림픽 종류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IOC는 20세기의 변화하는 경제, 정치, 기술 환경에도 적응해야 했다. 그리하여 올림픽은 피에르 드 쿠베르탱이 기대했던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에서 벗어나서, 프로 선수도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전 세계 언론에서는 각각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경기를 중계하기 때문에 이름 없는 선수가 개인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와 더불어 올림픽 경기는 개최지와 개최국에게도 전 세계에 그 이름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 좋은 예로 대한민국의 88 올림픽을 들 수 있겠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계기로 급부상하며 나라의 위상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다방면으로 한류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



은 주체국에서 제공되는 빈약한 식단과 열악한 선수촌에 대한 불만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수촌 근처에서 열리고 있는 K-food 상점은 장사진을 이루었다. 다른 나라의 많은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의 도시락을 먹고 싶어 했다고 전해진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한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수준 높은 나라가 되었다.

메달(medal) 집계를 보더라도 2024 파리 올림픽은 88 대한민국 올림픽의 4위 성적, 2012 런던 올림픽의 5위 다음으로 종합 성적 8위라는 좋은 성적을 내었다. 메달 숫자도 금메달 13개로 예상을 뒤엎고 가장 많이 획득했던 올림픽과 동률을 이루었다. 특히 심대 선수들의 활약이 뛰어나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한껏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미국은 전체 종합순위 일 위를 기록 했다. 비록 많은 국내의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력이 있음이 분명하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미국과 한국선수들을 동시에 열렬히 응원 하였고, 4년 후에는 LA 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만큼 우리는 가까이에서 어쩌면 직접 관람 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 만땅이다.

이화여고 장학생 감사편지



남거주(LA)동창회 선배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남거주(LA)동창회 선배님들의 장학금을 받게 된 2학년 애반 최우현입니다. 장학선으로 선발되어 매우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성세대와 관련된 연구원을 꿈꾸는 학생입니다. 이화여대에서 좋은 선생님과 선배님들을 만나 꿈을 키워나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들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의 현실이 언제든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도 잘 활용하여 더 열심히, 꾸준히, 성실히 노력하고 나 자신을 길러 가는, 그런 이화인이 되고 싶습니다. 맛있는 사회인이 되어, 선배님들께서 내뿜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많은 사람들, 특히 같은 가치관을 가진 친구와 이화인들끼리 함께 다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사내의 은혜와 축복이 선배님들과 언제나 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수현 올림



남거주(LA)동창회 선배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남거주 동창회 선배님들의 장학금을 받게 된 1학년 의반 조경우입니다. 우선 저게 장학금을 지원해주신 남거주 동창회 선배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저는 이화여자공과대학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생명과학과 의료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 할 제 길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저를 막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제 소망을 이루기 위해, 제 꿈을 위해 이 소망을 잊지 않고 평생을 이 길을 나아가며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저를 격려해주고 도와준만큼, 훗날 저도 단순히 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여 간접적으로 남을 돕는 것을 넘어 현실의 벽에 부딪혀 헤쳐나갈 일을 직접 돕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 어사님들과 기사님들을 만나 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길을 가도록 장학금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선배님들과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조경우 올림

이화 장학 재단 귀중,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Azusa Pacific University에서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는 정지석입니다.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장학금은 저에게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제 학업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학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를 통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지원은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재단의 결정 덕분에 저는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더욱 열심히 학업에 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넓은 학기를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고, 미국 내 한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고국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재단의 지원에 힘입어 저는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믿고 지원해주신 이화 장학 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석 올림

이화여고 장학생 감사편지

Dear Ewha High school Alumnae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I am writing this letter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for being chosen as one of the recipients of the 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Scholarship. I am honored to be recognized for this prestigious award and I am immensely grateful for the financial relief. My name is Bridget Kim and my home town is Annandale, VA. This fall I will be a senior Computer Science BA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Virginia. After graduation, I'd like to pursue a career in hospital databases.

Ewha Girls High School is a very prestigious school that is filled with talented individuals with many accolades. Beyond the financial aspect of the scholarship, I am humbled to have been recognized as an excellent student, especially when there were so many other talented individuals. This scholarship will be put to good use in paying for my college tuition and living expenses. I am truly grateful as this will allow me to focus fully on my studies with ease of mind.

Sincerely,
Bridget Kim

Dear 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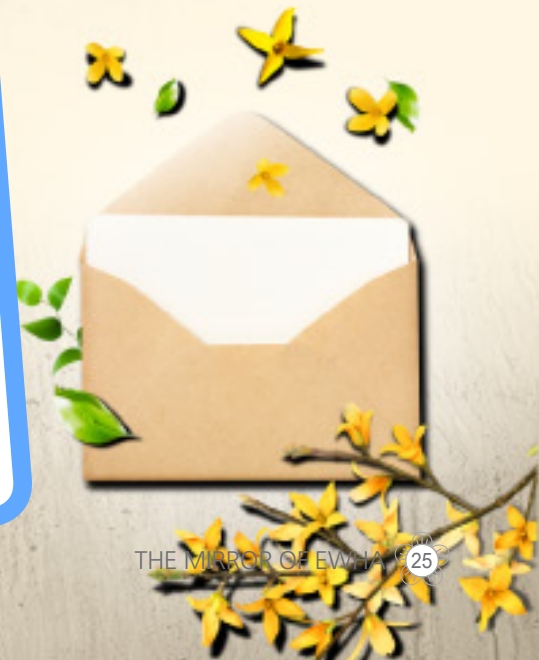
Thank you for your time and generous support used to send a scholarship to support my education and help me with my career path. I will put this \$1,000 scholarship to good use like paying my tuition and books. Your support to my education will allow me to focus more on my studies and school life rather than working for more money. I was very happy when I received the scholarship in the mail that I practically jumped from joy.

I am a mechanical engineering major and I plan on pursuing a career in the aerospace industry. Since this major requires a lot of math, I would need to study a lot more because I am not confident in my math skills. Thankfully with this scholarship, I will have more time to focus on improving. Your contribution has helped me reach one step closer to my goal. Thank you again for your generous support.

Sincerely,
Daniel Lee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the Ewha Alumnae Association of SoCal for their generous scholarship. This support is invaluable to me as I pursue my masters degree in data science, biostatistics, and epidemiology. I hope to use this opportunity to further my education in public health and give back to my community.

Warm regards,
Morgan Pak





오소숙(73)

선교지에서

몽골 땅끝의 선교지 소식을 전하게 된 이화 73기 오소숙 동창입니다.

매일 이 땅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간증을 동창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어서 저는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선 지난 겨울 섭씨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몽골 정부 통계로는 이번 겨울에 흑한으로 가축 230만 마리가 동사했다는 뉴스를 전해 들었습니다. 추운 동토의 땅에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고 지금은 몽골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은퇴후 적지 않은 나이에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미국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2020년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떨치던 때에 이 곳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단지 우리를 보내신 그분만 붙잡고 열어 보여 주시는 것들만 묵묵히 따라가고 있는데 벌써 3번의 겨울을 지냈네요. 아직도 무궁무진한 그분의 뜻을, 하나씩 선물 보자기를 펼치듯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울란바타르 도심에서 좀 떨어진 시골교회 하나를 섬기며 한글도 가르치고 단기 팀들이 오면 여름 성경학교도 열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남편은 매주 두번 저희 교회 안의 청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저는 24시간 유치원에서 주중 5일을 부모를 떨어져 지내는 아이들을 일주일에 두번씩 찾아가서 놀아주고 심리상담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늙다리 할머니를 기다리는 꼬마들 때문에 유치원 갈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 오르는지요.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시골교회들을 방문하고 같이 예배와 기도제목을 나누고 돌아옵니다. 지난달에도 우드릭이라는 시골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버스도 안다니고 말타고 다니는 산속에 있는 마을의 어린이들에게 늦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해주기 위해서였는데요. 미국서 보낸 사마리탄 슈박스를 아이들이 풀어보면서 얼마나 좋아 하던지... 전해주는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께선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가지 모양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미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을 늘 체험하게 하십니다.





1990년에 굳게 닫혔던 문을 연 몽골은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다가 선교사들이 들어 오면서 교회도 세워지고 기독교인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구소련의 자치국 중 하나였던 몽골은 아직도 사회주의적인 잔재가 많이 남아있고 갑자기 들이닥친 물질문

명으로 인해 과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땅덩이는 남한의 16배인데 인구는 380만 밖에 안되는 개발도상국이며 한때는 세계를 제패했던 징기스칸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우랄 알타이 민족으로 몽골 반점을 가지고 있는 종족이며 한국을 '무지개의 나라'라고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유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이 물질만능 사고방식에 물들기 전에 주님을 알고 만나서 온전히 주의 나라로 먼저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유목민의 후예답게 언제든 떠날 채비가 되어 있어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시려는지 기대가 됩니다.



몽골땅을 위해 손모아 주십시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그리고 저와 남편이 매일 기쁘게 이 땅가운데 살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신서영(66)

Art Open House

이화여고 56기 졸업생이신 맹혜숙 선배님!

선배님은 우리 이화 코랄의 대 선배님입니다. 시카고에서 이곳 남가주로 이사 오신 후 이화 코랄에 합류하셨고 그때부터 이제까지 그 분만의 특유하신 명랑함과 건실함, 그리고 건강함으로 후배들에게 크게 귀감이 되시는 선배님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이화 코랄의 메조 소프라노 파트에서 중추역할을 하셨던 선배님입니다.

오늘은 나에게도 이름도 독특하신 맹 선배님의 유일하고도 특이한 개인 “Art Open House”에 초대되어서 가는 날이다. 현주 후배의 안전한 운전으로 엘에이에서 남쪽으로 차로 한 시간 남짓 걸리는 Laguna Woods Senior Town 으로 달려갔다.

맹 선배님과 세 분 따님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집에 들어섰다. “와우! ...” 감탄이 저절로 새어 나왔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왼쪽 전면을 장식한 벽면 그림이 나를 압도했다. 선배님께서 몇년전 코비드 기간 동안에 그림을 그리신거라고 하는데 거의 프로 수준이시다. 집안에는 그동안 그리셨던 유화와 도자기 작품등 수십 점들이 일련 번호를 갖춘 채 잘 정리 정돈되어 진열되어 있었다. 우리들은 선배님의 작품들을 감상한 후 각자 가지고 싶은 희망 작품들 번호를 준비해 놓은 종이에 적어 놓았다.

내 나이도 벌써 내일모레면 요사이 유행하는 말로 팔학년으로 접어든다. 요즘은 자주 안입는 옷들만이 아니라 오래 썼던 물건들도 조금씩 치우고 있다. 그래도 버리기 아까워서 다시 주워 담는 일들도 있지만 이제는 하나씩 정리하고 사는게 순리가 아닌가 싶다.

이번 맹혜숙 선배님의 개인 “Art Open House” 에 다녀와서 아주 많은걸 느꼈다. 우리가 언제 이 지구상에서의 생을 마감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나와 같이 생활했던 소장품들을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누어줄 수 있음도 큰 사랑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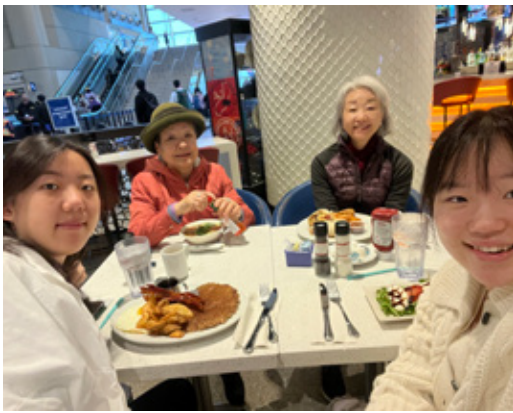
LA 체험 모교 장학생



김광숙(68)

LA 체험 모교 장학생을 남가주 동창회에서 초청한 것은 올해가 두 번째다. 강남에 사는 부유한 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하여 견문을 넓히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는데 한국에서 모범생이지만 해외에 못나간 우리 모교 학생들을 선정하여 이화 남가주 동창회에서 후배들의 꿈을 키워 주자는 목적으로 정애수(73) 동문이 동창회장으로 있을때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팬데믹으로 잠시 중단이 되었다가 올해 다시 학생 두명을 초청하게 되었다.

첫째 날: 모국의 재학생 이예림(고1)과 조성주(고1), 두 후배가 모교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태평양을 건너 미국 LA에 오게 되었다. 손녀뻘의 후배들을 혈육의 정으로 품어 주시는 모정으로 밖에 설명할수 없을 것이라... 숙소인 박영신(64) 동문 덕에서 짐을 풀었다. 김정자(64) 동문과 장현주(75) 회장의 환대에 감사드린다.



셋째 날: 이화의 걷기반과 함께 하이킹으로 이른 아침을 연 예림이와 성주는 Valley of the Van Nuys 고교를 방문하여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환대를 받았다. AP Chemistry 반의 수업 시간을 참관하고 AP Biology 반에서는 수업을 15분만 진행하고 남은 시간을 예림이와 성주가 리드하며 질문과 답변을 통역도 없이 진행하여 한국의 학교, 교실, 음악, 음식, 문화 등등을 미국 학생처럼 거침 없이 소화하여 이화여고의 위상을 높



였으며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강당으로 가서 두 학생을 소개한 후 미국 고교 Dance 발표회도 감상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김희성(62) 동문과 65동기들의 대접을 받았다.



넷째 날: 전서경(65) 동문의 딸 수민씨의 안내로 "Riot Game Co"를 방문하여 한국의 위상이 우뚝 서 있음을

둘째 날: 학생들이 보고 싶어 했던 "Universal Studio"를 이영희(74) 동문의 배려로 구경하고 전안복(74) 동문의 저녁 식사 대접을 받으며 선후배의 정을 나누었다.

실감하고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다. 권선희(75) 부회장과 함께 "Griffith Observatory"를 견학했고 예림이와 성주가 맘껏 shopping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저녁에는 68동기들의 대접을 받고 한국 타운도 여러 곳 둘러보았다.

다섯째 날: 정애수(73) 동문의 안내로 사학의 명문 USC를 견

| 아름다운 이화인 |

학하였고 단과 대학들의 소개와 유명한 Doheny Library 등을 방문하며 미국 대학으로의 유학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다. 이수인(68) 동문의 수고로 LA의 명소인 Hollywood 거리와 인근의 유명한 곳들을 구경하고 한영숙(56) 동문의 저녁 식사 대접을 받고 헤어졌다.

의 야경을 바라보며 앞날의 복된 날들을 위해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일곱째 날: 아침 일찍 호진희(64) 동문, 정애수(73) 동문의 보호와 안내를 받으며 LAX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LA를 뒤로 하며 떠나는 후배들에게 따뜻한 이화의 사랑을 듬뿍 안겨주고 예림이와 성주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떠났다.

여섯째 날: 이른 아침에 김영희(66) 동문의 안내로 파사데나



에 위치한 Dream Church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의 이화 선후배님들과 점심을 먹으며 즐겁게 담소를 나누었다. 그 후에 이혜옥(66) 동문, 서동현(66) 동문이 기다리는 Walt Disney Concert Hall로 가서 LA Philharmonic의 연주를 감상하며 선물도 사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남가주 동창회에서 준비한 "Farewell Dinner"를 여러 동문들과 함께 하며 마지막 밤은 호진희(64) 동문, 정애수(73) 동문과 함께 천문대에 올라가서 LA

**이번 제 2차 "모교 장학생 LA 방문"을 담당하여 봉사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선후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Reverse Culture Shock!



권선희(75)

2024년 Paris 에서 열린 33 회 올림픽에 최소 인원의 선수단으로 참가했던 한국은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종합 8 위를 차지하며 대회를 마쳤다.

이곳 미국에서 보낸 시간이 태어나서 한국에서 지낸 시간보다 몇 배를 훌쩍 넘겼을 우리 이민자들이어도 ‘대한민국’ 소식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는 것은 비록 몸은 한국을 떠나 살고 있지만 늘 한국에 관심을 갖고 살고있는 그리움과 애국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우리 한국의 위상이 정말 많이 높아진 것을 실감하였고 또 우리 젊은이들의 경기와 수상 소감을 보고 들으며 그 선수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그들의 당당함에서 뿜어나오는 자신감을 보며 그들을 잘 키워낸 모국에 자부심을 느끼며 이게 바로 K-Culture 이라고 생각했다.

Culture (문화) 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소개할 내용은 작년에 어떤 세미나에서 들은 세대간의 차이점에 대한 것인데 현재 지구상에 생존하는 인간들을 나이별로 나누어 그들이 자라날 때 겪은 크고 작은 경험, 사회 환경 등으로 인하여 형성된 그들의 성격, 성향들을 연구하여 만든 자료이며 세대간의 특성이 아주 잘 표현된 자료이기에 소개한다.

Traditionalist Generation (1900 - 1945)



TRADITIONALISTS

- 1. Great depression, Pearl Harbor, World War II
- 2. Formality and Rules
- 3. Strong work value and Ethic
- 4. Respect for Authority / Hierarchy
- 5. Company Loyalty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는 세대이며 주로 우리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들의 나이대이

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법을 준수하며 회사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존경을 받는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 가부장적인 세대이다.

Baby Boomers Generation (1946 - 1964)



BOOMERS

- 1. Tension between US & Soviet, African American Civil right movement
- 2. Financial and Job security, Live to work
- 3. Resistant to change
- 4. More working hour equals better performance, Goal-centric
- 5. Also have strong work Ethic

75 기인 내가 속해있는 세대이다. 부모와 자녀들이 위 아래로 손길이 닿을 수 있는 세대라서 낯세대라고 일컫기도한다. 거의 부모 세대와 같은 가족관을 가지고 있어서 안전한 직장, 화목한 가정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교육열이 높아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았던 세대라고 할수 있겠다. 학교 졸업 후 가장 결혼을 빠른 세대이기도 하다. 요즘은 대부분의 대기업, 회사에서 CEO 아니면 Top Management 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Baby Boomer 세대 이다.

Generation X (1965 - 1978)



GEN X

- 1. Energy Crises, Rodney King Beating
- 2. Very Independent, Competitive and Resourceful,
- 3. Good at maintaining Work-Life Balance and Wellness
- 4. Have Liberal Views on Social Issues
- 5. Disloyal, Bit lazy, Free agents vs. Company Loyalist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 회사에 가장 많은 직원들이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다. 난 그들이 젊다고 생각하

지만 만만치 않게 치고 올라오는 그 아래 세대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나 할까! 어떤 세대보다도 직장과 가정생활을 균형있게 잘하며 본인의 goal 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세대라고 할 수있다. 그러나 윗세대보다는 템포가 조금 느리고 많이 개방된 생각을 하고 살며 그래서인지 가장 많은 single parent 가 생긴 세대이기도 하다.

Millennials / Generation Y (1979 - 1993)



Millennials

1. 911 Terrorist attacks, School shooting, Social Media, Internet
2. Technology Savvy- Laptop computer, Smartphone
3. Social Media, Low marriage ratio
4. Challenges hierarchy, Good at collaboration
5. Disloyal, Bit lazy and like teamwork

이 세대들이 자라날 때부터 Social Media 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대이며 컴퓨터와 Cell Phone 이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일하는 시간대와 공간의 자유로움이 우선 조건 내지는 필수 조건으로 부상되며 그들의 옷차림조차 편해지기 시작한다. 모든 면에서 빠른 세대이지만 정확한 것을 좋아하며 Mix Race Marriage 가 많고 무료함을 가장 싫어하지만 혼자서도 너무 잘 지내는 그들이다.

Generation Z (1994 - 2009)



GEN

1. Economic downturn, Cloud computing
2. Tech Dependent - Avid gamers
3. Love to Travel
4. Money-driven and Ambitious
5. Tech-driven face to face communication

자! 이 세대 부터는 컴퓨터와 셀폰이 없으면 거의 손발이 묶인 것 같이 어쩔 줄 모르는 혼동 속에 빠지는 세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장점은 모든 일들을 빨리 배운다는데 있다. 또한 이들의 성장 과정에 길었던 경제 침체 기간의 영향 때문인지 다수의 의견에 동요가 쉽게 되지만 대면은 꺼리며 다른 사람보다 앞으로 나서는것을 좋아하지 않는 세대이다. 오히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발견해 주길 원하는 Servant leadership 의 시작을 하게 만든 세대라 할 수있다. 또 현실과 Virtual 세계를 넘나

들며 생활을 할수 있는 세대이다.

Generation A (Alpa) (2010 - ???)

우리 75기를 기준으로 하여 손녀, 손자 또래의 세대이다. 이들은 COVID-19 때문에 대인관계가 능숙하지는 않지만 특징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생각하며 결혼을 할 때도 인종, 국적등도 별로 따지지 않는 세대라 할수있다. 자신감과 독립성이 강한 세대임에는 틀림 없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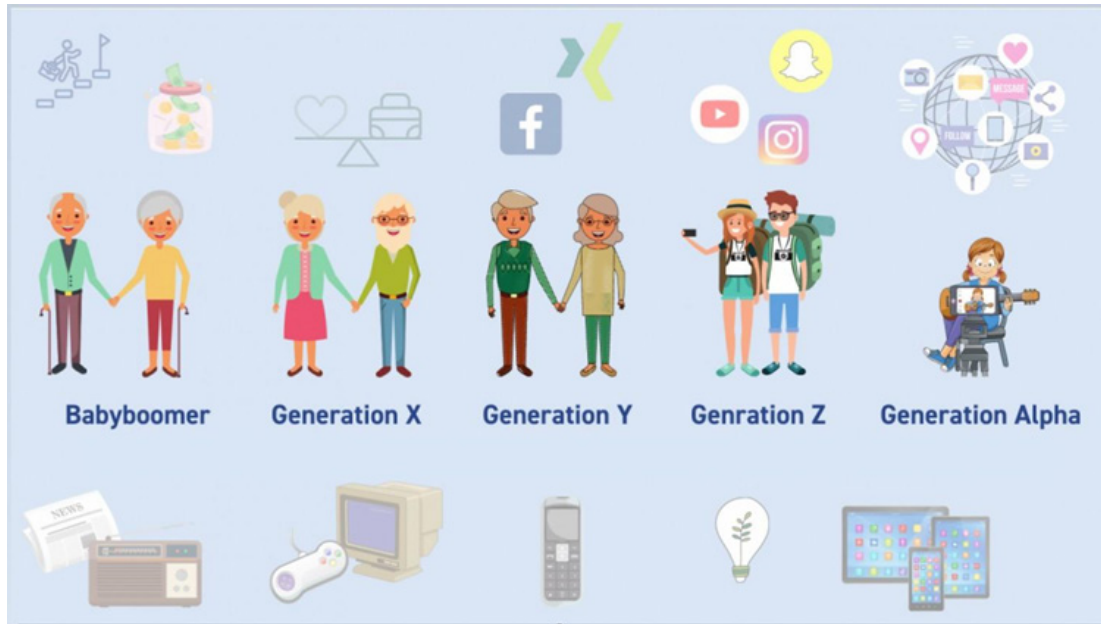
한국에서는 Millennial / Generation Y 세대 부터 Generation A (Alpa) 세대 까지를 통털어 MZ 세대라고 부른다고한다.

그리고 그들 인구수는 한국전체의 35%를 육박한다고 한다. 그러니 한국은 이미 이 MZ 세대의 가치관, 성격을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사회생활을 했어야 하기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문화적으로 훨씬 앞서가고 있는 것 같다. 전세계를 흔들고있는 다양한 분야의 K-Culture 이 바로 그 답인 것 같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들이 한국에 나가서 오히려 Culture Shock 을 받는다고 한다. 우리같은 이민자들은 한국을 떠나서 바로 외국의 culture 에 동화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했기 때문에 한국의 정서는 미국땅을 밟은 그때 그 시간에 멈추어진 것 같다. 무엇보다 언어의 장벽이 있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 언어 보다는 그 나라의 언어에 더 익숙해지고 있는 자식들과의 소통이 여의치가 않게 되고 마음 편한 대화를 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들 세대를 이해하는 것 부터 한국의 부모들보다 많이 뒤진 이유라 할수있겠다. 이민자들 마음속의 한국은 아직도 이민을 떠났던 그시간에 머물고 있는데,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는 한국에 나갈때 마다 나날이 변해가는 한국의 문화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나도 그랬으니까.

이것이 Reverse Culture Shock 아닐까?

이번 올림픽에서 수상 소감을 말하는 한국선수들의 자신있고 활기차며 유머섞인 말투, 또 너무 자연스럽게 기쁨을 만끽하는 표정 등이 나를 엄마 미소 짓게 했다. 너무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대로의 말표현과 표정에서 우리 한국의 활기찬 미래를 보며 이곳에서 말년을 보낼것 같은 나 자신에게 무한한 자부심과 원동력이 됨을 느낀다.

이제부터 우리는 국민 전체가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서 남한테 지지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등



바등 노력했던 삶에서 이제부터라도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우리 젊은이들같이 즐기려고 노력하면서 얻어지는 평온함과 자신감으로 더욱 보람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다음 세대를 짊어질 지구상의 젊은이들이 모든 한국의 Culture에 심취되어서 그들이 가장 선망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아닌가?

가족처럼 친절과 성실,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분들께 정성껏 봉사하는

DOWNEY 가주장의사

California Mortuary

강은주(72)

FD-1648

꼭 가격을 비교하여 보세요!

가주장의사는 매장, 화장, 묘지주선, 이장, 장례보험등 장례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합니다.

24시간 대표: 정영욱 목사(Rev. Yung M. Jung)
9830 Lakewood Blvd., Downey, CA 90240
Tel. (562) 622-9393
Fax. (562) 622-4843



이영순(53)

나의 미국 초등학교 학생 체험

나는 반 세기전 어린 딸과 함께 아빠가 공부하고 있는 포트워스 텍사스로 왔다. 오자마자 곧 새 학기가 되어 딸은 초등학교 (B. H. Carroll Elementary) 3 학년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딸은 내가 아침 마다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설 때마다 나의 옷에 매달려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울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말도 통하지 않고 친구도 없는 이곳이 너무 싫다면서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막무가내로 날마다 떼를 부리는 것이었다. 이런 딸을 학교에 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나는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는 마음 뿐이었다.

아노 독주회를 하자고 하시면서 몇월 몇일에 전교생을 강당으로 모이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언젠가 선생님과 대화중에 에스더가 피아노를 친다고 말 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일을 계획하신 것이었다. 나는 너무나 고맙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나는 강당으로 모여오는 학생들을 보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쩐지 에스더는 태연했다. 나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에스더가 피아노 리사이틀을 했을때 입었던

발에 찰랑 찰랑 끌리는 긴 드레스를 입혔다. 그리고 머리에 예쁜 리본도 달아 주었다. 참 내 딸이 귀여워 보였다. 시간이 되자 에스더는 주저함도 없이 강당에 올라가더니 피아노 앞에 섰다. 그리고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그랜드 피아노 의자에 사뿐히 앉았다. 그리고 한국에서 리사이틀 할



때 쳤던 곡을 제법 자신 만만하게 두들겨 대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마자 동시에 우렁찬 박수 갈채 소리를 들으니 내 딸이 너무 대견스러워 보였다. 에스더는 그 넓은 치마를 양손으로 잡으면서 인사를 하고 웃으면서 내려왔다. 이 곡은 한국을 떠나기 직전 리사이틀을 했을때에 2년만에 만날 아빠에게 잘 보이려고 더욱 열심히 연습 하여 많은 칭찬을 받았던 곡이었다. 그러고 보니 이날을 위한 리사이틀 곡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모녀의 상황을 눈치 채신 미세스 쿠퍼 담임 선생님이 나에게 에스더와 함께 교실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뜻밖의 호의에 나는 그날 부터 딸과 함께 등교하여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들어가 딸 옆에 앉아 통역을 해 주면서 딸을 도울 수 있었다. 때때로 선생님이 나에게 “Mrs. Lee! 읽어 보세요.” 라고 하실때면 나는 서슴지 않고 큰 소리로 읽었다. 교실의 분위기는 이런것 때문인지 한층 화기애애해진 것 같았다. 동시에 나는 속수무책으로 마치 미국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된 기분으로 딸과 함께 하게 되었다.

그 후부터 에스더가 학교 운동장에 나가면 에스더를 부르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리곤 했다. 이때부터 에스더의 갈등도 없어졌다. 따라서 나도 딸과 함께 했던 초등학교 교실에서의 생활도 중단 할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마치 내가 미국 초등학교를 졸업 하는 것 같아 한편으로 섭섭한 느낌마저 들었다. 정말 딸 덕분에 경험한 이 사건은 내 생애에 그 누구도 맛 볼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다.

점심 시간에는 교내 식당에서 어린 학생들과 함께 점심도 먹었고 쉬는 시간 마다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둥글게 세워놓고 “산토끼, 토끼야” “나비아, 나비아” 등 한국 노래를 가르치면서 무용을 하며 놀았다. 아이들은 나를 좋아하면서 쉬는 시간을 기다린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쿠퍼 담임 선생님이 느닷없이 에스더의 피

한국 방문 단상



정경실(72)

70세가 되어서야 은퇴를 하게 되어 모처럼 여유 있게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한국에 머물고 있다. 모든 친정 형제, 자매들과 딸 아이가 이곳에서 결혼생활을 하기에 2년에 한 번 정도는 한국을 다녀왔지만, 이번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첫 방문이라 그런지 무어라 딱 집어 떠오르진 않지만 허전하고 형제 자매들의 모임 분위기도 느낌이 다르다.

딸 아이도 한창 학업에 몰두해야 하는 첫째 손주 학원 뒷바라지와, 터울이 많이 지는 영어유치원 다니는, 아직 손이 많이 가는 둘째 손주 보살피느라 시간을 쪼개 가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제 가정의 안주인으로 척척 많은 일들을 해 내는 와중에도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며 아이들에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내가 지내온 시절들이 저절로 overlap 되어 떠오른다.

이 시대가 Analog에서 Digital로 변화되어가기 시작한 지 꽤 됐지만, 이곳 한국에선 유난히 그 속도가 급격하게 모든 면에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며 우리 세대는 한국땅에서 살아가기가 참 피곤하고 머리 아플 것 같다.



물론 미국도 Pandemic시절 이후 많은 일들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Red Ocean Market은 점점 쇠퇴해지고 Blue Ocean Market은 방대해져 가고 있다. 생각에 따라서는 ‘얕은 자리에서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하고 좋아’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집에 앉아 주문해서 배달시키니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며 물건도 사고 팔고, 또 음식 추천받아가며 골라 먹는 재미를 잃어가고 있다. 또한 많은 가게에서 손님이 그 곳을 찾아갔더라도 kiosk를 통해

서만 주문하게 되어있다. (물론 대도시에 국한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또 일을 처리할 때도 우리는 많은 경우 web-site을 찾아 들어가서 이것저것 계속 search해야 원하는 답을 찾을 때도 있고, 또 해매는 경우도 많으나 직접 사람을 contact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란 시간이 너무 걸리고 지치게 된다. (이 부분은 미국 쪽이 훨씬 힘들다)

이번에 친구들과 제주로 여행을 가려고 공항버스를 예약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른다. 늘 한국 방문할 때 딸이나 사위가 공항에 마중을 나와줘서 오랜 세월 공항버스를 타보질 않아 system이 이렇게 BUSTAGO 란 App을 통해서 비행기좌석 예약하듯이 예매해야 하는 줄 몰랐다. 문제는 나의 전화기가 미국에서 가져간 전화기라 한국 app 인 Bustago가 설치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언니의 사용하지 않는 전화기를 빌려 sim을 사서 넣고서야 설치할 수 있었으니 예전에 그냥 정류장에 가서 돈 내고 타면 되었던 그 때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

아무리 푸념해 봐야 우리는 이 초고속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또 이런 세상에 적응되지 않으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배워가며 따라갈 수 있을 때까지는 눈을 반짝이며 열심히 쫓아 살던지, 아니면 Amish처럼 문명을 거부하고 조상들의 대대로 이어져 오는 삶의 방식으로 초연하게 살아가던지, 후자의 삶이 어떻게 보면 세상 종말이 다가올 때에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런지 생각되어지는 요즘이다.



손장숙(75)

미국 아들과 한국 엄마의 이야기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LA에 산 지도 어언 30년 가까이 되어 간다. 누구나가 그렇듯이 나 역시도 사는 것이 바빠서 단풍이라는 단어조차 잊고 살았다.

한국에서는 사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여 가을이 되면 오색찬란한 단풍 구경을 하러 가기에 바쁘다. 빨간색 단풍을 보러 산을 찾는 사람이 줄을 잇는다. 노오란 은행잎이 싸인 곳에서 예쁜 것을 찾아서 두꺼운 책갈피에 꽂아 놓고 한다.

우리의 모교 이화여고에 다닐 때, 스크랜튼 홀로 넘어가는 등나무 길 말고 언덕을 내려서 작은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 길이 있었다. 거기에 정말로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었다. 가을이 오면

까마득히 잊고 미국 이민 생활을 하는 나에게 막내 아들이 물어왔다.

“엄마, 아스펜 가을 단풍여행을 같이 하실래요?”

삼년 전 이었던가? 뉴 멕시코의 알버커키에 사는 막내 아들이 말을 꺼낸 것이었다. 이 아들은 아웃도어를 즐긴다. 하이킹, 캠핑, 백패킹, 카약킹, 패러보드 등을 즐기며 살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UCLA 대학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한 달 간의 존뮤어 트레일을 한 것이 그의 삶에 아웃도어가 들어 오게 된 동기부여가 된 것 같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360896>, <http://ny.koreatimes.com/article/357280>).



끝없이 떨어져 쌓여 있는 그 은행나무 밑을 즐겨 찾곤 했다. 1975년에 졸업을 했으니 거의 50년 전의 일이던가? 그러나 여고 시절의 생생한 그 추억들은 우리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 있다.

그런 가을 단풍을

그리하여 나의 막내 아들과의 10일 간의 가을 단풍 여행이 시작되었다. 콜로라도와 뉴 멕시코에 찾아오는 단풍의 시기가 온도에 따른 계절의 변화와 비가 스치고 지나가는 형편에 따라서 매년 달라진다고 한다. 과거의 경험과 그해의 여름과 가을의 예상 기온을 가지고 최고의 단풍시기를 예측해야 했는데 그의 계산은 일주일이 빨랐다. 아마도 나의 가능한 휴가 기간을 맞추려고 알면서도 일주일 빠르게 잡은 것도 같다. 또한 그 유명한 멕시코의 벌룬 휘에스타 행사로 인한 비행기 값의 폭등을 피하려 했는 지도 모른다.

자세한 기억이 없다마는 나로서는 한가지 색깔로 완전히 노랗게 변해버린 풍경보다도 녹색과 연녹색과 변해가는 노란색

과 완전히 새추레이트된 진한 노란색까지 한꺼번에 경험한 것이 행운이라 하겠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에도 여러 색깔로 표현할 수 있다면 더 재미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닐까?

그 유명한 아스펜(Aspen), 마룬벨스(Maroon Bells), 브라이덜 베일 폭포(Bridal Veil Falls in Telluride)등을 보았다. 콜로라도의 브에나 비스타에 사는 나의 동네 친구의 세컨드 홈에도 방문했다. 그의 친구와 함께 마지막 2박 3일의 캠핑을 하며 노란 단풍 속에 침잠하기도 했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내 아들이 집을 떠나서 자기의 삶을 따로 시작한 것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교의 기숙사에 들어간 때부터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서로 전화하고 카톡을 하고 가끔씩 집에 오면 맛있는 것을 해주고 안 가져 간다는 것을 자꾸 싸주고 하던 엄마였다. 20년 만에 아들과 단 둘이서 진하게 열흘 간의 시간을 보낸 것이다.

이민을 와서 엄마는 엄마대로 살기에 바빴고 아이들은 그들 나름 적응해서 살기에 바빴던 것이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흘러 아이들은 이제 자라고 어른이 되어서 독립된 개체가 되어 사회에서 일을 하며 훌륭히 성장했다. 이민 1세인 우리들도 한국 사

그의 말에 의하면 엄마는 너무 느리다는 것이다. 참는데도 한도가 있나 보다. 알아! 너희들은 내가 컴퓨터를 물어보면 너무 느리니까 못 참아서 나오라고 하고 대신 앉아서 그냥 해 버리지. 하나씩 따라오다가 지치면 그냥 도망가 버리던지.. 나도 그래서 교회에서 나이든 집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컴퓨터 교실이 좋고 편하다.

자기가 A를 말하면 엄마는 자기를 무시하고 A에 대답을 안 하고 딴소리만 한다는 것이다. 내가 대답하기를 네가 말하는 A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를 써포트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B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말을 접수를 안 했고 이해를 못한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올 봄에도 똑 같은 얘기를 그로부터 또 들었기 때문이다. 이후로는 그의 말에 무조건 “Yes” 아니면 “No” 를 말해서 대답하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한다.

내 얘기를 들은 친구는 아들에게 “너도 나이 들어 보라. 엄마랑 똑 같은 처지가 될 거야.” 라고 썰기를 박아주라고 한다. 덧붙여서 이전 아이들과 여행하지 말고 맘 편하게 친구들끼리 다니자고 한다.

오랫동안 살던 곳 LA를 접고 뉴 멕시코로 이사를 왔다. 나이를 좀 더 먹기 전에 새로운 생활을 꼭 시작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그 기회가 온 것이었다.

인디언 레저베이션이 있는 곳에는 네이티브 인디언들을 치료하는 퍼블릭 치과병원이 항상 있다. 그 중에서도 애리조나 주이거나 뉴 멕시코 주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있다. 이번에 내가 뉴멕시코의 알버커키에 있는 그 중의 한 장소의 병원에 치과 의사로 취직을 했다.

원래는 이 병원에 막내 아들이 일하고 있었다. 이 아들이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내가 이력서를 내고 구직 신청을 하였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인터뷰를 하려면 날을 잡아야 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코비드 이후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LA 에 있는 내 오피스에 앉아서 줌으로 인터뷰를 했고, 어렵지 않게 통과해서 동료 치과 의사의 추천서를 제출하여 드디어 취직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나의 새로운 인생의 챕터가 시작되었다. 고맙게도 아들 집에 당분간 지내면서 새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다. 이미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마도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집을 살 때까지 어렵더라도 최대한 아들과 함께 지내보자고 결심을 단단히 하고 왔지만 이제 아파트를 얻어서 이사를 가기로 마음의 결론을 내렸다.

엄마를 애기처럼 돌보고 있는 아들이 안스러워서 빨리 짐을 내려놓게 도와주는 것이 나의 할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람의 근성대로 부지런하고 끈기있고 스마트해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나름대로 잘 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한국 엄마와 미국 아들이 24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서 살았다. 함께 자고, 함께 차를 타고, 함께 먹고, 함께 걷고, 둘이서만 얘기하며 열흘을 보냈던 것이다. 이틀이 지나고 삼 일째가 되니까 내 아들이 말을 잘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자꾸만 통겨내기 시작했다. 자기가 오늘 밤에 잘 모텔에 들어가야 하니까 어디에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는지 GPS를 봐 달라고 했다. 내가 긴가 민가 해서 주춤하는 사이에 아들은 화가 나서 차를 획 돌려 좌회전을 해서 모텔에 들어가서 파킹을 했다. 그리고는 혼자 내려서 횡 하고는 후론트로 먼저 들어가 버렸다.



김윤자(63)

몽골 선교와 문화 차이

2015년 어렵게 시작한 자비량 선교는 그리 쉽지 않았다. 몽골 말을 못하면서 몽골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후레대학 교수로 학생들과 만나면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가정을 버리고 떠나 버린 아빠들에 대한 분노와 슬픔으로 인한 상처와 빈곤한 경제 형편으로 등록금을 낼 수 없는 학생들이 많았다. 당시 우리 반에서 아빠와 함께 사는 학생들이 10-20%, 지금은 30-40%로 향상되었다.

상담학을 전공한 나는 학생들을 위로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장학금을 마련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장학금을 주려면 돈이 필요한데 과연 누가 나에게 선교 헌금을 줄 수 있을까 내심 무척 걱정을 했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

사실 나는 건강한 몸이 아니다. 유방암, 뇌종양, 불치의 폐염증, 허리디스크, 저혈당 증상 등 질병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몽골 선교를 시작한 지 10년차가 된다.

이제부터 A 장로님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그분을 폄하하려는 생각은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지에 대한 나의 체험을 나누려고 한다.

어느 날 나는 우리 교회 참석을 못하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그 교회 다니시는 A 장로님이 내 차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다. "교회에 헌금하기에도 너무너무 힘든데 선교 헌금까지 해야 하나요?" 하시면서 이게 마지막이



라고 하시면서 봉투를 주시고 획 가버리셨다. 순간 좀 얼떨떨했다. 봉투 안에서 cash \$100이 들어 있었다. 그 순간 "주님! 이렇게 주위 성도들을 괴롭히면서 선교해야 한다면 저는 선교 그만 할래요!" 차안에서 소리를 질렀는데 눈물이 확 쏟아졌다. 선교 헌금을 모으는 file이 있는데, 그 헌금 봉투를 file 속에 집어 넣으면서 "나, 이돈 절대로 은행구좌에 입금시키지 않을꺼야" 스스로 다짐을 했다.

그후 한달쯤 지났을 때, 그 file을 열었더니. 그 \$100 선교 헌금 봉투가 그냥 그대로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억지로 낸 헌금도 나의 것인데 네가 왜 입금시키 않느냐? 네가 말로 당한 그 정도의 수치가 그렇게 분하더냐? 나는 너를 위해 실오라기조차 걸치지 못하고 알몸으로 창피를 무릅쓰고 온갖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나는 가슴이 찡해 오면서 회개의 눈물이 울컥 쏟아졌다.

요한복음 12:24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들려왔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나는 죽지 못했고 여전히 자존심을 뺏빚이 세우고 있는 나를 보았다. 즉시 그 \$100을 선교 헌금 은행구좌에 입금시키고 A 장로님에게 Thank you card 를 보냈다.

사실 나도 나약한 인간인지라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 후, 어느 날 전화 벨이 울려서 들여다보니까 모르는 전화 번호라서 안 받았다. 필요하면 전화 message를 남겨 놓겠지... 그런데 정말 message가 있었다.

60년전 헤어진 여고 동창이 "거울지" 에서 나의 몽골 선교 글을 읽고서 울었다고 하면서 꼭 통화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라서 즉시 전화를 걸었다.

60년 만에 듣는 동창의 목소리였다. 자신의 외동 딸을 코비드 시작 직전에 암으로 먼저 천국으로 보냈다면서 울먹거렸다. 딸이 평소에 착한 일을 좋아해서 homeless 같은 아이들을 집에 데려 오기도 했고, 늘 남을 도와주었던 착한 딸이었다고 알려주었다. 남편과 의논한 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보내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해 5월 LA 동창회 모임에 바로 그 친구가 멀리 San Diego 에서 나를 만나러 참석했다. 봉투를 주어서 집에 와서 열어보았더니 \$5000 수표가 들어 있었고, 작은 카드에 이렇게 써어 있었다. "딸 아이의 소원을 들어 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어서 고마워 ~" 그리고 4년동안 학생 3명에게 매년 장학금과 책값과 생활비를 도와주었다. 주님께서는 내가 A 장로님으로부터 받았던 내 마음의 상처를 사랑하는 친구를 통하여 주님의 신비하신 방법으로 깨끗이 치유시켜 주셨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사야 42:3 의 말씀과 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시작한 몽골 선교 장학 사업은 지금까지 대

략 600 여명이 넘는 불우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고 많은 동역자들의 기도도와 후원 덕분으로 여기까지 왔다.

몽골 선교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나는 수많은 교회의 강단에서 간증을 하였다. 교회마다 서로 문화가 다르고, 나라마다 문화차이는 확연하였다. 그러나 그 문화 차이는 잠시 스쳐가는 느낌이라서 그리 심각하지는 않았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느낀 가장 큰 문화차이는 부부간의 문화 차이 같다. 서로가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가 결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같이 살아가는 동안 각자 몸속에 깊숙이 배어 있는 문화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부딪치면서 문화차이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부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서로 너무나 다른 문화 차이로 가끔 충돌하고, 분노하고, 후회하고 여러 번 이혼을 생각하면서 57년을 비비대고 살아오는 동안 어느덧 우리는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었고 안주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우리의 문화 속에서 좀 편해지려나 했더니 복병이 나타났다. 두 아들이 결혼하면서 아들-며느리-손주로 연결되는 새로운 문화를 만났다. 개네들은 두 부부가 직장을 갖고, 거의 매일 매 식하고, 훗시 집에서 밥을 먹는다면 무조건 아들녀석이 cook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온 식구 Lunch를 준비한다. 물론 여행도 엄청 자주 다닌다. 그렇다고 함부로 우리가 입을 여는 것은 taboo다. 그러고보니, 세상의 어느 문화 차이보다 가장 극심한 문화차이가 우리네 가정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다. 매일 겪어야하는 이 엄청난 문화 차이를 우리 이화인들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고 슬기롭게 잘 넘어갈 수 있을 줄 믿는다.





권정현(75)

축복의 땅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얼떨결에 그것도 갑자기 나온 영주권 덕분에 미국과 한국을 오가게 된 지 벌써 4년이 되어간다.

35년 전 미국 동부에서의 5년간 생활은 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의미있고 소중한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토록 고대했던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확인했고, 주신 소명을 품고 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 땅을 떠난지 25년 만에 떠나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 초고속 영주권

자가 되어 축복의 땅 미국으로 다시 들어왔다. 아마도 분주하고 바쁜 한국을 떠나 여기 미국에서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를 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예전에는 세 아이를 키우느라고 잘 몰랐었는데 이제 노년에 찾아온 미국은 산책할 때마다 진짜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청명한 날씨, 너른 대지, 신선한 공기, 아름다운 꽃과 나무, 향그러운 꽃 내음, 각종 새와 나비, 산토끼, 사람들의 온화한 미소 등등...



그러나 미국의 뉴스를 통해 보는 수많은 노숙자 문제, 마약 범죄, 대낮의 떼 강도, 총기 난사, PC (Political Correctness)로 변질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혼란스러운 성 정체성과 치안 상태 등을 접할 때에는 충격 그 자체이다.

한편 한국은 그 어둠의 땅에 빛이 되신 복음이 전해져 축복의 땅이 되었고, 한류 열풍에 더하여 나라의 위상까지 높아지고 있다. 전쟁 후의 한국의 발전 과정을 체험한 세대의 한 증인으로



로서 지금의 우리 한국이 정말 축복의 땅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이러한 축복의 땅,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가장 크게 차이를 느끼는 것은 두 나라의 치안 상태이다. 미국은 총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안전한 지대가 없는 것 같고 늘 긴장해야 하지만, 한국은 언제든 어디든 거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은 차가 없으면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곳인데 반해, 한국은 차가 없어도 마음껏 다닐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그러나 아무리 축복의 땅이라 해도 인간이 사는 곳은 문제가 많은 법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인생의 답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축복의 땅인 두 나라를 오가면서 많은 시간을 나의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된 것일까? 내게 주시는 가족 구원과 복된 소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감사할 뿐이다. 완고했던 남편도 미국에 오면 교회를 따라 나오고, 아들도 나와 함께 있을 때면 항상 교회에 함께 나

간다. 매일마다 카톡으로 손주들에게 큰 소리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아멘 소리로 기뻐하며 믿음의 물줄기가 흐르도록 간구하고 있다.

이 글을 쓰며 이화의 교훈인 '자유, 사랑, 평화'를 떠올려 본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사랑과 평

화만이 해답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항상 축복하고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귀한 열매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귀한 노년의 때를 지혜롭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24년 남가주 동창회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화 코랄

연습시간: 매주 월요일

오전 11:30-오후 2:00

지휘자: 강영옥(69) 213-500-1829

단 장: 박연옥(73) 310-617-9394

성 아그네스 한인 성당

2625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이혜주(75)

감동으로 다가온 미국 문화

1996년 영주권을 받아 입국해서 한달간 미국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13세, 11세, 4세인 세 아이를 데리고 LA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티켓을 본 직원이 바쁜지 설명도 없이 무조건 타지 말고 거기 앉아 기다리라고 하니 마음 한 칸으로 ‘뭐가 잘못 됐나?’ 불안하기도 하고, ‘저 여자가 내가 아시아인이라고 무시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쾌하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마지막 탑승객이 오르자 그제서야 그 직원은 우리 네 명을 데리고 기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에게 말하기를,

“여기 엄마가 세 아이들을 데리고 탑승한 가족이 있는데 좌석이 떨어져 있으니 양보해 주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자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두명도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서로 좌석을 양보해 주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우리 가족 넷이 나란히 앉아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내려갔습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조금 전까지 가지고 있던 원망스런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내가 부탁도 안했는데 그 직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티켓 확인의 단순 업무를 넘어 탑승객에게 보여준 따뜻한 배려심에 감사했고 더더욱 약자를 도우려고 서로 양보하려는 미국인들의 시민 의식에 더 놀라웠습니다.

그 감격은 이어져 워싱턴 국립묘지 6.25 참전용사 묘역에 갔을 때, 모르는 남의 나라에 와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위해 싸우다 목숨을 바친 수많은 젊은이들의 무덤을 보았고,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목으로 올라오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러 내렸습니다. 묘역 한쪽 땅에 박아놓은 주인 잃은 기다란 총대 끝에 매달린 녹슨 철모의 기억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가슴에 아려옵니다.

사망 36,500여명, 부상 92,100여명, 실종및 포로 8,000여명을 낸 한국전쟁은 워싱턴 6.25 참전 기념 공원내에 새겨진 글귀와 함께 오늘날 자유가 거저 얻어진 줄 아는 많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보고 가슴에 새길 말입니다. “우리 나라는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려는 요청에 응한 우리의 아들과 딸을 기린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높은 시민의식과 문화가 오늘날의 미국을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세계 최강의 국가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나의 문화 체험



김형주(77)

부모님이 연로 하셔서 서울을 자주 다니게 되면서 미국과 한국의 문화가 좀 많이 틀리다는 걸 느껴서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몇가지 꼽아 보았다.

첫째, 배달 문화

미국은 요즘들어서 온라인 쇼핑에서 배달하는것이 활발하지만 워낙 미국의 땅덩어리가 크다보니 한국의 배달과 비교를 하면 천지 차이가 이것이구나 한다.

한국은 그 옛날 중국집 철가방을 시작으로 해서 요즘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도 개인이 안들고 다니고 집으로 배달, 마켓에서 생수와 생활용품등 모든것이 전화 한 통이면 배달이 된다. 밤 11시에 주문하면 똑딱 다음날 새벽 배송으로 아침상을 차릴수 있고, 관광지에 놀러가서도 여수 갯김치와 제주도의 오메기떡등 지방 특산물을 사서 사람들이 일일이 깡깡대며 뭘 들고 다니지 않아도 관광이 끝나고 집에 오면 척! 배달이 되어 있다. 이러니 달리 "배달의 민족" 이란 말이 나왔겠느냐마는 ~~~



둘째, 나라를 대하는 태도

미국에서는 콘서트를 가거나 혹은 운동경기를 보러가면 미



국 국가 (The Star-Spangled Banner) 가 어디서 나와도 모두 가슴에 손을대고 경의를 표하고, 성조기무늬의 옷도 티셔츠, 수영복 등 거리낌 없이 많이 입으며 미국 나라를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한국은 언제부터인지 애국가를 비하하거나 부정하는 기류가 생겼다. 또한 태극기를 대하는 국민들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고 "태극부대" 하면서 극우파의 상징으로 여기고, 태극기를 획일화된 정치적 색깔로 보면서 뭔가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헬조선" 이라하며 젊은이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가 어려운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걸 보면서 다른 우울한 문화를 보았다.

셋째, 비교문화

요즘 "개근 거지" 란 말을 들어 보셨는지?

학교를 열심히 다녀 개근상을 받는것이 자랑스런 것이 아니고, 남들은 체험학습으로 해외에 나가느라 학교를 빠지는데, 어디 다녀올 돈이 없어 매일 꼬박 학교에 출석해서 개근상 받는것이 이제는 창피한 일이 되었다는것이 초등학교 사에서 나온 단어라 한다.

비교문화가 얼마나 극에 달했으면 사람을 요리조리 재보고, 떠보고, 비교하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면 "~~거지" "~~충" 하면서 사람을 비하하는 혐오 명칭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것을 보면서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적지않은 문화적 충격을 느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나라의 크기나 다양한 인종 분포등 모든것이 엄연히 다르다보니 어느 것이 좋고 나쁜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문화의 다름을 느꼈다. 결국 어느 문화가 더 익숙하고 적응을 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듯 싶다.



조각가 작업실 방문기 (Lynn Aldrich - Un/Common Objects)

서동현(66)

울창한 나무 숲이 뒷마당을 감아주고 야생마늘의 하얀 꽃 향기가 가득했던 조각가 Lynn Aldrich 작업실을 지난 초봄 (2024년 3월)에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요일 예배에서 Lynn을 알게된 우리 동기 이해옥 (66, 차기 남가주 후원 이사장)의 추천이었다.

우리 개개인이 만들어 낸 자리들이 여기저기에서 자체 발광을 하면서 각자의 스튜디오를 갖고있었구나 하는 생각들로 실타래가 풀리면서 달관한 예술가 모습의 Lynn과 인사를 하고 작업실 문을 나설 수 있었다.

글렌데일 시의 조용한 길목에 위치한 작업실 문을 열자 전혀 예상치 못한 작품들이 하얀벽을 배경으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매일 쓰면서 버리기를 수없이 해온 온갖 종류의 청소 도구들이 서로 엉켜 붙어 있으면서 동시에 자리를 서로 양보 해가며 구조물이 되어 있었고 집 벽을 타고 내리는 빗물받이가 서로를 바라보고 노래를 하고, 정원 호스 수집개가 모여서 물을 뿜어 내듯 에너지를 토해 내는 작품으로 변신 되어 있었다. 별스럽지 않은 미물들의 집합이 놀라운 발광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평범에서 비범을 볼 수있는 작가의 능력에 감탄 했지만 더욱 놀라웠던 점은 North Carolina 의 영문학도가 졸업 후 거의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California State University와 Art Center 에서 미술 석사까지 마친 1944년생인 여성이란 점이였다.

이방저방에 전시된 작품들을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실타래처럼 엉켰다. Lynn이 뒤늦게 용기를 내서 작업의 길로 들어가게 된 점이 왠지 우리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이 땅을 감싸게 된 점과 서로 상응하는 느낌이었다. 고뇌함, 기다림, 인내함이 만들어 낸 용기가 그러한 것이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따라서



제영혜(70)

끝없는 밀밭 포도밭 꽃밭 사이를 걷고 또 걷고, 아픈 허리 달래며 빗속 진흙탕 길 또 걸어 내 나이 70을 넘기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다.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버킷 리스트에 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완주하는 것이다. 나도 처음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 알게되고 막연하게 한번 다녀와야지 하고 생각한지가 거의 20년 정도 됐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같이 갈 친구를 물색하느라 세월 다 보내고, 마침내 '혼자라도 가자' 용기를 내었더니 때맞춰 펜데믹이 터져 또 공공 무여있다가 올핸 더 이상 미루다간 내 다리 힘을 내가 못 믿겠기에 '꼭 갔다오자!' 마음을 굳혔다.

1993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순례길은 유럽의 여러 길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성야곱의 시신이 묻혀있는 성지에 도달하는 길로서 많은 카톨릭교인들의 종교적 의미로 시작된 순례길이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실제로 800km를 걷는 도보여행으로 상업화되어 이 길을 함께 걷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고 40일 이상을 혼자 걸으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는 의미가 더 크다.

나이 70이 넘어 하루에 평균 15마일씩을 걸어야하는 이 고행의 길이 스스로 부담되고 두려웠던 모양으로 연초에 티켓팅을 끝내고 근력을 보강하기 위해 주중엔 이만보 이상을 서너번씩, 주말엔 12마일 이상인 산을 오르면서 체력 연마 중 하루에 한 두번씩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답답함과 통증이 나타나 심장에 문제가 있나 싶어 CT까지 찍었고 떠나기 전 날 심장에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와 마드리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스페인 도착 첫째 날 마드리드에 내려 일행 28명과 만남

한국에서 오지 트레킹으로 잘 알려진 여행사의 일정에 나는 혼자 미국에서 또 한 커플이 필리핀에서 합류하는 조합이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지 설레이는 맘으로 먼저 도착한 난 마중나온 사람들 사이에 끼어 서서 초조한 맘으로 한국에서 도착하는 비행기를 하염없이 기다렸다. 먼저 한 여자분이 현지 가이드라며 이영혜씨냐며 물어온다. 휴! 이제 안심.

28명중 두분은 가이드이고, 순례객은 26명인데 거의 모두 여자여서 감놀람. 다섯 부부팀과 남자끼리 온 두분이 보이고 나머진 다 혼자 온 여자였다. 옆에 말 나눌 기회가 있어 한 여자분께 "왜 혼자 왔냐? " 했더니 "혼자 다니지 15년 됐어요. 혼자가 편해요. 남편은 돈 벌어야 제가 여행하죠"라고 한다. 떠나오기 전 몇몇 친구들이 기대해 보라고 혹 근사한 혼자 온 남자도 있을거라 한 말들이 스쳐지나가 실소를 금치 못한다. 무슨 복에 여태 없던 기적같은 일이 생긴단 말인가?

까미노의 출발지인 생장을 향하기위해 오늘은 팜플로나까지 버스로 이동한다. 5시간 소요.

생장으로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일까? 왜 마드리드에서 내려 5시간이나 버스로 이동하는지 알 수가 없다.

가이드 언니의 재치와 노련함에 감사히 지루하지 않게 스페인의 북동쪽 끝까지 달려왔다. 첫밤을 기대보다 훨씬 괜찮은 호텔에 묵었고, 오는 길에 들린 1.5유로짜리 커피도 맛있고 와인 곁들인 저녁식사도 너무 훌륭해서

기분이 좋다. 가슴 통증은 분명 하루에도 한 두번씩 있는데 심장은 멀쩡하다니 다음으로 의심되는 역류성식도염을 걱정하는 내게 먹어선 안되는 리스트 중 적포도주와 토마토가 있던데 계속 먹고있으니 우짜꼬?

내일은 팜플로나와 생장 시내를 구경하며 슬슬 걸을 준비하는 몸을 만들어야 한단다.





둘째 날: 헤밍웨이가 사랑했다는, 그의 소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의 배경 팜플로나에서 카스티요 광장에 들어서면 딱 눈에 띄는 카페 'IRUNA'가 있다. 헤밍웨이가 스페인에 올 때마다 거의 팜플로나를 들리고 또 카페 IRUNA에서 쉬며 사색한 걸로 유명한 카페.

그런가하면 팜플로나는 투우를 빼놓을 수가 없다. 해마다 7월 6일이면 산페르민 축제가 열리는데 그 열기는 굉장하다. 800미터 정도 구간의 6미터 좁은 길(TV 중계로 볼땐 꽤 넓은 길인가 했는데 실제로 보니 약 6미터 너비)을 성난 황소와 함께 달리는 Encierro는 팜플로나의 자랑이자 그 자체이다. 7월 7일부터 15일까지 8번 아침 8시에 하는 이 행사에는 빨간 옷이나 장식으로 치장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소를 유인하며 짜릿한 경주를 즐긴다. 좁은 길에서 벌어지다보니 언제나 부상자도 발생하여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 길의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발코니 보수공사를 하고 그 구간 렌트로 돈 벌 계획에 들떠있다고...저녁행사인 투우 경기도 소가 죽어야 하는 경기인 만큼 동물 사랑가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 산페르민 축제에 언젠가 한번 빨간 옷을 차려입고 와보고 싶다.

셋째 날: 드덕 순례길 대장정의 첫날

목적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많은 루트 중 가장 많은 순례자들이 선호하고 가장 유명한 "프랑스길"의 시작은 프랑스 생장에서 시작한다. 해발 1430미터인 피레네 산맥을 넘어야 하는 가장 힘든 코스이다. 어제 시내에 있는 순례길 사무실에 들러 크리덴샬 (순례길에서 통용되는 여권 같은 것)을 만들고 순례길



을 걷는다는 등록도 마쳤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오고 싶어한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안 보여 물어보니 역시 국가별 가장 많이 찾는 사람들 1위는 단연 스페인이고 2위는 독일 3위가 미국이란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1위 정도.

익히 들은대로 첫날 피레네 산맥을 넘는게 가장 어려운 코스. 26km 1230m gain

미국에서만 meter system을 안 쓰니 며칠 meter로 얘기하다보니 나도 이젠 헛갈린다. 거의 16마일 4000ft gain인 셈이니 힘든 코스긴 하다.

프랑스 길 10마일 스페인 길 6마일 걸어 오늘은 아주 예쁜 자그마한 도시 론세스바예스에서 하루 묵는다. 순례자들을 위한 도시이다.

세계 각처에서 모인 순례자들을 위한 호텔, 알베르게, 성당이 있고, 그 중 나의 관심을 사로잡은 건 'Casa Sabina', 'Sabina bar' 였다. 나의 카톨릭 본명인 사비나 성녀 이름을 딴 건물과 비즈니스가 있다니 너무 반가웠다.

산맥을 넘는다고 하나 산길은 아니고 대평원을 지나는 느낌. 때론 소 말 양들과 나란히 걸어가기도 하고, 저 아래 발밑에 깔린 안개구름, 반대편 산 능선엔 아직도 하얀 눈이 덮여있고, 정말 평온한 대자연 속에 파묻힌 하루.

길고 힘들었지만 그나마 날씨가 받쳐줘서 잘 끝낼 수 있었다. 내일은 좀 더울 예정. 길도 완만하다니 걷기에 너무 지루할까 걱정이다.

넷째 날: 팜플로나에서 푸인테 라 레이어나까지 15.6마일 종일 밀밭 사이를 걷다.

어제 16마일에 이어 15.6마일이라니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

끝도 없는 밀밭이다. 이렇게 밀 생산이 많으니 빵이 맛있을 수 밖에. 밀빵을 끼니마다 내 놓는데 버터도 없고 오일과 발사믹도 따라 나오지 않는다. 마른 빵에 얇게 썰은 돼지고기를 끼워서 먹기도 하고 우리네 전같이 생선이나 소세지를 잘게 썰어 계란에 부친 걸 넣어 먹기도 한다. 종일 초록 밀밭만 보며 걷다 보니 앞뒤 좌우 아무도 없고 머리조차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녀이 빠진 느낌이다보니 밀밭 사이 이랑에 젊은 남녀 사랑꾼들의 사랑놀음이 보이는 듯한 착각도 든다.

Alto de Perdón (용서의 언덕)까지 21.5마일, 1100ft gain 오르막이다. 날씨는 덥고 더이상 못 가겠다 싶을 때 만난 오랜 세월 지나온 순례자들의 형상을 철로 제작한 조형물을 만난다. Dónde se cruza el camino del viento con el de las

estrella (바람의 길이 별의 길과 마주치는 곳)의 전설이 있는 이곳. 확트여 시원한 바람이 땀에 젖은 옷과 몸을 식혀준다. 사진 찍으면서 쉬고나니 또 걸을 기운이 생긴다. 이제 내리막길 2마일만 가면 점심 먹을 우테가에 닿는다. 2마일이라고는 하나 그 경사가 매우 심하고, 자갈이나 돌도 많아 푹이나 어렵다. 일행 중 한 분은 삼년전 이 길을 걸었을 때 딱 여기에서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 때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니 불현듯 통증이 다 사라져 무사히 완주할 수 있었다. 그 때의 경험을 다시 찾고싶어 지금 암4기 환자의 몸으로 다시 이 길을 찾았다는 신앙고백을 듣다.

Puente LA Reina의 스페인 국영 호텔 파라도르에 짐을 풀다.

다섯째 날: 포도주로 유명한 LA Rioja 주 14.5마일 걷다.



어제는 밀밭을 오늘은 포도밭을, 나헤라에서 부르고스까지 스페인 와인의 원고장을 지난다.

끝없는 포도나무밭을 양옆으로 장시간 걷다보니 와인에 취하는 기분이다. 4시에 부르고스에 비예보가 있어 재촉해 발걸음을 옮긴다. 게다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부르고스 대성당도 봐야하니 맘이 바쁘다.

다행히 운도 좋게 14.5마일을 끝내고 숙소로 향하는 차에 오르자 비가 억수로 쏟아진다.

한 시간 남짓 달려 부르고스에 닿으니 날씨는 개이고 또 이 도시의 꽃의 축제가 열려 온 시기가 사람들로 뻘뻘하다. 5층의 시청 건물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온통 꽃으로 건물벽을 장식해 놓아 나의 눈을 끈다. 가는 도시마다 축제라니 이게 웬 복?

여섯째 날: 메세타 고원지대 통과하다.

스페인을 공중에서 촬영하면 중앙부에 우리나라 크기의 두 배쯤 되는 큰 분지가 있다고 하고 수도 마드리드도 그 안에 있다고 한다. 이름하여 메세타.

오늘은 까스트로헤리스에서 프로미스타까지 메세타 지역

16.5마일을 걷다.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동서남북을 다 돌아봐도 끝없는 지평선만 보여 사람이 그림자. 메세타 고원 평원 지대를 걸으며 많은 비를 먹고 새파랗게 잘 자란 밀밭을 지겹도록 지나가다 문득 바람에 일렁이는 밀의 파도에 눈이 꽃힌다. 어쩔 그랴 초록색이었던 밀들이 여러 다른 색깔로 휘날린다. 저런 색깔들을 표현하느라 애쓸 화가들의 파レット 생각도 나고, 폭신한 카펫 같아 뛰어들어 몸을 누이고도 싶다.

자연을 혼자 오롯이 느끼는 하루.

일곱째 날: 철의 십자가

어제 저녁 먹을 때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밤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다. 오밤중에 약 챙겨 먹기도 그렇고 아침이면 괜찮겠지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려니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다. 영 안 좋다. 골프 역사 근 40년이니 허리에 이상이 없을리가 없어 살살 달래가며 견디곤 했는데 매일 쉬지않고 무리를 하다보니 이상이 오나보다. 오늘 어떻게 걸을까 난감하다. 일행들께 SOS 쳤더니 파스에 진통제에 복대까지 다 가져다 주셔서 감사하며 시작하다.

그 유명한 철의 십자가를 봐야하는데..

시작이 4000ft 고산 중의 하나. 산맥 이름은 모르겠지만 5000ft까지 올라가는데 0.6마일 밖에 안되는 경사길을 내리막 없이 줄곧 올라가야만 한다.

특히 오늘 길은 정말 예뻐서 허리 아픈 것도 잊어버린채 한발 한발 내딛는다. 여태 못 본 이름 모를 하얀색 꽃 사이를 {개나리 같은데 흰색} 걷고 또 걷고 하염없이 걷기만 한다.

철의 십자가엔 앞서 지나간 사람들이 놓고 간 각자 고향에서 가져온 돌과 리본과 기념되는 물건들로 가득 쌓여있다. 나도 집에서 챙겨온 남편의 기념품 하나를 놓고 잠시 상념에 빠진다. 이제 정말 이 여행에서 돌아가면 이 남자 생각은 싹 잊어버려야지 하는 맘으로...이 십자가 주변에 돌을 가져다 놓으면 살아온 세월의 죄와 짐을 벗어놓는다고 하는데 말인즉슨 가져온 돌의 무게 만큼만 사해진다나?

여덟째 날: 허리가 너무 불편해 반 이상은 버스에 남다.

아침에 일어나니 허리가 구부릴 수도 없을 정도로 거북하다. 아침도 생각없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머리만 복잡하다. 그 다음 숙소로 혼자 먼저 가 있어야 하나 아니면 버스 속에 남아있어야 하나 고민하다 정신력으로 버티자하고 따라나섬. 매일매일 짐 싸고 풀고 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다. 날씨도 안 좋아 비는 계속 세차게 오고 찬 바람까지 불어 너무 춥다. 오늘 길은 오세브레이로에서 트리아까스텔라까지인데 해발 4000ft에서 시



작해 오르락 내리락 거듭하다 4400ft를 찍고 다시 2200ft까지 내려가는 14마일을 걸어야 했는데 하는데까지 해보다 안되면 말자는 맘으로 한발한발 내딛는다.

첫 시작은 산이 높다 보니 높은 나무가 울창한 길이어서 좋은 공기가 폐속으로 들어와 날정화시키는 기분이다.

이 순례길은 8세기부터 있었다 하는데 요즘처럼 많은 순례자들을 이끄는 데는 엘리야스 발리나 신부님이 1980년에 노란 페인트 통을 들고 순례길 곳곳에 지금있는 화살표를 직접 그려 모든 순례자들이 길을 잃지 않고 산티아고까지 무사히 다다를 수 있게 하신 공로가 크다한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지금은 돌아가신 그 엘리야스 발리나 신부님이 살아생전에 모셨던 성당을 방문하고 제대 왼쪽에 있는 그의 무덤앞에서 오늘까지 별 탈 없이 잘 걷고 있음을 감사한 일과 도네이션 유도하며 올려놓은 초에 불 붙여 우리 식구들 하나하나 이름 되뇌이며 앞날을 축복해 주십사 빌고 온 것이다.

허리 핑계로 반 정도밖에 못 걸었더니 훗 덜 피곤하다. 허리도 많이 좋아진 듯 한데 내일은 또 어떨려나? 이제 딱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생각하니 벌써 아쉽다.

아홉째 날: 사리아에서 출발, 목적지까지 100km 남은 지점을 찍고 포르토마린까지 14마일 걸음.

비도 오락가락 기온도 더웠다 추웠다 변화무쌍했던 하루. 사리아에서 출발해서 산티아고까지만 걸어도 100km 이상이라 완주했다는 증명서를 준다해서 사리아부터 부쩍 순례자들의 수가 대폭 늘었다. 이제 더 이상 조용하고 고요한 순례길은 없을 듯하다. 옆에서 그룹으로 와서 시골벽적 걷는 친구들이 벌써 거슬린다. 남 생각은 하나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떠드는 말 소리가 정말 싫다.

오늘의 시작은 우리네 시골 마을 느낌나는 담장길을 걸어 마을 하나를 지난다.

집집마다 키우는 소 닭 염소들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똥 냄새가 진동한다. 걷기 제일 재미없는 마을 길을 지나자 100km 표지판이 눈

앞에 나타났다. 너무 반갑다. 이제 100km만 걸으면 끝이라니... 난 이 순례길의 마지막에 서서 과연 무슨 맘으로 어떤 것을 느끼고 있을까? 걷기 전과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하면 난 무엇을 할까? 용서를 구할까 아님 감사 기도를 하려나? 아직 답이 없다.

내일부터는 매일매일 짐을 안 싸도 된다.

오늘 도착한 Lugo에서 3박을 한다하니 한결 맘이 푸근하다. 오늘 점심에 먹은 새우요리, 왕가래비 구이, 버섯요리가 여태 먹은 것 중 단연 최고였다. 돼지고기만 지겹도록 먹으며 왔는데 이제 슬슬 바다가 가까와 옴이 실감난다. 문어는 언제 먹는 거야?

열째 날: Portomarin 에서 Palas de Rei까지 16마일 연일 비 오고 춥고. 아침에 일어나니 도저히 걸을 상태가 아니다. 게다가 첫 3마일은 상당한 오르막이라 해서 아예 단념하고 차안에 남기로 작정하다. 늪은 티 안 내고 아무리 버텨보려해도 역시 나이는 못 속인다. 나이 순으로 다섯명이 차에 남게 되어 우리끼리 서로 바라보며 싱겁게 웃다. 차로 이동 중 밖을 내다 보니 비는 주룩주룩, 내 맘에도 계속 서글픈 눈물이 흐른다. 그렇게 버리고 별려서 왔는데 걷지도 못하고 차안 신세라니. 이 놈의 허리병이 야속하고, 순례길을 와 모든 걸 좀 내려놓겠는데 왜 못 걷게 휘방놓는 신도 야속하다. 누구는 "주님 뜻대로 하세요" 기도했더니 무릎도 싹 나아 날 듯 걸었다는데 난 어제 오늘 종일 허리 상태가 나아져 끝까지 걸을 수 있게만 해달라는 그 기도밖에 없건만 안 들어 주신다. 차로 3마일까지 이동은 눈 깜짝할 사이인데 걸어오는 일행을 기다리며 차 속에 앉아 있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허리가 앉아있는데도 힘들다. 예라 그냥 걷자. 죽기야 하겠나 이렇게 차 안에 있는 거 보다야 나올듯싶어 걸어보기로 맘먹다. 천천히 쉬지않고 걷다보면 허리가 풀리길 또 진통제 약발이 들길 바라면서 강으로 버틴 하루. 이제 한 38마일 정도 남은 것 같다. 남은 사흘도 핫팅!

열한번째 날: 그 유명한 문어구이를 드디어 먹다.

며칠째 날 괴롭히던 허리가 어제 저녁 일행 중 한분이 본인의 신장 결석 증세에 대처하려고 받아온 마약 든 진통제를 나눠줘 먹은 덕분인지 LA 친구들의 합심 기도 덕인지 무지하게 좋아지다. 허리가 덜 아프니 그저 걷는 건 일도 아니다. 오늘도 16.5마일 완주하다. 이제 내일 하루와 일요일날 반나절만 걸으면 대장정의 막이 내린다.

종일 비웃을 벗지 못하고 장대비를 맞으며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걸었더니 두 엄지발가락에 물집이 잡히기 일초 직

전이다. 점심 먹을 때라도 신발과 양말을 벗고 열을 식혔어야 했는데 오늘은 기대했던 맛있는 문어며 가리비조개 먹느라 정신 팔려 등산화 벗을 생각을 못했다. 내일 하루 더 걸어야 하는데 견딜지 의문이다. 누가 돈 줄테니 비 속을 뚫고 16.5마일 걸어오라 하면 어느 누가 하려고 할까? 수도 없이 많은 순례자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왜 이 고생을 하느냐고.

열두번째 날: 우요아 치즈로 유명한 Arzua에서 Santiago가 코앞인 O Pedrouzo까지 12마일 걷다.

우요아(Ulloa) 치즈는 이 갈리시아 지방에서 나는 소젖으로 만든 치즈인데 하얀색 아주 부드러운 치즈로 향이 좋다. 시골 치즈라고 부르기도 한단다. 우리가 사먹는 모짜렐라 보다 더 부드러운게 네모로 썰어 Salad에 넣어주는데 입맛에 맞다. 연두부 같기도 하다.

오늘도 계속 비. 세찬 비 앞엔 골텍스고 방수천이고 관계없이 무릎 아래는 다 젖어 척척 감긴다. 비에 조금이라도 덜 젖으려고 속도를 높인다.

나의 걷는 속도도 만만치 않은데 순례길 걷는 모든 이들의 속도 또한 겁나게 빠르다. 이제 25마일 남짓 남았으니 맘들이 다 급하긴 할테지. 이 길을 걷고나면 뭔가 달라지리라 기대를 했는데 아무리 정신 모아 맘 가다듬어 보려해도 뭘 위한 시도였는지 모르겠다. 우선 식구들 안위나 빌어보자. 한명 한명 얼굴을 떠올려 건강과 행복을 빌어본다.

점심은 터마호크같은 고기를 시켰는데 넉적한 돌판을 뜨겁게 데워 그 위에 구워먹는데 무지 짱! 예약 안 했다고 구걸 하다시피 5명이 들어가서 겨우 2인분만 얻어 먹었으니 모자라서 더 맛있었을까? 이동네는 식당 문화가 참으로 이상하다. 우리가 보통 먹는 시간엔 절대 문을 안 연다. 우리 식으로 12시 6시에 점심 저녁 먹으러 갔다가는 쪼쪼 굶기 딱이다. 주로 점심은 2시부터 5시까지 저녁은 8시 넘어서 다시 열어 새벽 1시까지 하는게 보통. 저녁을 먹으려면 매번 8시 넘어야 하니 언제 먹고 언제 소화시키고 잘까? 하기가 밤 9시 넘어 해가 지니 9시 반이 되어도 흰하다. 음식값도 싸고 Tax도 Tip도 없으니 그건 맘에 든다.

이제 내일이면 Santiago de Compostela 입성..

열세번째 날: Santiago de Compostela 입성!!

다행히 아침엔 구름이 좀 끼긴 했어도 대성당 광장에 들어선 순간은 날씨 화창!

동료들끼리 서로 축하의 포옹을 나누고 기념 증명사진 찍기

에 열심이다. 나도 멋진 연출을 위해 좀 뛰어보려도 다리에 힘이 없다.

마지막 30마일 구간은 Monte do gozo(기쁨의 언덕) 라는 넓은 언덕에서 멀리 아련히 대성당 꼭대기가 보이고 그 유명한 순례자 동상을 지나 또는 “산티아고 길의 문”이라 하는 대형 아치를 지나면 현대판 시가지 건물들 한가운데로 걸어 내려오는 구간이라 마지막 순례의 맛이 좀 사그라드는 기분. 또 몇 년전 제주 올레길과 자매결연 비슷한 걸 맺어 돌하루방 두개도 가져다 놓았는데 철조망으로 돌려놓은 거며 그 옆 설명해놓은 하늘색 구조물이 넘 맘에 안들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감 완전 망침.

듣기론 대장정을 마치고 성당 광장에 들어서면 감격의 눈물을 펄펄 쏟는다던데 단 한사람도 그리 격한 감정을 보이는 사



람은 없다. 마침 오늘이 성령강림대축일이라 12시 미사에 11시40분부터 성야고보 상반신상을 들고 수십명의 사제들이 입장함을 시작으로 신부님들 주교님들 수십명의 퍼레이드도 있었음. 모인 사람이 너무 많아 한시간반을 서서 미사를 봤더니 걷는 것 보다 더 힘든 하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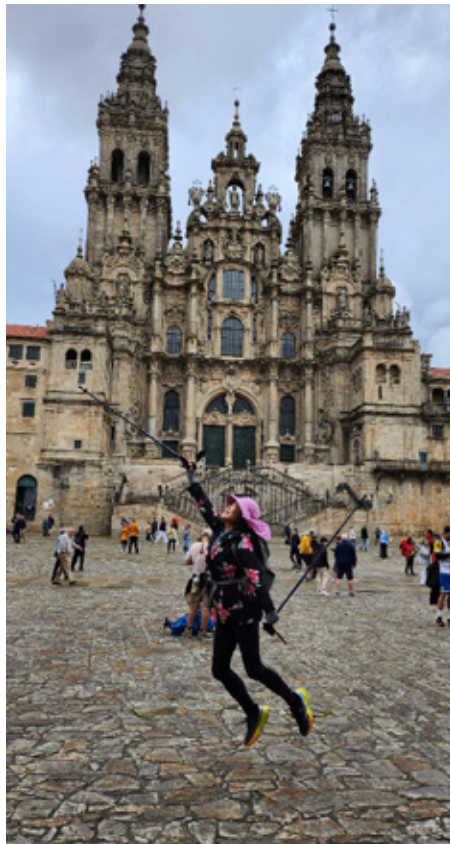
성당은 물론 크고 웅장하고 로마네스크 식. 구약시대에 성야고보 성인이 스페인의 서쪽 끝까지 와 포교를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그 무덤을 후에 발견했을 당시 수많은 별이 계속 반짝여서 별빛을 따라와 찾았다고 한다. 그 자리에 성당을 짓고, 야고보 성인이 묻힌 자리 위에 야고보 성인의 동상이 있는데 독특한 건 그의 복장이 순례자 복장인 것. 모자 쓰시고 지팡이 짚고 조개비 장식에 물주머니까지. 그리고 동상 위엔 전설에 나오는 별이 빛나고 있다.

중세부터 이어지고 있는 오래된 전통인 야고보 성인을 한번

씩 안아주기가 있는데 그 줄이 무지 길었지만 사진이라도 한장 남길까해서 기다렸는데 다가서니 사진촬영 금지라 해서 실망. 사람들 많은 손길이 무섭긴 해서 손이 닿는 자리에 은으로 만든 야고보성인의 망토가 구멍이 나 현재 것은 근래에 다시 만들었다고 한다. 옛날 구멍난 건 박물관에 보존 중.

종일 서서 헤맸더니 완전 피곤해서 죽을지경이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는 게 이런건가?

한국음식 먹고싶다.



열네번째 날: 0km 표지판이 있는 두 서쪽 끝 바다마을(Fisterra and Muxia) 관광

Santiago 순례길 7(10?)개중 프랑스 생장에서 시작한다고 해서 '프랑스길'이라 불리우는 800km를 2/3정도는 차로 나머지는 도보로 2주에 걸쳐 끝내고 돌아가는 비행기 타기 바로 전날 피곤한 몸을 하루 풀고가는 의미로 서쪽 땅끝 바다마을을 찾다. 물론 더 서쪽에 포르투갈이 있어 땅끝이 아니지

만 고대 로마시대에는 유럽의 서쪽 끝이라 믿었던 곳이다.

작은 마을에 순례길 표지판이 있고 순례자의 다 헐어버린 등산화 조각도 바위에 올려있다.

마침 날씨가 간만에 화창해서 성급한 해수욕객도 보이고 선탠하는 연인들도 보인다.

0 km 표지판 아래 순례객의 힘든 여정을 연출해 사진도 찍고 멋진 모듬해산물과 white wine으로 아쉬움을 달래다.

마지막날인데 연일 먹어던 마약성분 든 진통제 후유증으로 오늘은 속이 좋지 않아 매일 마시던 와인도 억울하게 못 마신다. 물같이 싼 와인이다 보니 이곳은 매 식사 할때마다 와인을 내놓는다.

마지막 디너도 리뷰 좋은 음식점 찾아 포식을 했다.

스페인이어 아듀..언제 또 다시 올수 있을지 벌써 아쉽다. 푸짐한 음식과 맛있는 와인, 각국에서 모여든 순례객들의 걷는 모습은 잊혀질 것 같지 않다.

열다섯번째 날: 집으로 돌아가는 날

언제나 그렇듯 여행이라는 건 뭐니뭐니해도 내집이 제일 편하고 아늑하다는 걸 실감시켜주는 행위이다. 세상 어디를 가봐도 미국같이 살기 편한데가 없고, 미국같이 모든게 풍부하고 여유로운 곳도 없다.

산티아고에서 마드리드로 또 로스앤젤스로 갈아타야하는데 그 복잡한 마드리드공항에서 두시간으로 잘 갈아탈 수 있을지 우려된다. 게다가 언어도 안 통하는 곳이라..

터미널에서 터미널도 어찌나 멀고 복잡한지..마드리드에서 내려 짐 찾고, 버스 타고 터미널 옮겨 체크인하고 짐부치고 시큐리티 통과하고 이젠 서브웨이 타고 게이트까지 와서야 안도의 한숨. 아직 30분정도 남았다. 새벽 6시 호텔 출발이어서 아침도 못 먹고 나온 상태라 Bar에 앉아 마지막 동전도 써버릴겸 맥주한잔과 올리브 한접시를 주문. 공항은 모든게 다 비싸다. 어디서나 2유로였던 맥주가 벌써 그림자.

보딩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태워줄 생각을 않는다. 시간은 말없이 흐르고, 드디어 기체에 문제가 있어 지연된다는 방송..게이트가 바뀌었다는 방송에 따라 300-400명 인원이 우루루 이리저리..급기야 줄서있는 승객들 개개인이 캔슬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는데 나에겐 이메일이 안 온다. 체크인 데스크의 항공사 직원들도 상황을 모르긴 우리와 같다. 성급한 승객들의 질문에 답하느라 진땀. 결국 다시 항공사 고객센터서비스로 다 이동.

출서서 날 LA까지 태워다 줄 비행기 스케줄 받고나니 오후 4시. 네시간 동안 피곤한 몸으로 먹은 것도 없이 하루 종일을 보낸 셈이다.

난 또 하루를 마드리드에 남아야 한다.

호텔과 저녁식사 아침식사 제공. 마이애미를 거쳐 LA로 결국 이들 뒤에나 집에 간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은 그저 받아들이고 좋게 생각해야 속이 편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걸 너무 잘 안다. 언제 또 마드리드엘 올수 있을까? 하루 더 있게되어 더 잘됐다하고 나를 달랜다. 짐을 다시 찾아 호텔 리무진으로 정해준 호텔 도착. 너무 괜찮은 호텔이라서 화가 좀 삭는다. 리무진에서 만난 한 분은 자기 부인은 9시 비행기로 멕시코 시티 경유해서 LA로, 자기 하루 자고 런던 거쳐 LA로 가야해서 서로 헤어졌다나? 이럴땐 혼자 참말로 더 좋다. 집에 가도 바쁜일도 없는 난 편하게 자고 피곤함을 좀 덜어 움직이면 되니까.

이렇게 산티아고 순례는 마지막까지 긴장감이 넘치는 오래
오래 얘기거리를 만드는 여행이다.

열여섯번째 & 열일곱번째 날: 대단원의 마지막

에어라인에서 정해진 호텔에서 푹 잘 쉬고, 지난 석 주간 어
디에서 먹은 아침보다 훌륭한 공짜 아침도 잘 챙겨먹고 다시 공
항으로 나선다. 복잡했던 마드리드 공항도 세번째 이다보니 익
숙해져서 척척 쉽게 다 통과. 시간이 제법 많이 남아 전날 앉았
던 Bar에 다시 가 그야말로 마지막 스페인 점심을 오더한다. 딱
딱한 빵에 하몽과 치즈 넣은 샌드위치와 이제 비행기만 타면 되
니 스페인 식으로 White wine도 아예 한병으로. 워낙 싸고 흔
해서 식사때 잔술보단 병째 나오기 일쑤. 잠시 지난 3주 동안의
순례길의 파노라마가 지나가는데 역시 첫날 파렌체 산맥 넘었
던 기억이 가장 생생하고 다음엔 빗속을 진흙탕길을 끝도없이
걸던 기억 뿐이다. 과연 이 경험이 앞으로 나의 삶의 길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하려나?

나의 원래 비행기표는 non-stop에다 좋은 자리에 앉기 위
해 upgrade를 했었는데 지금 받은 자리는 완전 맨 뒷자리이고
Miami 경유하는 표라 시간 적으로도 12시간에서 18시간으로
늘어났는데 이 손해는 누가 보상해주나?

억울해 하면서도 길고 지루한 비행이 끝날 무렵 내려다보는
LA의 야경에 그저 무사히 잘 도착했다는 안도의 감사함이 넘
친다.

또 대 반전..이제 짐 하나만 찾아 집에 가면 되는데 내 가방
이 안 나온다. 이게 무슨 약순환이란 말인가. 마드리드에서 분
명 LAX tag 다는 걸 봤건만. 마이애미에서 내 가방은 어디로
간걸까

그 시각이 새벽 두시, 내 가방이 집으로 배달된 건 저녁 7시.
그 동안 전화 бат데리도 나가고 충전기도 가방속에 있었고 억지
로 편한 하루를 보냄. 여독을 푸는 방법도 가지가지이다.

여러가지 사고도 많고 좌충우돌 매끄럽지도 못했던 25일의
여정이 끝이 났다. 이제 또 평범한 나의 일상으로 복귀를 후딱
해야 한다. 정신은 분명 멀쩡한데 몸이 온전치 못함이 많이 서
글프다. 건강만큼은 내 또래 어느 누구보다 자신 있었는데 나이
는 어쩔수 없다는 걸 실감하고 온 여행이라 더 서럽다. 근데 돌
아오자마자 다시 이번엔 그야말로 배낭 하나만 올려메고 이 순
례길을 한번 또 도전해 보고 싶어지니 이게 왜 조화일까?



2024 제 23호 거울지 발행을 축하합니다



권선희(75)

LICENSE NUMBER 0H00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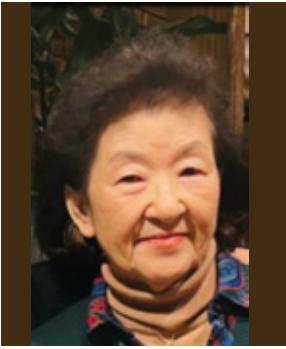
무엇이든
함께 하면 기쁨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친구

UNIe good friend
INSURANCE SERVICES

유니 굿프렌드 보험

HEAD OFFICE (LA)
2050 Wilshire Blvd., Suite 1210 Los Angeles, CA 90020
Tel. 313 388-7979 Fax. 313 674 4283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7 Buena Park, CA 90621
Tel. 714 978 3333



가장 르네상스적이었던 중세의 남자: 프레데릭 2세

Frederick II of Hohenstaufen, the Holy Roman Emperor (1194-1250)

이혜경(69)

서양에는 프레데릭이라는 이름이 흔하여 같은 이름의 왕과 황제들이 많지만 그의 별명 (Stupor mundi = The wonder of the world)에서 보듯이 이 황제는 기발하고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다.

부친은 독일 혈통의 황제 (Henry VI of Hohenstaufen)이며 모친은 시실리 여왕 (Constance, Queen of Sicily) 으로 당시로는 넓은 세상에 태어나 55세에 사망할 때 까지 복잡한 중세의 유럽을 뒤흔들면서 살았다. 이 황제는 출생부터 별난 이아가 따라다녔다. 모친이 나이가 많았던 탓에 다른데서 낳아 데려왔다는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여왕이 시장 한가운데에 천막을 치고 중인 환시 (역주: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봄) 중에 분만한 일화가 있을 정도이다. 4세에 시실리, 18세에 독일, 26세에 신성로마황제, 31세에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고 북유럽, 영국, 교황령을 제외한 유럽의 많은 영토를 손에 넣었다. 이런 영토와 작위는 부모에게서 또 세번의 정략결혼으로 얻은 것이니 (세 왕비 모두 먼저 사망함) 요새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데다 장가도 무척 잘 간 셈이다.

나는 이 황제에게 큰 매력을 느꼈으니, 자국의 주권을 확립하려고 당시의 왕과 황제들이 감히 도전하지 못한 교황과 쉴새없이 싸워 네번씩이나 파문을 당했었다. 교황이던 그레고리 9세로부터 “Predecessor of the Antichrist = “적 그리스도의 전임자”라고 불리기도 했으니 보통 인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귀족들에게는 도덕적, 종교적인 의무였던 십자군에 (6차) 참가해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고 당시 예루살렘 여왕이

던 미망인 이사벨라를 둘째 왕비로 꺾치고 그 자신은 예루살렘 왕국의 왕 까지 되었다.

이런 정치 군사적 활동 중에도 다양한 방면에 문화적인 자취를 많이 남겼다.

첫째, 유럽 최초의 국립대학을 설립했다. 그의 정치적 중심은 시실리섬의 Palermo 인데 (왕궁과 그의 묘소가 있음) 효과적인 관료 계급을 양성하려고 교통이 상대적으로 편한 이태리 본토의 남쪽 도시 Napoli에 (1224년) 국립대학을 세운 것이다. 나는 지난 2월 20일 여행중 Napoli 시내를 걷다가 졸업가운과 모자를 쓴 학생들이 친지들의 환호속에 샴페인을 마시는 것을 보고 무슨 대학인가 궁금하여 건물 벽을 보니, 바로 Università degli Studi di Napoli Federico II 라는 팻말이 보였다. 천년의

세월 동안 수 없는 인재를 키워낸 이 교육의 요람! 그는 방대한 지적 유산을 유럽 세계에 남긴 것이다.

둘째, 그는 6개어를 말할 수 있는 시인이기도 하였다. Palermo 궁전에서는 현대 이태리어의 기반이 된 Sicilian 어로 이루어진 왕성한 문학 활동이 (주로 詩 시) 장려되는 등 그는 문학, 예술, 과학의 보호자였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그는 시대를



앞서간 진정한 Renaissance 적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건축물에 남은 유산이다. 그를 위해 혹은 그의 지시에 따라 지어진 Castel del Monte를 소개하고 싶다. 팔각형의 성채인데 규모는 작으나 이 건물이 지닌 상징성과 아름다움은 정말 독특하다. 성 안에는 계단과 기둥을 제외하면 남은 것이 없어서 화려한 가구와 장식품들에 익숙한 사람들은 볼 것이 없다고 말 할 수도 있겠다. 성 외부는 1 cent 짜리 Euro 동전의 (Italian version) 뒷면에 조각 되어 있어 이탈리아인들은 아마도 그들의 황제를 영구히 기억하리라. 팔각형인 이 성의 상징적 의미는 이태리 작가 Umberto Eco의 1980년 소설 “The name of the rose”의 서문에 언급되어 있는데 한 줄만 소개하자면, “Eight, the number of perfection for every tetragon; four, the number of the Gospels ... Aedificium resembled Castel Ursino or Castel del Monte” 이다.

이 책의 내용은 중세 카톨릭 교회의 이단 박해가 한창일 때를 배경으로 한 수도원 내의 살인사건과 열띤 종교 논쟁이 중심이므로 여기서 소개할 필요는 없겠고, 소설의 (1986, Sean Connery 주연의 영화로 제작됨) 배경이 된 수도원과 도서관의 건물을 묘사할 때 U.Eco가 이 성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이



다. 물론 영화는 딴 곳에서 촬영되었다.

나는 지난 2월 여행중 마음먹고 여기를 찾았다. 이태리 동쪽의 해안 도시 바리(Bari)에서 기차로 한시간 거리에 Andria라는 작은 도시가 있고, 거기서 버스나 택시로 그 곳에 갈 수 있다. 이제 천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겨울이다 보니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 쓸쓸해 보였다. 바람을 맞으며 언덕 위에 묵묵히 서있는 성은 크지 않은데도 그 앞에 서니 알 수 없는 위압감에 좀 주눅이 들었다. 목재사용은 없이 돌로만 지어져서 그런지, 그 무언가 주위를 압도하는 기분이라고나 할까! 그 곳에 들어서며 나는 큰 숨을 들이쉬고 “황제여 드디어 내가 왔어요!” 라고 말했다.

건축 자재로는 그 곳 해안의 특색인 보라빛과 짙은 자주색이 섞인 돌을 많이 썼으며, 석회질이 포함된 탓에 보는 방향에 따라, 또는 햇빛의 방향에 따라 영롱한 색깔이 반사되는 그 중후한 대리석의 기둥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돌덩이들인지! 위엄있고 과묵하나, 부드럽게 초차 느껴지는 돌덩이들...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그 누군가가 이 건물을 보고 “A mixture of poetry and stone” 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옳은 표현이다.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이 황제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 비록 시대와 인종, 신분이 달라도 어쩐지 친근한 기분이 들었다. 아마 나의 전생에 황제를 만난 적이 있나 보다. 성채를 나설 때 나는 다정한 목소리로 “황제여 이젠 갑니다!” 라고 인사했다.

그는 아들 셋을 두었지만 장남은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 감옥에서 사망했다 (자살이라고도 함). 아끼었던 둘째 아들은 교황과의 알력에서 패하여 부친의 사망 후 4년 정도 지나 병으로 세상을 떴고, 셋째 아들도 15살에 사망하여 황제의 후손은 남아 있지 않아 Hohenstaufen 왕가는 절손됐고, 신성 로마 제국은 이후 1806년까지 여러 다른 황가들에 의해서 이어져갔다. 지난 천년간 이 황제의 성격, 인생 역정, 정치적 유산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과 찬양이 있어 왔으나, 그가 남긴 문화적 유산은 Umberto Eco 같은 작가들과 지식인들의 연구 속에서 거듭 거듭 재해석되어 더욱 풍성한 형태로 계속되리라고 믿는다.



문정인(69)

잊을수 없는 뉴욕에서의 첫 공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2020년에서 2024년은 그냥 한 걸음에 와버린 것 같다. Covid-19이라는 생소한 단어와 싸우다가 지난 세월이다. 그래도 그 와중에 내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었다.

나의 69 동기 회장이었던 혜옥의 권유에 이끌려 3명이 함께 이화코랄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이 2021년 더운 여름이었다. 이화코랄 멤버의 부군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토렌스에 위치한 교회가 나의 첫 연습 장소이었다. 69 동기인 강영옥의 지휘 아래 이화 선후배가 서로 어우러져 합창 연습을 하고 있었다.

고교 시절에 명성이 자자했던 음악 부장 영옥이를 실제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 당시에 이미 반 대항 합창연습을 시키는 모습에 매료되었던 터라 낯설지가 않고 무척 반가웠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50여년이 지난 후에 만나는 모습이었어도 어떻게 어렸을 때의 그 열정이 그대로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다. 그 첫 만남 이후로 4년째 계속하다가 올해 5월에 난빙고에 당첨되는 행운을 가졌다.

그 행운은 바로 이화코랄 단원들과 함께 처음으로 대 뉴욕 이

화 동창회 5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대중에게 아주 잘 알려진 뮤지컬 "The Sound of Music" 공연을 하게 된 것이었다. 그 공연 중에 "Maria" 라는 곡은 네명의 수녀가 나와서 부르는 노래인데 바로 내가 그 중의 한명인 수녀 역할로 뽑혀서 수녀복을 입고 노래를 부르는 행운을 맡은 것이었다. 처음에는 나의 Part를 연습하는데 많은 애를 먹었다. 왜냐하면 나는 중간 음역대만 소화할 수 있고 아주 낮은 소리가 잘 안되는지라 항상 F 밑으로 음이 내려가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리가 저절로 약해지거나, 나오지 않아서 그냥 멈춰버리는 행태 (본의는 아니었음)를 보여준 했기때문이다. 이 부분이 가끔은 코랄 단원 모두를, 특히 지





휘자를 놀라게 했었다. 그래서 방법을 고안해 낸 것이 다른 후배 수녀로부터 처음의 후원을 받아서 연결하여 중음부터 내는 연습을 해서 드디어 극복을 하여 안도의 숨을 쉬게 되어 포기하지 않고 뉴욕까지 갈 수 있었다. Yeah!

또한 나는 가사를 외우는데 도무지 자신이 없었다. 도저히 못 외울 것 같았던 곡들이었지만 수 많은 반복의 결과로 입에 착착 붙어서 나오게 된 것도 감사했다. 어찌어찌해서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도착해서 뉴욕 동창회에서 마련해주신 차편으로 연습장으로 출발 (자원 봉사자들에게 박수!) 하였다. 맛있는 한식 도시락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한식이라 대만족) 으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총 Rehearsal 장소로 향했다. 이미 많은 그룹들이 모여있었고 우리도 같이 합세를 했었는데 거기서부터 떨림과 설렘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정말 무사히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안 드릴 수가 없었다. 바로 다음날 공연 장소로 가서 다시 한번 Rehearsal을 하는데 아직도 완전체가 되도록 연습이 안된 것 같아 많이 긴장

이 되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다. Spotlight을 받으며 관객석을 바라보는데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긴장이 온 몸을 휘감았다. Timing을 놓칠세라 나의 Part를 머릿속으로 되뇌이며 반주에 맞추어 나오는데 드디어 성공! 그냥 곡의 흐름이 저절로 몸에 배어나와 완전체가 되어진듯 그 다음은 매끄럽게 진행이 된 것 같았다.

칠십의 중반에 선 내가 가졌던 이 뉴욕 공연의 경험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멋진 추억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많은 봉사자들의 수고와 열정으로 아름다운 NJ Art Performing Center에서의 훌륭했던 performance, 그리고 Hudson Bay에서의 선상 dinner party로 대미를 장식하신 뉴욕 동창회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주혜(75)

Valley 이화 후배들의 모임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니!! 우리 San Fernando Valley 에 사는 후배들과 만난지도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일년이 되었다.

어찌 어찌하다가 벨리에 사는 정은경(77) 후배를 통해 박혜경(78) 후배를 알게 되어 권기숙(74) 선배님과 함께 7/24/2023 벨리 이화 가족 후배모임 단독방을 열었다.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한번 만나자고 한 것이 계기가 되어 벨리에 위치한 restaurant 에서 우리 넷이 처음 만났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다가 기숙언니가 집을 오픈해 주시겠다며 벨리에 사는 아는 후배들을 모두 초대하자고 운을 댄 것이 발화점이 되어 작년 9월에 기숙 언니 집에서 김형주(77), 강애자(79) 후배들이 새로 조인해서 모두 여섯명이 모였다. 우리는 단지 젊은 후배들의 동창회 참여도를 고무시킬 겸해서 74학번을 제일 연장자(?)로 시작하여 밀레니움 졸업생까지 벨리에 사는 후배들과 자주 교류를 하자는

'mona lisa smile, Camille Claudel, Georgia O'keeffe, Frida'. 그러나 번개팅은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고 음악 감상으로 곧바로 이어졌다. Gustav Holst의 'The Planets'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러 Hollywood Bowl 도 함께 갔다. 항상 주차 문제로 엄두도 내지 못했던 헐리웃볼 관람을 은경 후배가 알려줘서 우리집에서 가까운 셔틀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니 너무나도 편리했다. "눈을 감고 들으니 마치 우주여행을 하는것 같다"고 함께 연주를 관람했던 음악가 혜경 후배의 음악 감상평도 인상적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은경 후배와 내가 뉴욕 50주년 기념에 참석해서 불러야 할 노래들을 개인적으로 레슨도 해 주었다. 우리 모임에 이렇게 music 과 art 에 뛰어난 예술인이 있어서 너무 뿌듯했다.

우리 모임의 작년 송년파티는 은경 후배가 운영하는 벨리에 위치한 명인만두에서 푸짐하게 차려진 가운데 모였는데 그날 새로운 이영심(76) 후배가 등장했다. 은경 후배는 친화력이 너



취지로 발족식(?)을 갖게된 것이었다. 호스트하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년에 계절별로 네번 만나며 메뉴는 비빔밥으로, 거기에 들어갈 나물은 각자 하나씩 해가지고 가는 것으로 정했다. 호스트는 밥과 국만 준비 하는걸로 정했으나 너그러운 호스트들 때문에 잘 지켜지지는 않는 편이다.

그 후로 번개팅을 해서 애자 후배 화실에 가서 설명을 곁들인 작품 감상시간도 가져서 너무 좋았고, 특히 visual language 를 생각하며 보라고 다음과 같은 좋은 영화도 추천해 주었다.

무나도 좋아서 아는 사람이 꽤 많은편이다. 덕분에 7명의 가족이 생긴것이다. 올해 정기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단을 발표했는데 우리 벨리에서 부회장에 이영심(76), 그리고 서기에 김혜주(76) 후배가 맡게 되었다. 또한 정기 총회 모임에서는 꿈에도 그리던 86기 백지혜 후배가 벨리에 산다는 말을 듣고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은경 후배가 포섭(?)을 하여 모임에 함께 하기로 했다.

며칠전 한참 뜨거운 벨리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애자 후배의



집에서 혜주와 지혜 후배의 'Welcome Party'가 성대히(?) 열렸다. 애자 후배의 작품들이 각 방마다 거실, 복도에 걸려있는데 흡사 갤러리를 연상시켰다. 가정집이 이렇게 멋있을수도 있구나!를 연신 반복하며 작품 설명을 들었다. 더욱 우리를 놀라게 했던것은 Italy의 어떤 Chef도 따라올수 없는 음식맛과 복장으로 모두를 매료시킨 부군의 serve였다. 우린 우아하게, 때론 박장대소를 하며 점심식사를 즐겼다.

다음 모임은 선선한 10월에 야외에서 만나기로 했다. Picnic Basket에 맛있는 과일과 샌드위치가 들어있는걸 준비할까? 아니면 Korean BBQ를 온 동네에 냄새를 풍기며 먹을까? 생각만해도 벌써부터 군침이 돈다. 부군들도 모두 초대해서 거창

하게 질러볼까? 오만가지 상상의 나라를 피며 웃음을 지어본다. 역시 멀리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 사촌들이 있어서 참 좋다.

우리의 대표 왕언니인 기숙언니의 제안대로 우리의 모임을 앞으로는 "대 벨리 이화가족 후배모임"으로 지을까 하며 깔깔 웃어봤다. 모두 9명이 모였다. 이 아홉명중에서 여섯명이 8/29에 Hollywood Bowl에서 열린 임윤찬 공연에 다녀왔다. 다양한 activity를 함께 나눌 벨리에 사는 많은 후배들이 우리 대 벨리 이화가족 후배 모임에 함께하기를 기대해본다.



2024 남가주 이화 거울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남가주 이화여고 동창합창단



연 습: 매주 토요일 9:30 am- 12:00 pm
장 소: 미주 평안 교회
170 BIMINI PLACE,
LOS ANGELES, CA 90004

지휘자: 석재희 (79) 714-452-7600
단 장: 박영신(64) 213-999-3696
부단장: 백혜란(70) 213-247-4524
총 무: 지희자(74) 323-683-4255



총회 차기 임원진



총회 차기 이사장, 부이사장



총회 송정명 목사님



총회 digital horn 연주



총회 Dr. 정수현



총회



총회



총회 단체



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



이사회 장성, 김원선



정기이사회



정기이사회



송년회



송년회



송년회



송년회 주영혜 선생님



송년회 기대표



송년회 임원진



송년회



송년회 최연소기



송년회76 장기자랑



뉴욕 음악회



송년회 단체



이화걷기반

백혜란 (70)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 걷기반 시작한지가 거의 10년이 되어갑니다.

곳곳마다 많은 모임이 있지만 저희 걷기반만큼 재미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며 일주일이 기다려지는 모임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모국 방문을 하거나 건강 문제로 또는 가족 모임으로 빠지는 분이 한두 명 계시긴 하지만 예외없이 목요일 아침 7시 30분에는 Griffith Park Coffee Shop 앞으로 모여서 조금 높이 올라가는 팀과 언덕이 없는 평지를 부담없이 걷는 팀으로 나누어져서 걷은 후에 모두 피크닉 장소에서 만나서 함께 즐거운 식사와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가끔 맛집을 찾아 식당에서 다 같이 식사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각자가 간단히 준비해 온 음식으로 피크닉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번 봄에는 LA를 방문한 이화여고 재학생 2명도 같이 걷기반에 동참하였습니다. 신선하고 발랄한 이화의 어린 후배들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걷기반이 모이는 장소는 Western 길을 북쪽으로 끝까지 올라오다가 왼쪽 (Fern Dell) 으로 들어와서 조금 올라오면 왼쪽에 있는 Trail Coffee Shop이 보이는데 그 건너편에서 매주 목요일 아침 7시 30분에 모입니다.

우리 걷기반 동아리에 동기 동창 및 선후배님들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이화여고 동창합창단

지희자(74)



남가주에 계신 선배님들 후배님들 무더위 잘 견디셨어요?
이화 노천극장 합창대회를 생각하며 우리 이화합창단에서 그때의 추억을 회상합니다.

작년 10월 팬데믹 이후 다시 이화 배재 사랑의 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5월 뉴욕 동창회 창단 50 주년 기념 합창제에 초대되어 다녀왔습니다.

우리의 해결사 김은경의 도움으로 호텔을 예약하고 뉴욕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

한국에서 온 예멜, 뉴욕합창단, 이화코랄이 모두 함께 아리랑을 부를 때 마음이 몽클했습니다.

뉴욕관광, 허드슨 리버 크루즈 디너등 모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동창합창단은 박영신(64) 단장님을 필두로 민재희(79) 지휘자, 그리고 박헬렌 반주자와 함께 합니다. 연습 시작전에는 백혜란(70) 선배님의 간식과 커피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을 기다리게합니다.

10월 5일에 실로암 시각 장애인 자선 음악회와 10월 14일 엘에이에서 개최되는 이화 북미주 총회에서는 무려 40명이 넘는 합창단으로 무대를 장식합니다.

이화인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이화 동창합창단에 더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연 습: 매주 토요일 9:30 am- 12:00 pm
 장 소: 미주 평안 교회
 170 BIMINI PLACE
 LOS ANGELES, CA 90004
 지휘자: 석재희 (79) 714-452-7600
 단 장: 박영신(64) 213-999-3696
 부단장: 백혜란(70) 213-247-4524
 총 무: 지희자(74) 323-683-4255

문화 탐방 모임

김미례(75)

박물관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하며 새로운 영감과 위로까지도 주는 고마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매일 경험하는 생활 안에서 혹은 우리에게겐 생소한 세계와 상상의 세계 안에서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 생각하게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가의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유명한 박물관부터, 지역 사회 미술가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작은 박물관까지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애써서 찾아보아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750 million dollar 예산으로 2025년에 재건축이 완공되는 서부에서 가장 큰 박물관인 LA County Museum of Art 의 re-opening도 기대해봅니다.

지난 4월 25일에는 City of Orange에 위치한 Chapman University 산하에 있는 Hilbert Museum of California Art를 방문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캘리포니아의 풍경들을 화가들의 눈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가득하여 흥미롭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없어질 뻔했던 glass tile mosaic을 애써서 복원하여 박물관 외관에 설치한 Millard Sheets의 작품을 보며 그 화가의 영감과 재능과 노력이 보전되었다는 기쁨으로 안도하였습니다. 반갑게 친구들과 나눈 점심 후에 Old Town Orange의 골동품 가게에 같이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8월 29일에는 작년에 이어 다시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 Beethoven의 Piano Concerto No 5, "Emperor" 를 들으러 Hollywood Bowl에 50명의 이화인들이 모였습니다. 트래픽을 이겨내며 먼거리를 오신 선배님들을 보며 문화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본이 되었습니다. LA의 여름밤에 파란 불빛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무대에서 섬세하며 견고한 터치로 자기의 음악적 표현의 경지에 이르는 20살의 임윤찬과 LA Philharmonic의 지휘자 Dudamel의 음악을 만드는 열정과 환희를 같이 맛보았습니다. 또 여러가지 간식을 가져와 나누어주셔서 훈훈하고 배부르고 멋지고 감사한 밤이었습니다.

문화탐방을 맡으면서 멀리서도 기꺼이 와 주시는 선배님들과 동창들의 호응과 응원으로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문화 탐방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아름다움에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경험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넘나드는 스윙, 우리 이화 골프 모임!!

권선희(75)



89번의 대회를 마무리한 우리 이화여고 골프 클럽의 여정을 돌아 보면서, 골프 클럽을 휘두르는 것같은 단순한 운동이 이화여고 골퍼 여러분 모두를 계속 연결하는 소중한 중요한 전통이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지난 2년동안 87, 88, 89 세차례의 골프 모임을 주관할 기회를 가졌고, 이 대회들의 준비작업들이 나에게 큰 보람, 기쁨과 향수를 안겨주었습니다.



시간이 60마일로 간다는 60대, 그중에서도 끝자락의 나이가 된 지금, 나는 이 모임이 단순한 게임을 넘어서,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이야기와 웃음, 그리고 우정으로 인해 더욱 소중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번의 모임은 우리가 중 고등학교 시절 나누었던 동료애와 그 이후까지 쌓아온 오래 지속된 동창들간의 유대감을 아름답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에너지틱한 젊은 시절부터 오늘날의 성숙한 모습까지, 각자 서로가 골프 코스에서 함께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이었습니다. 동료애, 친근한 경쟁, 그리고 공유된 추억은 이러한 행사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코스 안팎에서 서로를 지원하는 모습은 이 골프 클럽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해주며 또 필드에서의 모습들은 우리 이화인들이 얼마나 젊게, 멋있게 아름다움을 유지하는지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월을 돌아보며, 이 멋진 전통의 일원이 된 기회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쁨을 위한 스윙으로 Par, Birdie, Eagle, Hole in One 등을 축하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우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주신 모든 골프 회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페어웨이와 계속 만들어질 추억들을 위하여!

이화코랄

서병희(65)



우리 사랑하는 이화코랄에게!
 너와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나의 성장의 계기가 되었네.
 여태까지 살아오며 누구를 위해 이렇게 분노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으며, 이렇게 배려할 수가 있었을까?
 고맙다. 20여년을 너와 함께할 수 있었고 또한 사랑하는 언니들과 후배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었으니... 우린 서로를 친정식구로 생각하며 힘들고 삭막한 이민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살아왔으니 "이보다 더 좋은 단체 있으면 나와봐!" 하고 소리치고 싶네. 이제는 우리 이화코랄도 연륜이 쌓여서 일세대에서 이세대로 세대교체하고 좀 더 활기차게 음악성에 역점 두며 연습에 임하고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우리 이화코랄은 성가는 물론이고 오페라, 뮤지컬, 가곡, 민요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르를 섭렵하며 항상 힘이 넘쳐나지. 두

시간을 꼬박 소리를 내게 만드는 우리의 능력가인 이화코랄의 지휘자 영옥씨. 연세들이 있으신 우리들의 막간의 수다들로 웃음보를 터뜨리며 기운을 얻지요. 의자에 딱 붙어 앉아 연습하다가 끝날 무렵 즈음에는 한사람 한사람씩 시계를 보며 "일분 지났다!" 하고 외치면서 악보를 닫기 시작하지요.
 이 나이에 어디서 이렇게 마음껏 웃고 떠들고 목청껏 소리내어 화음을 맞춰볼 수 있을까요? 우리 코랄에 새로운 단원이 들어오면 너무나 소중하기에 서로 아껴주고 안부 물어주며 이렇게 지내온 세월!! 참 뿌듯하고 감사할 뿐이지요. 앞으로도 우린 한걸음 한걸음씩 더 나아가며 우리와 또 이웃 커뮤니티를 위해 노래로 봉사하고, 이화 선후배 동창님들을 위해 즐거움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코랄이 되길 결심해 봅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세요.



우리 이화코랄의 창단과 그동안의 공연 활동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화코랄은 2002년 10월 1일에 창단되었으니 벌써 2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나간 활동 역사를 잠시 되돌아 보니 이화코랄은 코랄 자체의 정기 연주회는 물론이고 여러 봉사단체 및 자선음악회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이화코랄 창단 후의 첫 10년 동안은 한국의 모교인 이화여고 뿐만이 아니라 미국 이민 역사의 중요한 기

이화인의 재능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무대로 동문들을 초대합니다

성 아그네스 한인성당, 월요일 오전 11:30- 오후 2:00

지휘자: 강영옥(69) (213) 500-1829 | 단장: 박연옥(73) (310) 617-9394

념행사가 있을 때에 이화 코랄이 그들과 함께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2003년 5월에는 이민 100주년 기념 합창제에, 6월에는 감리교 선교 100주년 기념 음악회에 참석했고, 2006년, 2007년, 2008년 4월에는 Hollywood Bowl에서 열린 다민족 부활절 예배인 "Sunrise Service"에 참가했으며, 2009년에는 뉴욕 링컨센터에서 '스크랜튼 서거 100주기 기념음악회'에도 함께 했습니다. 2011년 6월에는 '이화 125주년 동창회 100년 기쁨과 나눔 음악회'에 초대되어 서울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2004년에는 "A Chorale Evening" concert를 Hartford College, Oxford University에서 연주했으며, 2018년 5월 6일에는 전세계 대학생 합창단과 Carnegie Hall에서 협연을 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이화코랄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이화인의 롤모델이자 사랑이신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100주년 삼일절 기념행사 뿐만 아니라 광복절 행사에도 참여 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해방의 기쁨을 생각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목청높여 노래 불렀던 이화코랄의 공연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 공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인 커뮤니티 뿐 아니라 타인종과도 교류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2019년 100주년 삼일절 기념 행사에 남가주 이화 동창회의 대표로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이화 코랄은 동창회의 (정애수 '73 회장) 동아리로 인정되어 두 개의 합창단이 나란히 이화 남가주 동창회를 대표하는 합창단이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하나의 합창단 유지에도 고군분투하는 타학교의 동창회도 많은데, 유일하게 이화만이 두 개의 합창단을 갖추고 각기 다른 개성과 특성을 살리어 모교의 이름을 커뮤니티 안에서 빛내고 있으니... 이것이 웬 "축복"입니까? 아마도 모든 것이 협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사랑"이신 듯합니다.



민화 교실 / 메이크업 교실

심현주(69)



'궁중회화의 미학'

한국 조선 그림의 미학은 생명과 번영이라고 표현 할수있다. 궁중회화는 생명력이 풍부한, 그리고 현실적 모순과 부조리가 없는 이상적인 완전한 세계 (the ideal world)를 표현하는 그림이며, 그 이상 세계는 수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려는 동양의 철학도 내포하고 있으며, 인간의 본능인 생명과 번영, 그리고 무병 장수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민화 한국화 궁중회화
민화부터 채색화, 궁중회화를 다양하게 배우고 한국의 색을 채색하여 고유의 미를 자랑하는 민화 궁중화를 그려서 나만의 장식미술을 표현해 보세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고자하는 이화 선후배들의 미술실력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더불어 삶의 활력과 보람을 작품으로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화 생활취미 방문레슨합니다

1. 민화 아트 개인방문 레슨
2. 메이크업 개인방문 레슨

Covid 19 때문에 개인방문 레슨으로 전환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예약번호 213-458-0790



지혜로운
이화인 가족들의 기소식
(각 기 소개글)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 23:17)

오늘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 —

거울지 기자의 “여섯번째 공고” 재촉을 받고, 컴퓨터 앞에 앉아 한숨을 길게 쉬며, “무슨 소식을 쓰나?”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아도 즐거운 소식은 생각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제 87-88세가 되어 기동창 모임을 못 가진 지 여러 해 되었고, 여행도 힘들어서 그룹사진도 제출해주는 동창이 없다. <사진 없음>

바로 그 때, 카톡! 카톡! 소리가 울려왔다. 끄려고 눌렀는데, 잘못 눌렀는지... 감상적인 멜로디를 타고, 나의 기분을 즉흥적으로 전환시키는 상큼한 메시지 한 마디가 나를 깨웠다. “오늘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입니다.” 친숙한 여류시인의 말이다. 보통은 “내 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내 남은 생의 첫날—”이라고 하니, 깊이 가라앉았던 내 마음에 갑자기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 위로를 불러 일으켜주는 게 아닌가!

“마지막”이란 말 보다는 “첫날”이라는 말이 신선하다! 매년 “기소식” 원고를 쓰면서, 우리 55기동창이 거울지의 <기소식> 란에 첫번째 기동창 소식을 게재하곤 한다. 우리 기보다 선배 기동창 소식은 없어진지 오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55기 동창들은 살아서 활동하는 첫 번째 기동창이며, 따라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이제 우리 자랑스런 55기 동창들을 소개한다. 현재 9명이 카톡방에서 활발히 서로 소통하고 있다.

구철희, 라완균, 박정자, 유명옥, 윤석순, 전영희, 최옥주, 최현숙, 홍연숙

대부분 몸은 어딘가가 삐걱거리는 상태지만, 언어 소통 (두뇌) 과 카톡메시지 전달 (입과 손가락)은 얼마든지 작동할 수 있다. 금년에 한 명 (라완균)이 카톡방에 새로 들어왔고, 한 명 (박영균)은 지난 봄에 재택사교로 입원하게 되었는데, 전화기를 바꾸면서 저절로 카톡방에서 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새로 들어온 친구는 아주 건강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 나도 건강한 편이어서 골프치고 운전도 하지만, 지난 봄에 한국에 다녀왔더니 모두들 날보고 대단하다고 인사치레다.

입원한 친구는 건강이 나빠져서 우리 동기동창은 물론 후배들을 포함해서 기도와 위로의 말로 주위의 정신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부족해서 가장 기본인 MediCal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틀전에 소식이 와서 MediCal이 나왔고, 필요한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고, 또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다. 지난 수 개월동안, 이 아픈 동창을 위하여, 가까이 사는 동창(



윤석순)이 정기적으로 전화도 하고 문병도 가며, 아픈 친구의 근황을 기대표인 나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다. 이번 소식은 그 중 희소식이라며 한시름 놓은 듯 하였다. 기도하는 저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나즈막한 음성으로 기도한다. “내 남은 생의 첫날처럼 살게 하소서!”

이번에 우리 동기 소식이 좀 부진하여 저의 근황이라도 한 두줄 추가하자면, 저는 이번 가을학기에도 70명이 등록을 한 한글학교의 운영과 멕시코에 있는 대학의 한국어 후원자로서, 또한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한 은혜한국어재단 이사장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이 목사인 교회의 권사로서 아직도 할 일이 많은 사람이다

56

우리 56기 친구들은 두 달에 한 번 만나서 점심을 먹고 몇시간 썩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멀리 살아서 버스를 세번 갈아타고 오지요.

친구 이해리한테서 기쁜 소식이 하나 날라왔어요. 헤리의 제일 큰 손자가 UC Berkeley를 졸업했는데 부모의 도움을 한 푼도 받지 않고 혼자 벌어서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해결하고 아직도 학교에 남아서 일을 계속 하면서 대학원을 갈지, 잠시 teaching job을 가질지를 생각해 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Philosophy와 History로 double major를 했다네요. 또한 손녀딸은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Cal Poly Pomona를 다니는데 이번에 일학년 을 마쳤답니다.

또 한가지 좋은 소식은 친구 맹혜숙이 후배들한테 Art Open House를 했답니다. 예쁜 따님들이 정갈하게 준비해놓은 음식이랑 아마추어 실력을 넘는 그림과 자기 소품등을 선 보였답니다. 특히 벽 한면의 가득 채운 그림은 마치 바닷가에 나와있는듯했지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서로 안부를 주고 받을수 있다는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만남의 여운을 위하여

지난 5월 30일 용수산 식당에서 열린 이화여고 총동창회 모임에 다른 때와는 달리 우리 57년 동기들이 많이 참석했다. 오는 10월 중순에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리는 북미주 이화 총동창회 재회 모임에 참석하러 오는 우리 동기들을 환영하는 준비를 위해서였다.

이날 10여명이나 모였는데 꽤 오랜만에 만나니 너무나 반가워서 서로 허그하고 그간의 안부와 소식을 주고 받았다. 그런데 그중 몇명은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이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다.

“너 누구세요?”

“아,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세월이 흘러가 버렸네!”

한동안 만나지 못한 사이에 친구의 왕창 변해버린 모습들은 우리 마음을 찢하게 했다. 남편을 잃고 몸동이는 여기저기 안 아프데가 없어서 종합병원이 되어 있다고 했다. 같은 처지이면서도 어떤

르게 반갑고 애뜻했던 모양이었다.

이날 우리는 격조했던 세월의 소식과 안부를 서로 나누고, 오는 10월 이화 북미주 총동창 재회 모임에 멀리서 오는 동기 친구들에게 밥 한끼 따듯하게 대접하자고 기꺼이 마음을 모았다. 이번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타지역 친구들은 전처럼 많지 않겠지만 몇명 안 되는 친구라도 유례없이 힘든 세월 끝에 만남을 갖게 되는 그 설레임은 우리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다.

작년 12월 초에 옥스포드 호텔에서 열린 이화 남가주 동창회 크리스마스 파티에도 57기 동기들은 한 테이블에 다 앉을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참석했었다. 그만큼 우리들은 친구들과의 만남이 그리웠고 그래서 서로 권해가며 적극적으로 참석했다.

오랜만에 만나니 풀어놓을 웃음과 이야기 보따리가 넘쳐서 프로



친구들은 슬픔을 털어내고 육신의 활동을 제한시키는 지병과 통증들조차도 그냥 받아들여 가면서 적극적으로 씩씩하게 사는 친구들도 더러 있어서 보기에 좋았고 그들에게서 성숙함의 아름다움을 느꼈다.

로스엔젤레스는 워낙 지역이 넓어서 친구들이 도시 주변 지역에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전부 모이기가 무척 힘들었다. 게다가 그 몹쓸 팬데믹 때문에 몇 년 동안 세상 전체가 ‘Freeze 정지상태’를 살아야 했고, 우리들은 이제 나이로 치면 8학년 6반이 되고보니 대부분 차 운전을 포기한 상태여서 웬만해서는 친구 만나러 먼길을 나서기가 어려웠다. 그렇게 만나지 못하고 지낸 몇 년 동안에 우리 중에 여러명의 친구들은 남편과 사별하는 아픔을 겪었고, 또 몇 명의 친구들이 우리들 곁을 영원히 떠나서 그 빈자리가 슬프고 허전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끝에 서로 얼굴을 보게되는 이 만남이 남다

그램 진행이 어려웠는데 차라리 프로그램 시작 전에 한시간쯤 만남의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이 좋았을 것 같았다. 다채로운 여러가지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꽉 채우다 보니 정작 만남의 소중함과 기쁨이 소홀해진 것 같은 느낌이었고 이 테이블 저 테이블에서 터져 나오는 소음 때문에 식 진행에 집중하기 어려워서 피곤했다.

동창들이 그렇게 열심히 참석하는 것은 우선 만남의 기쁨을 나누려는 것이니 앞으로는 주최측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자리는 선후배간에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내 경험으로는 동기들끼리 만나는 것 못지않게 개성 또렷하고 코드가 잘 맞는 멋진 몇몇 후배들과의 만남도 큰 소득이요 기쁨이었다.



위해 말을 하기 시작했으며, 언어를 씀으로 발달한 것이 인간의 의식이었다. 그러니까 네트워킹 즉 만남이 우리 호모사피엔스 생존의 중요한 열쇠였던 것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 가정에서 부모를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난다. 그리고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서 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가지 유형의 만남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학교 졸업후에는 직장 친구들과 사회에서의 친구들, 그리고 배우자와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과의 만남도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만남이다. 이렇게 살아 가면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다채로운 만남속에 흘러가면서 엮여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이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히트송의 가사가 아니라도 이 두 글자는 우리들 가슴에 깊은 여운과 울림을 준다. 그 원인을 사유해 보면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등 체력조건이 월등히 좋은 다른 인종들을 이겨내고 최후의 승자가 되어서 오늘날 지구 상에 80억명 인구로 늘어났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인종들과는 다르게 호모 사피엔스들은 네트워킹을 할 줄 알았고 그러기

자, 이제 10월이 오면 여기 로스엔젤레스에서 우리 이화 북미주 동창들 만남의 큰 잔치가 열릴 것이다.

우리들은 정성을 다해 흥그러운 만남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고, 그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것이어서 서로에게 꽃이되고 향기가 되어 긴 여운으로 가슴에 남을 아름다운 만남을 꿈꾸어 본다.

이문희(68)

INCREDIBLE DREAM



2022년 Emmy Award의 animation 부분을 수상한 Jane Chung Hoffacker ('68 이문희 따님)이 세운 Incredible Dream의 첫 작품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도 좋고 또한 가족들과의 여가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은 "A Gentle Rain" 보드 게임을 소개합니다.



Available at Target!
www.agentlerain.com

\$19⁹⁹

60

민경문

우리 60기 친구들은 LA 와 오렌지카운티로 나누어서 모입니다.
 LA 에 사는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5-6명이 모이고 오렌지카운티에 사는 친구들은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 활동은 주로 LA 에서 사는 친구들이 열심히 참석하고 있지요.
 나는 금년에 잠시 한국에 다녀왔는데 마침 그때 한국에 사는 장

승자 친구가 서울 근교 인덕원 이라는 곳에 큰 별장으로 동기들 50여명을 초청해서 8년 만에 그리운 친구들도 만나보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친구들아! 우리가 나이는 들어가도 마음만은 늘 젊고 멋지게 건강하게 살자꾸나.
 친구들아! 사랑한다.



2024 기사식 61기 싱그러운 5월에 싱그러운 모임

5월은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설레고 흥분된다. 신록과 햇빛과 상큼한 푸른 하늘이 잠시라도 어디로 훌쩍 떠나보고 싶은 충동을 유발하기도 하는 계절!

더욱이 캘리포니아의 하늘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상쾌함의 극치이다. 체감 온도와 주변의 푸르름과 만발한 각색 봄꽃들의 향연을 볼 수 있는 기막힌 계절,

그러나 공교롭게도 동창회 총회 날짜와 맞물려 총회 참석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미안함 속에 우리 61기는 모처럼 멀리 나들이 모임을 가졌다.

우리들의 룸메이트, 이화 사위들까지 합세하여 총26명이 참석하는 근래 보기 드문 큰 잔치 모임이었다. 시원하고 안락한 환경에서의 모임은 오랜만에 맛보는 굴레를 벗는 듯한 해방감으로 충만하여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번 모임에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참석하여 감회가 더욱 새로웠다. 역시 동기들은 몇 년, 몇십 년이 흘러도 엇그제 만난 듯 전혀 낯설지 않은 친밀함과 정겨움으로 가득했다. 멀리 가는 운전은 조금씩 꺼리게 되는 우리들이기에 이날의 만남은 참으로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즐거운 추억의 시간이 될 것 같다.



62

우리 62 동기 친구들은 일년에 두번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거리 관계로 Orange 카운티와 LA 카운티 두 곳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서로 너무나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릅니다.

2024년 4월 26일에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동부에서 사는 민방임이 마침 방문 중이어서 모처럼 함께 재미있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2024년 5월 20일은 LA에 있는 용수산에서 두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기쁜 소식은 62 동기 중에 김희성 (김숙자)이 2024 The 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 를 수상하였습니다. 이 친구는 한미 여성회 (KAWA: Korean American Women's Association) 에서 12년동안 이사직으로, LA 지역사회에서 자원 봉사자로 일하며 기여한 것에 대한 추천으로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한것입니다. 또 저희 동기 중 San Clemente에서 살고 있었던 최영하가 한인타운으로 이사를 와서 너무 반갑고 자주 만날 수 있어서 기쁩니다.



63

Orange County 기모임

대부분 친구들이 팔순을 맞게 되는 우리 63기는 여전히 활기찬 모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한 달에 한 번 모이던 것을,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여서 모이던 중에, 두 달에 한 번만나는 것은 너무 멀다는 아우성에도 다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극성 팔순 할매들이지요. 또 앞다투어 점심을 내겠다는 팔순쟁이 친구들로 인해 차례를 위한 번호표를 나눠 주어야 할 정도랍니다. 우리 63기 모임은 언제나 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만남이지요.

여러번의 수술로 인해 힘든 상황에도 우리 모임에 나오려고 애쓰는 친구 용복이, walker에 의지해서도 곳곳이 참석해 주는 영애, 멀리 샌디에고에서 왕복 4시간을 운전하며 나와 주는 김명자와 강재경, 최근 join한 친구 강순자, 그리고 효녀 딸이 직장을 하루 쉬며까지 ride를 해 주어 가끔이라도 참석해주는 윤혜자, 모두 다 60여 년 전 어린 시절 이화동산에서 만난 친구들을 보고파 하는 마음이 대단하지요.

만나면 헤어지기 섭섭해 부른 배를 움켜잡고 후식을 핑계로 또 다시 아이스크림 혹은 빙수집으로 향하곤 합니다.

우리 남가주 63기 친구들!!

모두 모두 항상 건강하여 오래도록 만남을 가지며 행복한 할매로 삽시다.

63 친구들! 아자아자 화이팅!!



Los Angeles LA 동창회 7월 모임

우리 63 동기들 중에서 LA에서 살던 친구들이 슬슬 먼 곳으로 이사를 가고 이제는 몇 명 안 남았다. 강승자, 이해련, 이경옥, 이정숙, 이정자, 장영자, 차광혜, 최애자, 이해숙, 그리고 나... 모두 10명인데, 이해숙이 지난달 남편이 소천하신 후에 La Mirada로 이사를 가서 우리 모임은 9명이 되었다. 우리 모임의 인원이 적어서 재정의 궁핍함을 아는 Orange County member인 이용복 친구가 몇년째 회비를 내주어서 너무 고맙다.

차광혜는 하와이로 이사를 갔지만 동창회 회비를 열심히 내면서

회비는 제일 먼저 보낸다. 장영자는 좀 멀리 사는데 장거리 운전을 못하므로 우버 타고 오겠다고 했는데 참석이 쉽지 않다. 이정자는 모임에 항상 참석했는데 7월 모임에는 선약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

7월 모임날에는 멋쟁이 이해련이 앞으로 동창회를 열심히 참석하겠다고 하면서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는 이태리 파스타를 대접해 주어서 모두가 행복했다.

7월 모임의 마지막 finale로 우리 모두 6명이 한 차로 이경옥



LA에 오면 모임에 참석한다. 이정숙은 지금은 Apple Valley로 이사를 갔다. 두 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이지만 모임이 있을 때 마다 농사 지은 매실청, 매실 식초, 배즙, 석류 엑기스, 개복숭아 즙 등을 모두에게 잔뜩 안겨주었다. 제일 늦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친구인데 항상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고마운 마음이다.

강승자는 그동안 갈빗대 골절 사고로 참석을 못하다가 우버 타고 참석했는데 함박꽃 웃음을 머금고 나타났다. 이경옥은 모임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참석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 최애자는 참석하고 싶은 심정인데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참석을 못해도 항상

의 웨스턴 돌 침대 가게를 방문하였다. 지난 10년간 경옥이가 그린 민화 작품이 사방 벽에 빼곡히 전시가 되어 있었다. 모두가 놀라고 감격했다.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민화 전시를 즐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족한 나를 반장 시켜놓고 내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수고한다고 칭찬해 주는 덕분에 내 인생 제일 기쁜 날이 되었다. 그래도 칭찬을 해주면 춤을 춘다고... 우리 모두는 서로서 칭찬해 주면서 아름다운 만남의 하루를 맘껏 즐겼다.

우리 64기는 2024년 첫 모임을 2월 9일에 최희경과 배경순 친구들의 고마운 초대로 Seal Beach Club House에서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회장단으로 회장에 김현옥, 총무에 김정선, 그리고 회계에 이숙일을 소개하였고 정규 모임은 격월 첫 토요일 점심에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2월 첫 모임에는 25명 + 7명 (남편), 4월 모임은 김문자와 김진순의 초대로 18명, 그리고 5월에는 12명이 모여서 모교 60주년 재상봉 행사때 부를 노래와 춤을 연습하였습니다. 따라서 6월에는 모임을 가지는 것이 어려워서 만나지를 앓았고, 8월에 다시 정규 모임으로 Panda Inn, La Palma에서 19명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임을 좀 더 의미있게 하기 위하여 2월 모임에서는 물물교환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자기에게 필요로 하지않는 물건은 다른 친구가 사용할 수도 있고 donation도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8월 모임에서는 가나에서 선교하는 친구를 위하여 후원금을 모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동기 모임에 다른 주에서 방문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5월 모임에는 New Jersey에서 김혜영, 8월에는 시애틀에서 김평화의 방문으로 반가운 만남도 가졌습니다. 이제는 젊지도 않고 먼 거리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모임에 나오는 우리 친구들의 정성이 대단한 것을 항상 느낍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들의 졸업 60주년 재상봉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60주년 재상봉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재미도 있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모임이었습니다. LA 지역에서는 18명이 참석했고, 외국에서도 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탄자니아,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모든 행사에 참석한 친구들은 233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화에서의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특히 재상봉 60주년 학교 행사에서는 LA 친구 박영신이 동창회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이 나이에도 2박 3일 강원도 여행을 하였고, 특별히 외국에서 간 친구들을 위하여 동창회에서 준비한 철원 여행도 하였습니다. 6.25를 기억하게 하였고, 한국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을 옛 친구들과 보냈을뿐 아니라 모교를 위하여 후원금도 총 6억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학교 5억 원, 발전기금

5천만 원, 총동창회 5천만 원, 그리고 이화 교회에 2천만 원을 기부하는 보람도 느꼈습니다. 마지막은 윤보선 전 대통령 고택 정원에서 작별 오찬이 있었고 특히 가수 윤희주의 옛 노래를 들으며 다음 만날 날을 기대하며 헤어졌습니다.

65

전애린

우리 65기 친구들은 지난 6월 28일 정말 오랜만에 용수산에서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코비드 이후에 만나는 첫번 모임이라서 더욱 설렘 가득찬 마음으로 무탈하게 살아 남음(?) 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용수산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서경이가 건강할 때에 매 두 달마다 우리의 모임을 알리

는 글을 예쁜 꽃봉투와 편지지에 써서 보냈던 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경이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동기들을 위해서 애썼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서경이의 얼굴을 보아서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나서 좋은시간을 가졌기에 두 달에 한번씩 예전 같이 모이기로하고 다음번 8월 모임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모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66

우리 66기는 두 달에 한번 동기들이 모이고 있는데 오렌지 카운티 방향이나 샌디에고 지역 친구들의 참여율이 적어서 내년 2025년 부터는 짝수달 둘째 수요일에 모임을 갖고, 적어도 일 년에 두 번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모여 볼 생각이다. 2024년 66기의 기소식을 모아 보았다.

첫째, 2024년도 66기 회소식은 차기 총동창회 후원 이사장과 부이사장에 박혜옥과 정순희 두 사람이 선출된 쾌거!

둘째, 남가주에서 화가로 활동하는 서동현은 샌디에고 칼리지에서 그룹전 전시회가 있었고, 김구인 화백은 몸이 불편하여 현재 작품 활동을 쉬고있는 중이다.

셋째, 연극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안영혜는 “하얀나비” 공연과 “품바”를 2회 공연하다.

넷째, 우리 66 동기중에 홈리스(homeless) 사역에 몸을 던진 조승호 선교사와 글렌데일 친구들이 조출한 모임을 가졌다.

다섯째, 안정옥 동기는 무릎 수술후 회복중인데 동기 모임에 참석하려고 열심을 내어 재활운동 (Rehabilitation) 을 하고있다.

여섯째, 66기의 자랑인 정창용 학교법인 이화학원 이사장(이화여고 교장역임)이 이번 10월에 엘에이에서 열리는 북미주 동창회



에 참석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서 우리의 동창 66기의 Reunion을 시원한 바닷가로 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아무쪼록 친구들아! 건강관리 잘 해서 2년 뒤 60주년 여행을 기대해 보자!



67

도경애

우리들의 67기 LA 동기들의 모임이 점점 줄어드는 감이 있어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주 많은 친구들이 모임 수 있을까? 하면서 근황을 올립니다.

지난 7월에 오랜만에 모인 후에 카톡에 올라왔던 내용들을 올려 봅니다.

아직도 모두 예쁜데 인증샷 못 했다고 아쉬워하며 장문의 반가움을 표현해 준 명숙이,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움에 찍사(?)의 본



분 마저 완전 망각했다는 혜성, 친구들 모임에 참석을 못해 미안하다며 우편으로 후원금을 보내온 영례 (서울과 LA를 오가는 친구). 그 외에도 우리 기대표를 도와주려고 후원금을 보내온 많은 친구들... 일일이 다 이름을 나열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덕분에 여윌돈이 많이 생겨서 든든합니다.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지면으로 인사 드려요.

김명숙: "아무도 안 받으려는 기대표직을 묵묵히 계속 맡아주고 있는 영원한 우리 기대표 경애! 여기 소식 한 마디 올려달라는 부탁 조차 외면했는데... 이렇게 기소식을 올려주는 경애야 ~ 모여

라! 할 때마다 참석하는 일로라도 협조하리라 마음 굳게 먹었어요. 고맙고 사랑해.^^*

박경옥: "경애야,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바위 같고, 잔잔히 흐르는 강물 같고, 언제나 온화한 모습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모임 마다 우리를 맞이해 주니 너무 고마워! 사랑해!"

우리 모두 다같이: 모든 친구들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기대표인 도 경애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68

금봉숙

안녕하세요, 동기 여러분!

저희 68동기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첫 번째 목요일에 만납니다. 모임은 한 달은 LA에서, 다음 달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번갈아가며 열리는데, 운전이 서툰 친구들이 많아 주로 카풀을 이용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영숙이가 새로 구입한 차에 여섯 명씩을 태우고 LA로 함께 이동합니다. 덕분에 저희 모임은 항상 즐겁고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한국에서 친구들이 올 때마다 저희는 시간을 내어 함께 모입니다.

올해 2월에는 유명 미술작가 김명희가 방문하여 UCLA Hammer Museum에서 열린 '한국 실험미술 1960-1970' 전시를 관람하고, 작가의 설명을 들으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4월에

는 식물미술 교수님 혜선이가 와서 Descanso Gardens에서 예쁜 수제 가방을 선물받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에는 이문희의 딸 Jane이 제작한 Gentle Rain 게임을 받아 함께 즐기고, 한국에



서 방문한 이국성과 함께 LACMA를 찾아 여러 작가의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혼(digital horn) 연주로 우리 영혼을 맑게 해주는 정신이의 콘서트를 영희가 준비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집에서 즐겼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음악회를 열어주는 광숙이 덕분에 우리는 항상 노래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노래



를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합창단 멤버인 애권이가 수술 후 밝고 예쁜 모습으로 회복해 합창하는 모습을 보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영원한 이화 친구로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함께합니다. 이런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게 해준 이화와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8

매달 정해진 날이면 우리들의 만남이 찾아옵니다. 그날, 만남의 장소에 들어서면 모두의 얼굴에는 언제나 소녀 감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둘씩 도착해 식탁에 둘러앉으면, 지난 한 달간의 시간 속에서 마주한 일들로 이화동산의 꽃들처럼 이야기 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친구의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고, 나이 들어가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에 공감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시선들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에 따뜻함이 스며들어 즐거움으로 물들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됩니다.

조희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절이 있듯, 우리 만남의 이야기에든 계절이 있습니다.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은 꽃향기 나는 봄과 같고,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맡은 일에 열정을 다하고, 다양한 취미로 즐기는 모습들은 강렬한 햇빛이 내려쬐는 여름과 같습니다. 노년에 친구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은 단풍으로 물드는 가을과 같으며, 모두의 순수한 감성은 순백의 눈이 내리는 겨울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하며 늘 이런 모습으로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실 아름다운 만남을 꿈꾸며 함께하는 모두가 자랑스런 친구들입니다.



69

심현주

이화 69기의 모임은 격월제 모임으로 화기애애한 동기들의 우정과 사랑으로 뭉쳐지는 순수한 모임입니다. 이제 노인 초반에 들 어선 친구들은 각각 자기 가족에 대한 헌신과 봉사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고 또 짬짬이 그동안 못다한 고국 및 각국 다른 나라로 해외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부디 99 88 234 란 말이 있듯이 우리 동기들 모두가 99 (구십구) 세 까지 88 (팔팔) 하게 지내다가 23 (이삼) 일 아프고 4 (???)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요즘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입니다. 100세 건강에 발맞추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영위되고, 우

리들의 우정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바라며, 어느곳에 있든지 멋진 이화인으로 아름다운 노년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70

김춘영

70기 친구들 소식입니다. 2024년은 북미주 동창회가 LA에서 열리는 해여서 한국과 타주에서 우리 동기들이 이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모처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설레임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묘령의 수고로 멕시코 쿠르즈를 다녀와 조출한 Wel-

come Party와 Palm Springs 에서 3박 4일의 추억만들기로 계획하고 있지요. 멋지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70 동기는 두 달에 한 번 번갈아 LA와 Orange County에서 만나는데 그동안 모아 두었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며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고, 웃고 즐거움을 나누며 우정과 사랑을 쌓고, 건강정보들을 공유하는 우리들의 귀한 만남의 자리입니다.

늘 장소와 우리 친구들을 위해 수고해 주는 김은희와 백혜란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씩씩하게 회복 중인 순애와 선희를 위하여 또 우리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71

올해는 우리 71기 소식을 스킵해야하나 별 쓸 이야기도 없는데 하다가 그래도 몇자 적어봅니다.

우리가 60세 때 하와이 여행을 다녀왔고,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Arizona 주에 위치한 Sedona 를 다녀온 것이 마지막 공식적인 여행이였네요. 무엇이 그리 바쁜지 세월만 흘러 보냈고.

40년 동안 매달 한번 모이는 LA 모임은 7-8년 전부터 운전 문제로 OC 모임으로 바뀌었고 만나면 특별한 이슈 없이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는데, 여기저기 아픈 이야기, 병원 다니는 이야기, 남편 아픈 이야기 등등.

우리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되었는가?

그래도 우린 여전히 모인답니다. 특별히 신명나는 이야기 거리가 없어도, 화끈한 화제 거리가 없어도.

학창 시절에 같은 캠퍼스에서 뛰어놀던 친구들이라는 이유로, 열 굴이라도 바라보면서 함께 있다는 그 것이 좋아서 또 만난답니다.

금쪽같은 내 친구들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때 남은 인생 좀



더 재미나는 일들로 꽉 채우며 어제보다는 오늘을 더 멋지게 살아 보자.

71기 파이팅!!!

72

Nancy Hahn

우리 72기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 번갈아 가며 Los Angeles County와 Orange County에서 만나고 있다. 만나는 달에 생일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식사 후에 생일 케익을 먹으며 다 같이 축하를 해준다.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나고 항상 건강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기를 서로가 기원한다.



우리 73 동기생들이 올해로 방년 70세가 되었다.

환갑 여행 때에 15명이 하와이로 가서 젊음을 만끽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10년의 시간이 훌쩍 날아간 기분이 다. 이제는 지나면 다시 오지 않을 시간임을 잘 알기에 살아있는 시간 중에 가장 젊은 날 70을 기념하기 위하여 요리조리 궁리하였다.

하지만 개인 스케줄이 너무도 다양하고 취향도 달라서 알래스카 크루즈와 동부 단풍 여행 등 몇가지를 생각하였으나 이번에는 소박하게 3월 중순에 1박 2일 소풍을 다녀오게 되었다.

마침 조앤 김이 Wrightwood (Mountain High 근처) 에 있는 멋진 산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였기에 몇몇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외에 12명이 짧지만 기억에 남는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여행의 즐거움은 역시 볼거리와 먹거리이다. 이를 위해 각자의 분담으로 준비하기로 하였는데, 역시 그릇이 큰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1박 2일이 아니라 일주일엔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재료들을 준비해 와서 양식과 한식으로 푸짐하게 먹고 또 먹었다. 물론 와인도 빠질 수 없어서 한잔 한잔 서로의 세월을 마시기도 했다. 동기들과의 참으로 멋있고 맛있는 식탁이 오랫동안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이튿날은 아침부터 너무도 상쾌하였다. LA 근교에 눈으로 하얗게 덮힌 산들이 우리를 눈 앞에 펼쳐졌고, 산 공기는 너무나도 청명하여 마음껏 들어 마시고, 하얀 구름으로 수놓은 하늘은 마치 천사들이 춤추는 것 같았다.

눈 쌓인 길을 조심조심, 살살 넘어지지 않게, 양쪽 손엔 Pole을 꼭



잡고 깔깔거리며 하이킹 하던 일들이 소록소록 추억으로 남아 좋은 기억이 되었다. 주인장만 허락하면 두 달에 한번씩 "God made" 자연을 즐기면 좋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지만 역시 우리들의 삶은 너무 바빠서 아직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5월 스승의 날에는 주영혜 선생님과 김옥규 선생님을 모시고 용수산에서 소찬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매년 우리 73기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일년에 한번이라도 선생님과 제자가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 빌 때마다 두 분 선생님은 우리보다 더 젊고 지금도 소녀의 웃음을 간직하면서도 우아하시다. 우리도 열심히 얼굴을 두드려 보면 웃음과 우아함이 살아날지 모른다는 유쾌한 상상을 해본다. "내년에 또 빌게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70 years young' 한 소중한 친구들! 축하하고 너무 너무 사랑한다!"

올해는 우리 74동기들이 졸업 50주년을 맞은 해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한지 50년, 반세기라니!!

우린 지금도 얼굴만 마주하면 곧바로 10대로 돌아갈수 있는데...

올해도 우리 동기들은 여전히 한 달 혹은 두 달에 한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졸업 50주년 재상봉 행사에는 LA에서 10명이 참가했습니다. 5월 2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재상봉 행사에서는 우리 LA그룹이 신나는 춤무대를 펼쳐 전체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맹활약을 펼쳤답니다.

5월 26부터 28까지는 본국의 동기들과 함께 증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개교기념일 홈커밍 행사도 너무 행복하게 잘 치루었고, 저녁에는 인사동에서 해외 동창들을 초대한 저녁 식사와 추억의 태극당 디저트 타임까지 정말 정이 넘치고도 아이디어가 신선한

돌봐드리러 서울로 간 선영. 그리고 차박방을 운영하며 미주 대륙 곳곳을 직접 차로 운전하며 여행 즐기는 영원한 젊은이인 지인.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이면서 모범적으로 봉사하며 배려의 여왕이라 불리는 사려와 양보의 술선수범 모범생 친구인 중현이.

우리 모임 때마다 기꺼이 집을 제공해주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마련해놓고 백만불짜리 미소로 맞아주는 희자. 우리 동창회의 보배이며 기부와 봉사 그리고 인기까지 짝인 영희와 은경이.

이화코랄과 이화 동창 합창단에서 빼놓을수 없는 실력자들인 안복, 기숙, 희자, 은경.

또한 우리 동기의 골프의 여왕인 은화와 정희.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같은 학교에 다녔고, 미국에 와서는 이웃 동네 살며 간호사로 일하다가 은퇴하고, 이제는 여행 친구하고 있는 인생



우리 이화 동창들의 사랑의 환대에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었는지 모릅니다. 고대했고, 즐거웠고, 이젠 아쉬운 그 만남의 시간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네요.

요즈음 파리 올림픽에서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며 도전하는 운동 선수들의 모습이 마냥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친구들의 삶 또한 메달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동기들중에는 아직도 현역에서 가장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 현경. 작년 여름 역주행하는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치셨던 남편의 치유기간 동안에도 항상 감사와 기도와 은혜가 충만했다며 웃던 친구, 고난중에도 일하고 합창하고 교회봉사도 하고...

교직에서 수십 년 헌신하다 지난 6월에 은퇴하고 곧바로 노모

의 단짝 친구 난희와 정우. 단정하고 따뜻한 미소의 만년소녀 유환. 선교활동으로, 여행으로 일년내내 흥길동처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바쁜 명랑소녀 귀민. 센스있고 예쁜 액세서리 챙겨와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기를 좋아하는 동안의 미모인 친구 선이. 우리 친구들이 모일때면 정말 맛깔나는 반찬 만들어와서 우리의 미감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곤 하는 영자와 혜진. 영자의 건강이 좋아지길 기도하고 혜진이 사업도 계속 번창하길 기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웃음과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정미.

모두 빛나는 보석같은 우리 동기들이!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다들 건강하고 우리 오래오래 만나자~

75

한영덕

저희 75기는 짝수달 첫 번째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현역에서 뛰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모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고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의 모임은 거의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꾸준히 만남을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을 나눌 친구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우리 75기 동기들은 남가주 이화 총동창회의 회장단을 맡고 있어서 동창회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장단을 임기가 2년이라 올해가 우리의 마지막 해라서 더욱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동기가 동창회 일을 맡을 때는 모든것이 서먹했었으나 이제는 선후배님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샘솟는 것 같아 모두가 기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 우리에게 찾아온 기쁜 소식은 권정현과 장현주 가족에게 새로운 손주가 태어났으며, 8월 말에 또 한 명의 새 생명인 손주를 맞이하게 될 김미례... 아가 탄생 소식은 각 가정의 경사이고 언제 들어도 우리를 미소짓게 합니다.

5월에는 뉴욕 이화동창 50주년을 축하해 주기 위하여 남가주에서는 우리 동기 장현주, 권선희, 이주혜가 음악 행사에 참석하여 멋진 뮤지컬인 'Sound of Music' 도 선을 보이고 왔고, 하와이에서 사는 친구 변희진이도 합세하여 75 동기 네명은 뉴욕 일일 관광도 함께 하였답니다. 또한 발렌시아에서 개업하여 치과의사

로 오랫동안 일했던 손장숙은 치과의사로서의 마지막 챕터를 Indian Reservation이 있는 곳에서 인디언 원주민을 치료하는 low income nonprofit organization인 치과병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건강을 유지하여 직장도 계속 다닐 수 있고, 취미생활도 활발히 할 수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 75기 친구들은 내년에 있을 졸업 50주년 기념 행사로 모교 방문과 국내 여행, 그리고 해외 여행에 참석하려고 벌써부터 부푼 가슴으로 기다리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아!

내년에 50주년 재상봉 기념행사에 많이 동참하여 다함께 수학 여행을 떠나자!”



76

우리 76 동기들은요~

고교 졸업 30주년을 계기로 김한영의 헌신과 노고로 모임이 시작된 이래 이제까지 매달 한번의 모임을 이어오고있다.

이 모임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박은란의 장소 제공과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 이성자의 리더쉽과 집밥 지향의 수고스러운 음식 준비... 그리고 이 대목에서 몇년 전 한국으로 갈 때 까지 애를 아주 많이 쓴 우리들의 친정 엄마같은 전성례의 사랑과 손맛을 빼 놓을 수 없는 데....이 모든 친구들의 수고 덕분이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팬데믹 중이던 2021년 3월 신실한 믿음에 학구 열까지 겸비한 박은란의 제안 "우리 성경 통독 같이 해볼래?" 에 적극 동의해서 30분씩 매일 저녁 9시에 Zoom 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팬데믹 중 제일 잘한 일이 성경 통독 시작이라는데 모두 격한 공감을 하고있다.

이제까지 7번 통독 완료하고 금년 7월부터는 성경 한 장 읽고 서로 나누며 공부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시청각 자료들을 서로 올려주고 미리 주석책으로 연구하여 Sharing 해주는 친구들 덕분에 의문과 궁금증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어 지혜와 지식이 자라나는 듯한 뿌듯함과 대견함이 주는 재미가 쏠쏠하다.

또 하나의 자랑거리인 10년 이상된 크로마하프 Class...악기 소리 만큼이나 아름답고 귀한 정영옥 사모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을 인내심으로 하나 하나 가르치며 이끌어 왔는데 이 또한 팬데믹 중에 Zoom 으로 Lesson 하면서 더욱 활성화되었다. 요즘은 Zoom 과 대면 둘 다 활용해서 연습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다.

그리고 Maryland 로부터 혜성같이 나타나 진정한 마당발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멋쟁이 김세온이 내년부터 2년간 이화총회 회장직을 맡게되었다.

2024년 1월 초에는 우리집에서 모여 떡국으로 한살 더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기를 먹으며 근력을 키워 건강하자! 다짐하며 새해를 시작하였다. 1월 말에는 한국 동창들의 LA 방문으로 은란이 집에 모여 옛이야기들, 한국소식들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4월에는 김세온이 Newport Beach 의 Resort 로 1박 2일 초대를 해서 무궁해 새파란 하늘 아래에서 바닷가도 걷고, 봄꽃 흐드러



진 들길도 걷고, 맛난 것도 먹고 하며 Healing 의 시간을 가졌다.

8월에는 김혜경 집에서 모였는데 하프 연습하는 사이 혜경이 남편분께서 Gourmet Kabob 을 사다 주시고 사진도 찍어 주시고 하는 바람직한 남편상을 아낌없이 보여주셨다.

8월 29일 예는 음악에 진심인 이성자가 2월에 이미 예매해준 Hollywood Bowl 임윤찬 공연 에 9명이 같이 가기로 되어 있어 한껏 기대하고있다.

이 모든 것이 이화여고에서 시작되었음을 생각하면 절로 이화여고에 감사하게 된다!!

언제나 그렇듯이 해야 할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옵니다. 아버지 장례 준비, 직원들 페이 체크 만들기등, 급한 불 먼저 끄고 이제 동기 소식을 전할 차례입니다. 포기를 잘 못하는 지병이 있어 원고 마지막 날에 다급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틈틈이 여행도 하며 스트레스를 풀어봅니다.

이제 77기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면서 아직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돌봐야 하고 또 일도 병행 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은 팬데믹 이후로 힘들어져서 전체가 만나기



거울지가 나오면 77기 소식을 보고 기뻐해 줄 친구들을 위해 몇 자 적으렵니다.

몇 안되는 친구들이지만 일상은 다사다난합니다. 유럽 여행을 여행사 도움없이 직접 스케줄 짜고 예약해서 20여일을 베니스로 시작해서 오스트리아, 프라하, 부다페스트등 동유럽을 크루즈로 여행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으나 미대륙 여행 준비로 바쁜 나머지 제가 우리 기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강소영이는 산행 그룹들과 옐로우 스톤을 다녀왔고, 말없이 조용한 최영숙이도 한국 여행을 다녀와 사진 몇장 올립니다. 그래도

는 어렵지만, 가까운 지역에 사는 친구들끼리 집안에 경조사를 의논하며 서로 돕고, 의지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웃사촌보다 더 가까운 것이 저희 77기 동기들의 모임입니다. 그나마 단체 카톡방의 도움으로 서로의 안부도 전하고 혼자 해결이 힘든 사안은 의논도 하곤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 돌보기, 손주 돌보기, 건강지키기 같은 동일한 문제로 고민하다보니 인지상정, 위안을 받고 합니다. 내년 거울지에서는 유럽여행 및 미대륙 횡단여행을 다녀온 전해영의 이야기 보따리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유관순 기념관 건축 안내

유관순열사의 순국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유관순 기념관은 지난 50년간 이화 가족에게는 '지.덕.체.신'을 함양하게 한 전당이었고 청소년들에게는 공연 문화와 체험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관순 기념관은 노후 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며 이층 로비에 있는 전시실은 유관순열사의 업적을 전시하기에 면적이 협소하다고 합니다.

이에 지난 2020년 1월부터 유관순 기념관 개축을 위한 모금이 시작되었으며 2024년 8월 현재 5,370,000,000 여원이 모금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을 비롯해 해외에 있는 63,000 여분의 동창들이 한 마음으로 이루어 낸 값진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남가주에서도 작년 한 해 동안 22만여 불을 모교에 전달할 수 있었으며 이자리를 빌어 남가주의 동창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천여 개의 의자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완공이 이루어지기까지 모금은 계속 진행됩니다. 이미 많은 남

가주 동창들이 참여해 주셨지만 혹시 소식을 듣지못해 미처 동참하지 못하신 동창분이나, 이번 기회에 더 기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어 한번 더 알려드립니다.

동창님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늘 베풀어주시는 이화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100만 원을 기부하시는 동창께서는 유관순 기념관의자에 기부자 이름을 넣어주신다고 합니다.

체크는 payable to: Ewha A.A.라고 쓰시고 메모란에는 반드시 학생 때 이름과 학번, 유관순 건축기금이라고 써주시고 회계 최원경 (Ellen Lee)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llen Lee

16 Del Italia, Irvine, CA 92614로 보내주세요.

이화여중고 남가주 동창회장 장현주(75)





제 23호 거울지 후원금 내역 (\$10,300)

기별후원금: \$4,200

55, 56, 57, 58,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2, 73, 74, 75, 76, 77

Business 광고 후원금: \$4,000

- Life Med / 김정자(64): \$1,000
- Incredible Dream / 이문희(68): \$500
- Diamond Global Escrow, Inc. / 홍훈정(70): \$500
- California Mortuary Group, Inc. / 강은주(72): \$500
- UNI Insurance Services, LLC / 권선희(75): \$500
- 남가주 이화여고 동창 합창단: \$500
- Ewha Chorale: \$500



개인 후원금: \$2,100

한영숙(56): \$500, 이용복(63): \$200, 신영숙(64): \$500, 최영희(67): \$100, 이혜경(69): \$300, 장현주(75): \$500



이화여자 중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 본국/미주 장학금

이화여자 중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에서는 여러 동창님들의 정성어린 기부금으로 매년 본국과 미주에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업이 우수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장학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서는 이메일로 받아서 이화여자 중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년에는 5월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신청을 받아 7월에 4명의 장학생 (정지석, Bridget Kim, Daniel Lee, Morgan Pak) 을 선정하여 각기 \$1,000씩을 수여하였습니다.

이 일은 내년에도 계속 될 것이며 자세한 문의는 김광숙 (68) 장학 위원장 (818-523-4837)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여자 중 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 선교비 후원

이화여자 중 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에서는 매년 해외에서 선교 사업에 수고하시는 동창 몇 분께 선교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다음 5분의 선교사님께 선교비를 후원 했습니다. 윤수경 (61), 김윤자 (63), 조승호 (66), 오소숙 (73), 윤현주 (81).

선교비 후원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장현주(75) 동창회장 818-632-4587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2024 제 23호 거울지 발행을 축하합니다

한영숙 (56)

이용복 (63)

신영숙 (64)

최영희 (67)

이혜경 (69)

장현주 (75)



이화여고 북미주 동창회 창립 20 주년 / 제 11 차 총회

October 14 (Mon) – October 19 (Sat), 2024
Hilton Hotel Los Angeles Airport

5711 West Century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45

Monday, October 14: Registration 4 PM

Tuesday, October 15: 합창제/총회/만찬 5 PM, Hilton Hotel LAX

Tuesday, October 15: Los Angeles 일일관광

Wednesday, October 16: San Diego 일일관광

Thursday, October 17-Saturday, October 19: Paso Robles 2 박 3 일 관광
(San Luis Obispo, Paso Robles, Hearst Castle, Solvang, Santa Barbara)



이 QR code 를 사용하시면 신청서와 관광안내를 download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북미주 동창회 웹사이트 ewhaalum.us , 문의는 ewhaLA2024@gmail.com

2024년 동창회비 (358명) \$17,840

졸업년도	재학시 성명	
46	신효순	67
52	김봉숙, 김희경	김동순, 김명숙, 김정희, 도경애, 박경옥(\$100), 박영신 박영애, 박혜숙, 송현숙, 송혜성, 신중애, 이미경 이상민, 이영주, 전신영, 전용선, 조민선, 최영희
53	석윤희, 임인자	68
54	김숙정, 박정옥	김봉숙, 길정선, 김광숙, 김명숙, 김애권, 김정신 김태숙, 김혜경, 김혜실, 문정옥, 박성녀, 박영순 박혜선, 백영희, 윤미훈, 이문희, 이선숙, 이수인 이혜정, 전민자, 전옥희, 정현진, 조희서, 최영숙 최영희, 한금숙
55	박영균, 박정자, 윤석순, 전영희, 최옥주, 최현숙, 홍연숙	69
56	김순성, 김영순, 김정은, 맹혜숙(\$30), 박희경, 송영자, 원순주, 유경선, 이성숙, 이정희, 이혜리, 최화자(\$30), 한영숙, 허명숙, 홍정임	강영옥, 권민희, 문정인, 박혜옥, 심현주, 이윤경 이경희, 한정혜
57	김혜련, 윤연순, 이안나, 이양훈, 이영심, 이은경, 이정자, 임영실, 장대옥, 주영희, 전영옥(\$30), 진영주, 정수혜, 차명숙, 황영애	70
59	김수경, 박승자, 원효정	김성숙, 송묘령, 홍훈정 외 9명
60	강정희, 김동승, 민경문, 박자경(\$30), 신호국	71
61	권영혜(\$30), 금동심(\$30), 김옥지(\$30), 백부자(\$30) 심민자(\$30), 오순자(\$30), 윤수경(\$30), 이미자(\$30) 이민자(\$30), 이인선(\$30), 이인자(\$30), 정수영(\$30) 조규선(\$30), 최규병(\$30), 최신자(\$30), 홍유현(\$30)	김경진, 문성희, 문순옥, 박계순, 안영숙, 이명호 조미영
62	김명자, 김차남, 박미자, 박화영, 변양자, 송영자, 안수영 유혜란, 이선화, 전민옥, 조경옥, 최숙자, 최영하, 황현숙	72
63	강순자, 강승자, 강재경, 고혜원, 김명자(cer), 김명자(encs) 김보연, 김송자, 김여옥, 김윤자, 김인자, 김혜자(OC) 김혜중, 나춘실, 박철주, 윤혜자, 이경옥, 이명자 이상옥, 이수미, 이영애, 이용복, 이인화, 이정숙 이정자, 이혜련, 이혜숙, 임주자, 임철자, 장영자 장현자, 정건희, 주춘탁, 차광혜, 최수자, 최애자	73
64	고광애, 김명옥, 김문자, 김소연, 김정선, 김정자 김진순, 김태옥, 김현옥, 박순옥, 박영신, 방인숙 배경순, 백현자, 서원희, 신영숙, 안순희, 오현숙 이복희, 이봉숙, 이숙일, 이옥경, 이옥례, 이정희 이주희, 이현숙, 전명원, 조규령, 조길자, 최금화 최한희, 최혜경, 최희경, 호진희, 홍순조, 홍은식	김해숙, 김혜림, 남은영, 문지현, 박연옥, 신연옥 신연철, 윤갑모, 이경화, 이복순, 이선옥, 임중화 정애수, 정유진, 정은복, 천혜련, 최영희, 하정미(\$100) 홍미향
65	김대봉, 김재기, 김영주, 김은주, 박기순, 서병희 송혜경, 신현숙, 오영옥, 유소열(\$100), 유향전 이옥련, 이정란, 장명희, 전서경, 전애린, 조혜련, 허순희	74
66	길희경, 김영희(gl), 안영혜, 안정옥, 이명숙, 이정숙 이혜옥(미), 이혜옥(예), 정덕주, 정순희, 한중주	권기숙, 김은경, 김정미, 김중현, 김지인, 박정우, 신은화 유선이, 이경선, 이선희, 이영희, 이현경, 장난희, 전귀민 전안복, 조유환, 지희자, 최선영, 최정희
		75
		권선희, 권정현, 김미래, 서숙영, 손장숙, 안정림 원철경, 이주혜, 장현주, 최원경, 한영덕, 박정애
		76
		김세은(\$100), 김한영(\$100), 김혜경, 겸혜주, 문명화 박은경, 박은란, 신호정, 윤원선, 이성자, 이영심 전나미, 정영옥, 조희옥, 최혜경, 한애나
		77
		강소영, 김미혜, 김형옥, 김형주, 심영, 이영주 정은경, 최영숙
		80
		박원선
		86
		백지혜
		87
		김은이

“누락되었거나 수정이 (성명, 졸업년도, 금액) 필요하시면 기대표나 동창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1/2024-9/19/2024

2024년 이사회비 (139명) \$25,850

졸업년도	재학시 성명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82
46	신호순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82
52	김희경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82
53	임인자 (\$100)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82
55	라완균(\$1,000), 전영희, 홍연숙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82
56	맹혜숙(\$100), 박희경, 송영자, 이혜리, 최화자(\$100) 한영숙(500), 홍정임(\$200)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82
57	윤연순(\$450), 이안나, 이양훈, 이은경, 이정자 장대옥, 전영옥(\$100), 진영주(\$50), 차명숙, 황영애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82
58	김연, 김영혜, 이영희, 이장란, 최운봉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82
60	강정희, 김동승, 김미라, 민경문, 신호국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82
61	윤수경, 이민자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82
62	김차남, 최숙자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82
63	김보연, 김여옥(\$200), 김윤자, 이경옥 이용복(300), 주춘탁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82
64	김명옥, 김정자(\$300), 김현옥, 박영신 신영숙, 이주희 (\$300), 최한희, 호진희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82
65	김대봉, 김영주 (\$500), 김재기, 노현숙, 박기순 전서경(\$200), 전애린(\$250), 허순희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82
66	김영희(gl), 이혜옥(예), 정순희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82
67	김동순, 도경애, 박영애, 송현숙, 송혜성(\$200) 이미경, 이상민, 이영주, 전용선, 최영희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82

모교 장학 후원금 (TOTAL: \$25,000)

신영숙(64) - \$10,000 박영신(64) - \$5,000
 김정심(64) - \$3,000 이숙희(64) - \$3,000
 최명주(64) - \$3,000 이영미(64) - \$1,000

환경 후원금 (TOTAL: \$500)

72동기 - \$500 (Tree People)

유관순 기념관 후원금 (TOTAL: \$1,000)

김혜순(66) - \$1,000

기타 후원금 (TOTAL: \$3,000)

홍순애(70) - \$200, 임종화(73) - \$800, 신영숙(64) - \$2,000

웨스턴
3가

라이프 의료기구용품

Since
1989

김정자(64)

※개업 37주년 기념 세일



의료기구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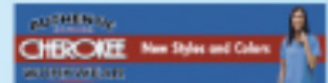
환자용전기침대/휠체어/워커/산소호흡기/이동식변기/목욕실보조기구/노인용기저귀,
 혈압기/혈당검사기/3M 청진기/진단기셋/인공유방 및 브라(Lingerie), 스타킹,
 간호원 유니폼, Table Paper, Inversion Unit, Tens, 마사지기구, 온열기,
 손세정제, 알콜 70%, 99%, 덴탈 마스크, Kn95, Face Shield, Glove



Accredited by the Joint Commission

※기능성 특수 신발,
당뇨인을 위한 특수 신발 ※

간호원 유니폼 세일



- ▶대표: 김정자
- 이화여중, 고졸업
- 이화여대 사범대학 영양학과 졸업
- 영양사(한국)

LIFE MED

※영업시간※ •월~금요일: 9시 30분~5시 30분
 •토요일: 10시~3시 •주일: 휴무

3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5-9133/ Fax.(213)385-3121
 lifemed333@gmail.com

거울지 제 23 호를 출간하며…

이주혜(75)

어느덧 우리의 제 23호 거울지가 탄생하게 되었다. 여러 동창 선후배님과 동기들의 주옥같은 글과 사진으로 꽉 채워진 아름다운 거울지를 보니 가슴이 벅차오른다.

올봄에 우리집 현관앞에 있는 포인세티아 나무에 아주 예쁜 새둥지가 눈에 띄었다. 설마하고 까치발을 들고 쳐다보니 너무나도 작고 깜찍한 새알 두 개가 나란히 자리잡고 있었다. 어미새가 헌신적으로 알을 품고 있는데 인기척 소리만 나면 후다닥 날아가서 우리 당분간 현관으로 드나들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놀랍게도 알에서 부화된 hummingbird가 가냘픈 몸으로 주둥이를 내밀며 엄마의 먹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정도 자란 아기새는 어느날 내가 지켜보는데에서 공중으로 날아갔다.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우리 남가주 이화 동창님들의 소통인 거울지가 처음 2002년 8월에 창간되었을 때부터 23호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배님들이 마치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먹이를 가져다주듯 서로 머리를 맞대며 제작하셨을까!! 이런 수고스러운 노력과 고마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번 거울지 23호 특집으로 거울지의 변천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다행히 거울지 창간호를 제작하신 김광숙(68) 선배님께서 많은 거울지를 보관하시고 계셔서 특집 제작에 큰 무리는 없었다.

또한 작년의 주제였던 한류 열풍에 힘입어 올해 거울지는 각 나라의 문화 차이와 그에 따른 문화 충격을 주제로 글을 모집했는데 한 분도 겹치지 않고 각자의 다른 문화 체험을 적어주셔서 글을 읽는 편집위원들에게도 새삼 우리 나라의 문화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 편집 과정도 편집 위원들이 원고를 받는 즉시 Google Doc으로 교정을 보아주어 훨씬 수월했다. 작년 거울지를 보고 있자니 실수한 것들이 눈에 많이 띄어 웃음이 흘러나왔다. 똑같은 실수를 줄이고자 “2024 거울지 제 23호 총기획”이라는 file을 만들어 생각이 날 때마다 적어 내려갔다. 이제는 우리의 기억력을 믿을 수가 없는 나이가 되었으니 열심히 기록으로 남길 수 밖에… 다행히 휴대폰에도 Google Drive와 Google Doc을 설치해 놓으니 짜투리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고 수시로 열어 보고 정리하곤 했다. 더욱이 카톡의 필요성은 말해 무엇하랴…



마지막으로 제 23호 거울지를 교정하면서 참으로 무수하게 많은 감사한 일들이 머리를 스친다.

선후배 동창님들의 원고 글 모음과 기 대표님들의 동기 소식, 개인 후원과 광고 후원, 그리고 각 기별로 보내 주신 재정적 후원들이 모두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거울지! 이화인의 긍지를 느끼며 한 분 한 분께 너무 감사하다.

게다가 힘들었지만 우리 75 동기 편집위원들 모두가 한결같이 기쁜 마음으로 편집을 해주었고, 특히 아직도 현역에서 일하는 권선희의 LA 사무실에서 주말에 모두 모여 교정을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도 행운이었다. 또한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 우리 거울지 주제와 부합되는 표지 디자인을 해 준 김미래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작년과 올해에 원고 청탁을 드리느라 카톡으로 여러 선후배님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귀한 시간을 가진 점이 얼마나 소중한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른다. 이런 동창회의 기능이 없었더라면 어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먼 이국땅에서 만날 수가 있었을까?

유튜브에서 들은 말이 기억난다- “열심히 하지만 말고 잘 해라!”

유난히 우리 편집위원 75동기들은 열정적이고 진취적이다. 말은 바 역할들을 알아서 척척… 교정보다가 띄어 쓰거나 맞춤법이 알쏭달쏭할 경우는 여지없이 ChatGPT와 Google search를 한다. 거울지가 만들어지는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휴대폰과 컴퓨터로 대기상태 모드로 들어갔다. 이런 우리 모두에게 “우리 정말로 열심히 했고 잘했다!” 라고 어깨를 토닥여 주고 싶다. 수고했어 모두들! 토닥 토닥!!!



梨花

2024년 이화 송년모임

- 일시 : 12월 7일(토) 오전 11시
- 장소 : Oxford Palace Hotel
745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 회비 : 1인 \$100 (Raffle Ticket 포함) / 부부동반 : \$200
- 연락처 : 장현주 (818) 632-4587
sunnydow@gmail.com
권선희 (213) 445-0631
sunnykwon7@gmail.com
최원경 (949) 246-3372
ellenwlee@yahoo.com



이화여자중 · 고등학교남가주동창회
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